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글 · 장경희 | 사진 · 김옥선

기획 · 문화재청



화산
문화

글 장경희

1960년 서울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문학박사(「조선왕조 왕실가례용 공예품 연구」)

전북대 · 충남대 · 이화여대 대학원 강사 역임

현 문화재청 전문위원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강사

저서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공저)

『종이 조형』(공저)

『탕건장』

사진 김옥선

1967년 서울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 전공

현 제주관광대 사진영상디자인과 강사

개인전 「WOMAN IN A ROOM」 등 2회

2001년 토탈미술관 초대기획전 외 다수

『탕건장』 기록 사진 촬영

- 기획 · 문화재청
- 본문 편집 · 정문자, 김보공
- 표지 디자인 · 한원그래픽스(02)2269-6915~6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기록 영상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관련 서책을 발간하는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곧 영상물은 영상에 의한 시각적인 지식을 기록하는 반면, 책지는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존하는 전통 기법을 서술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기록물이 후세에 전해지도록 기획한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글 · 장경희 사진 · 김옥선
기획 · 문화재청



화산
문화

머리말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의 역사는 조선시대 초기까지 소급된다. 망건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사대부들이 상투를 틀 때 사용한 일종의 머리띠였다. 망건은 당초 명 태조 주원장이 창안한 것이지만, 조선 초기의 장인들이 조선의 사대부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규격과 형태를 개선하고 또 제품의 재료도 말총을 응용하여 조선식의 독특한 망건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사대부들의 망건에는 반드시 관자를 장식하여 관모를 쓰기 위한 쓰임새와 신분상의 품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망건의 제작 과정에는 망건장과 동시에 관자장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기록에는 상의원 등 중앙관청에 망건장 만이 등재되어 있었고, 관자장의 기록은 찾기 어려우며, 반대로 조선후기에 개설되는 왕실의 각종 도감이 망건을 제작할 때는 망건장을 동원하는 예는 거의 없는 대신 관자장을 많이 동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망건의 수요가 점차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되어, 말 목장이 분포한 평안도와 제주도 등지에는 망건의 민간수공업이 발달하였는데, 단발령이 내린 뒤부터는 망건의 수요층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망건은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말총으로 한올한올 걸어가는 수공예품이기 때문에 특히 예재(藝才)를 지닌 장인으로 오랜 숙련과정을 거쳐야 하였으며, 동시에 탕건이나 총모자처럼 공방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도 편자 짜기, 바다 짜기, 당 걸기, 관자 장식 등의 단계적인 작업과정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전수된 망건장의 기능은 제주식 망건과 육지식 망건 간에 제작과정상 약간씩 차이가 있다. 제주식 망건을 제작하

는 기능의 보유자는 이수여(李受汝)로, 그 기능은 전수 조교인 강전향(姜全香)으로 이어졌으며, 지금은 손녀가 다시 계승하여 전수 장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다. 육지식 망건을 제작하는 기능보유자는 임덕수(林德洙)였고 그의 제작기술은 전수 조교 양진숙(梁珍淑)에게 전해졌다.

곧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은 조선시대의 역사적 존재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었고, 망건 또한 질적인 양적인 변천을 거듭해 왔다. 따라서 우선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망건과 망건장 및 관자장의 실태를 연구하기 위하여 각종 『도감의 궤』를 비롯한 관계사료를 수집 정리하였고, 현존하는 제주식과 육지식의 망건 제작과정에 소요되는 망건의 재료와 제작도구 및 그것의 구조와 제작과정을, 나아가 국가의 시책도 담아보기 위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의 보고서와 기존의 관계논문을 참고하였고,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또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본서의 말미에는 조선후기의 각종 도감에서 왕실용 망건을 제작할 때 동원된 관자장의 전체 명단을 수록하여 향후의 연구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필자는 문화재청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통하여 망건 제작기술이 영원토록 후세에 전수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충실히 서술해보려 노력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2001. 12.

장영희

차례

머리말 · 4

1 망건과 망건장의 역사 · 9

1. 조선 초기의 망건과 관자 · 10
2. 17세기 망건의 제작과 장인 · 15
3. 18세기 망건의 제작과 장인 · 22
4. 19세기 이후 망건의 제작과 장인 · 32

2 망건의 재료와 제작도구 · 42

1. 망건의 재료 · 43
2. 편자 짜기 도구 · 50
3. 바닥 뜨기 도구 · 55
4. 당 걸기 도구 · 60

3 망건의 구조와 제작과정 · 67

1. 망건의 구조와 장식 · 68
2. 편자 짜기 · 76
3. 바닥 뜨기 · 90
4. 당 걸기 · 101
5. 망건의 장식물 · 121

4 망건장의 전승과 국가 지원 · 126

1. 망건장의 전승 · 127

2. 망건장에 대한 국가 지원 · 136

부록 : 조선시대 도감에 차출된 관자장 현황 · 141

참고문헌

일러두기

작품이나 유물의 명칭은 〈 〉로 표기한다.

논문은 「 」로 표기한다.

서적과 보고서는 『 』로 표기한다.

작품이나 유물에 대한 자세한 캡션과 출전은 각주로 처리한다.

유물촬영 협조처 및 사진 제공처

국립문화재연구소, 궁중유물전시관,

단국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양진숙 전수조교, 이수여 보유자, 이화여대 담인복식미술관,

제주대 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제주자연민속사박물관

1 망건과 망건장의 역사

망건(綱巾)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관모를 쓰기 위해 상투 튼 머리를 감쌌던 머리띠였다. 사대부들은 망건으로 상투를 감싸고 탕건과 갓을 쓰거나 관모를 써서 신분적인 위상과 품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망건은 중국에서 창안되어 조선초기에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중국의 망건을 말총이란 재료로 바꾼다거나 형태도 간편하게 미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선적인 미의식을 가미하였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명나라의 복식사에서 망건의 개념을 지닌 머리띠에 관한 기록과 그 형상을 찾아보고, 또 그것이 조선초기에 어떠한 변모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조선초기부터 등장하는 망건장과 관자장들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그 처지가 어떻게 바뀌고 있었으며, 또 망건의 질적·양적인 변화도 수반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1. 조선초기의 망건과 관자

망건은 명나라의 독창적인 공예품이었다. 명나라가 원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몽고족의 변발풍습인 호풍(胡風)을 개조하고 한족의 풍습을 정립하기 위하여 변발 대신 머리를 기르고 그것을 간추릴 수 있는 망건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밑바탕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의 유교적인 도덕관념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나라에서 망건을 창안하고 그것을 상용화하게 되는 계기는, 태조 홍무제(洪武帝, 1368-1398)가 신낙관에 미행했을 때 어느 도사가 비단실로 "머리를 간추리는" 소망(小網)을 견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만들어 천하에 반포하도록 한 데 기인하였다.¹⁾ 당시의 망건은 흑색의 가는 새끼끈(細繩)이나 말꼬리털(馬眉) 등으로 어망(魚網)처럼 편직하였는데, 망건의 가장자리를 비단으로 싸고 양쪽 끝은 금옥동석등으로 작은 고리를 만들어 달았다. 테두리의 양변은 각각 하나의 가는 줄로 있고 두 고리를 서로 교차시켜 정수막이에서 줄라 묶어서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었다.²⁾ 명나라 초기에 위로는 고관대작부터 아래로는 생원이나 하급관리까지 모두 망건을 착용함으로써, 중국의 법도가 사방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일통산하(一統山河)"나 "일통천화(一統天和)"와 같은 상징적인 별칭이 붙기도 하였다.

1) 『七修類稿』, "太祖一日微行至神樂觀 有道士于燈下結網巾 問曰 '此何物也' 對曰 '網巾用以裹頭則 萬髮俱齊 明日 有旨召道士 命爲道官 取巾十三頂 頒于天下 使人無貴賤 皆裹之也'".

2) 王通肱, 『婦庵瑣語』, "網巾的制作 式於魚網 網口用帛作邊 叫做邊子 邊子二帽稍後綴一小圈 用金玉銅錫爲之 邊子的二邊各系一繩 交貫于二圈之內 頂束于髮 邊同眉齊 加一網帶 收約頂髮": 戴爭 編著, 『中國古代服飾簡史』(輕工業出版社, 1988), 190~191쪽.

명나라 초기의 망건은 『삼재도회』에 그려진 도면에 의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나,³⁾ 1637년에 편찬한 『천공개물』에 수록된 70여 면의 삽도에 의해서도 확인된다.⁴⁾ 중국식 망건은 망(網)의 형태로 제작되지만 이마 뿐 아니라 정수리까지 간추려 망건의 꼭대기 부분으로 상투가 내밀게 되어 있는 구조였다. 이와 같은 중국식 망건은 도면상에는 발을 가는 농부나 도자기 등 각종 공예품을 만들던 장인들이 주로 착용하고 있었다.⁵⁾

그리고 명나라 태조 초에 제정된 중국식 망건은 제작할 때 사(紗)와 같은 투명한 비단 위에 짙은 옷칠을 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말꼬리털을 쓴 적도 있어서, 만력(萬曆, 1573~1615) 연간에는 비단실 대신 말총을 사용하여 편직하여 그 물형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런데 천계(天啓, 1621~1627) 연간에 이르면 형태상의 변화를 겪어, 그동안 중국식 망건의 특징이었던 망건 위쪽의 망대(網帶)는 없애고 단지 아래쪽의 하망(下網)으로 머리를 묶게 되었다. 이렇게 변모된 형태는 “니수망(懶收網)”이라고 불려졌는데, 중국측 기록에서는 그 사례를 찾

三才圖會
衣服一卷

巾網



古無是制 國朝初定天下 改易胡風 乃以絲結網 以束其髮 名曰網巾 識者 有法 中原 四方 平定之語 海極萬象錄 曰 太祖微行至神樂觀 見一道士結網 召取之 遂爲定制

3) 『三才圖會』 卷4, 1513. “古無是制 國朝初定天下 改易胡風 乃以絲結網 以束其髮 名曰網巾 識者 有法 中原 四方 平定之語. 『海極萬象錄』 曰 太祖微行至神樂觀 見一道士結網 召取之 遂爲定制”

4) 宋應星, 『天工開物』 (中華書局, 1637년본).

5) 王維忠·劉翠華·周加戎 編繪, 『應用服飾資料』 (遼寧美術出版社, 1993), 185쪽, 247~248쪽. “明 勞動人民服飾”: 黃能馥·陳娟娟 編著, 『中國服裝史』 (中國旅遊出版社, 1995), 302쪽.



『천공개물』에 그려진 농부와 장인이 쓰고 있는 중국 망건

아보기 힘든 점을 미루어 그 뒤에는 널리 유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처럼 명나라 태조 초에 쓰기 시작한 망건의 형태와 재료가 만력, 천계연간에 변화된 모습으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후술하겠지만 이미 조선초기부터 조선식의 망건을 모방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⁶⁾

앞서 지적하였듯이 조선의 망건은 명나라의 망건과 마찬가지로 상투를 튼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가지런하게 정리하기 위해 이마부분을 묶을 필요성에 의해 전수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망건이 비록 명나라 망건에서 유래되었지만, 그것의 재료와 형태가 중국과 판이하게 달랐다.

첫째는 망건의 재료가 중국식은 비단을 사용한 반면 조선식은 말총을 사용한 점이다. 당시 국내산의 복식재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6) 『蜀庵瑣語』 “网巾的制作… 萬曆年後民間用落纏之髮 或馬鬃代替絲編网巾”

면포나 마포였지만 이것은 쉽게 더러워지고 또 질기지도 못하였다. 그렇다고 명나라의 비단을 수입하여 사용하기에는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가 무역상의 금물로 지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원나라 때부터 우리 나라는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목장을 두고 말의 사육에 힘써 왔기에 말총은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결국 비단 대신 말총을 사용할 경우 망건의 재료를 값싸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총은 표면이 매끄러워서 더러움이 잘 타지 않는 데다 자연스런 색깔도 고왔기 때문에 결국 말총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총으로 제작한 망건은 매우 독특하고 솜씨도 뛰어나서 일찍부터 중국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세종 2년(1420)과 11년(1429)에 국왕이 명나라 사신들에게이 말총망건을 선물로 하사하였을 때 그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⁷⁾ 그리고 성종 19년(1488)에 명 사신으로 왔던 동월(董越)도 ‘조선의 망건은 말총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주시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 결국 조선의 망건이 말총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기부터 조선후기와 개화, 일제를 거치면서 미적, 기술적인 개량과 개선을 쌓으면서 현재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겠다.

둘째는 망건의 중국식과 조선식 간에는 그것의 형태상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이점에 관해서는 이미 최남선도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최남선은 ‘명나라의 망건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중국 이상으로 널리 유행을 하다가 중국으로 거꾸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⁸⁾ 이러한 사실은 조선의 망건형태가 홍무 년간의 망건보다는 천계년간의 니수망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선초기부터 만들어졌던 조선식이 중

7) 『世宗實錄』卷8, 2年4月 丁巳條 : 卷43, 11年1月 辛亥條.

8) 崔南善, 『朝鮮常識問答』(현암사, 1947), 33쪽. “網巾의 내력은 어떻게 됩니까” : 崔南善, 『朝鮮常識』.

국으로 전래되어 17세기 경에는 중국의 망건 양식이 조선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식으로 바뀌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조선식의 망건은 상투를 튼 다음 볼록 튀어나온 꼭대기 부분에 동곳을 박고, 이마를 가지런히 하기 위해 살쩍밀이로 민 다음 망건을 단단히 둘러매고 당줄을 관자에 걸어서 상투에 동여매었다. 곧 이러한 양식과 형태가 중국으로 전파되어 늦어도 17세기 경에는 중국식의 망건 또한 조선식으로 바뀌었다고 하겠다.

셋째는 중국식과는 달리 조선식의 망건은 망건의 제작과정을 마무리하고 또 신분과 귀천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드시 관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망건에 매다는 관자는 그것의 품질 고하가 신분과 직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상징물이기도 하였다. 사대부들의 품계가 정3품 당상관부터 정 1품까지는 옥이나 금을 사용한 옥관자나 금관자를 망건에 달도록 하였는데,⁹⁾ 곧 정 1품은 조각한 만옥(漫玉) 관자로서 속칭 반옥환(班玉環)이라 하였고, 정2품은 금관자에 각종 문양을 새긴 속칭 쌍리(雙螭)를 달았고, 정3품은 옥에 각종 문양을 새긴 속칭 수팔연환자(八蓮環子)를 달았다.¹⁰⁾ 당하관 이하 서민들은 대모와 양뿔, 소뿔 등 각종 골각 재료를 사용하되 문양을 새기지 않은 관자를 착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결국 조선의 말춤망건은 명나라의 망건양식을 전수한 것이지만 그것의 재료와 형태를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조선식의 특수한 수공예품으로 자리매김한 셈이었다.

9) 『經國大典』, 禮典, 儀章條.

10) 『五洲衍文長箋散稿』, “正一品 漫玉(俗稱級玉環) 正二品 牽牛花樣 梅花樣 菝花樣級金(俗稱雙螭) 正三品 牽牛花樣 梅花樣 雜興花樣玉(俗稱鍍八蓮環子)”

2. 17세기 망건의 제작과 장인

조선 후기에 이르면 망건의 착용이 유행하면서 신분에 따른 관자의 착용이 정착되자, 국가에서는 망건의 제작과 관자의 부착을 전담하는 수급체제로 전환하였다. 망건장의 역할은 말총으로 망건을 짜는 역할로 제한되고, 망건을 다듬고 비단천을 붙이고 관자를 다는 마무리 작업은 관자장의 역할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가 되면 망건은 말총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민간 수공품으로 대량으로 제작되어 왕실의 수요를 위해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의원이나 임시로 설치하는 도감에서도 따로 망건장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임진왜란과 두 차례의 호란 이후 망건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웠던 17세기 초반에는 예외적이었다. 국가에서는 왕실의 국혼 때 세자가 착용할 망건을 제작하기 위해 망건장을 도감에 차출하여 망건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었다. 현존하는 『도감의궤』 중에서 망건장으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인은 박말남(朴淩男)이 유일하였다.¹¹⁾ 그는 1627년 소현세자의 국혼 때 도감에 차출되어 망건을 제작하였는데, 그는 옥관자를 갖춘 망건 2개를 말총 2냥으로 엮어서 만들었다. 이 때의 망건은 길이 8치에 너비 4치의 모단으로 감싸서 장식하고 아청색 비단실 4푼으로 아청색 필단으로 길이 4자8치 너비 2치의 망건끈 4개를 만들었으며, 관자는 흰색 비단실 12자로 부착하였다.¹²⁾

11)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1627年, 頁13197. 「一房 諸色匠人秩」 綱巾匠 朴淩男

12)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一房 儀軌」, 12月 28日 世子宮衣褂 “綱巾2內 玉貫子具1 (都監結造) 馬尾2兩 裝飾冒緞長8寸 廣4寸 鴉青眞絲4分 鴉青疋緞纓子4長4尺8寸 廣2寸 貫子付接白眞絲12尺”

1638년에 인조와 장렬비의 가례 때에도 왕이 사용하기 위해 2개의 옥 관자를 붙인 망건을 제작하였는데, 이 때 도감에 들어온 재료와 도구 또한 1627년과 동일하였다.¹³⁾ 당시 인조가 착용하기 위해 제작한 망건 1개는 흑칠에 두석 장식을 한 망건통에 넣은 다음 대홍 끈을 갖춘 붉은 색 2폭 보자기로 썼다.¹⁴⁾ 왕실에서 왕이나 세자가 착용할 공예품을 도감에서 제작한 다음 대내에 들일 때에는 반드시 함례에 담고 보자기로 싸서 들었던 것이다.

이때 망건은 망건통에 담았는데, 망건통의 크기는 길이 8치에 직경은 3치 5푼이었다. 이러한 망건통을 만들기 위해 박달나무 1자와 두석 1냥, 안감용의 저포 5치를 사용하였고, 망건통의 전면에 칠할 옷칠은 전칠 3홉과 매칠 1홉을 1자 2치짜리 흰 삼베에 걸렀다. 칠을 문힐 솜 7전과 뺏가루 1되, 붉은 기름 5치, 그리고 보통베 1자 2치가 필요하였다.¹⁵⁾ 이로 미루어 망건통은 둥근 형태이며 검은 칠을 삼베천에 걸러 2회에 걸쳐 칠하여 완성한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왕과 세자가 착용하기 위한 망건의 형태 또한 사대부의 그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인지 국혼 시의 도감에서 망건을 제작한 이외에, 일반적으로 망건은 말충이 생산되는 특정 지역에서 제작하여 공물로 올려 보내고 있었다. 그리하여 도감에서는 망건을 제작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망건장이 배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망건에 부착하는 관

13)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 1638年, 卍13061, 「房衣櫛色」 11月 24日. 〈大殿衣櫛物件所入秩〉

14)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 〈大殿衣櫛物件所入秩〉 “綱巾1 黑漆桶 豆錫裝飾 大紅纓子具裏紅紬2幅

15)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 〈大殿衣櫛物件所入秩〉 “綱巾桶 1部(長8寸 圓徑3寸5分) 楸木1尺, 豆錫1兩, 苧布5寸, 全漆3合, 每漆1合, 去滓白布1尺2寸, 綿子7錢, 骨灰1升, 紅紬5寸, 常布1尺2寸”

자의 경우 사용계층에 따라 다른 종류를 붙이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도감에서도 망건에 관자를 장식하는 관자장은 따로 차출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존하는 조선 후기의 『도감의궤』에는 각색의 관모장인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 관자장은 연인원으로 총 578명을 동원하고 있었다.¹⁶⁾ 도감에 동원하는 관자장의 처지는 시대에 따라 변모하여 17세기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 두 명의 경공장이 몇십 년간 차출되었고, 18세기에는 상설아문에 소속된 관장(官匠)과 사사롭게 제작하는 사장(私匠)이 동시에 동원되는 체제였으나 18세기말부터는 모두 사장으로 대체되었다.

17세기의 관자장은 동일인이 몇십 년간 도감에 동원되어 일정한 계보를 형성하였다. 그중 석맹남(石孟男)은 17세기 전반에 왕실에서 소용되는 망건의 관자를 제작하던 탁월한 관자장이었다. 그는 1624년 제기악기도감에 장승길 등과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으며,¹⁷⁾ 이후 1651년까지 27년간 8회의 도감에 단독으로 차출되어 활동하던 뛰어난 장인이었다.¹⁸⁾

17세기 중반 이후 망건의 수요가 많아져 도감에서 동원하는 관자장의 숫자도 늘어났다. 17세기 전반에는 한 번 개설되는 도감마다 한 명의 관자장을 동원하였던 데 비하여, 17세기 중반부터는 도감마다 적을 때는 1

16) 張慶姬,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2) 都監의 운영 실태를 기록한 『의궤』는 규장각과 장서각 및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1600년부터 1910년까지 규장각 소장 의궤 전체를 대상으로 관자장을 확인하였다.

17) 『祭器樂器都監儀軌』, 1624년, 규13734, 「三房 工匠秩」, “貴子匠 張承吉 希男, 孟男”

18) 貴子匠 石孟男이 차출되었던 연대를 『도감의궤』의 규장각 소장 번호만을 연대순서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624년, 규13734, 3방; 1634년, 규14915, 5소; 1645년, 규13062, 3방; 1645년, 규13918, 3방; 1649년, 규13067, 3방; 1649년, 규13521, 3방; 1651년, 규13064, 3방; 1651년, 규13068, 1방, 3방; 1651년, 규13071, 3방.

~2명에서 많을 때는 18명의 관자장을 동원하고 있었으며, 이에 해당되는 관자장의 숫자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17세기 후반 도감내 관자장

년도	도감	주 체	제작처	인원	규장각 소장번호	년도	도감	주 체	제작처	인원	규장각 소장번호
1651	책례	효종인선후	1,3방	2	규13064	1676	존호	인조장렬후	1,2,3방	5	규13258
1651	책례	효종세자	1,3방	3	규13068	1676	부묘	현종	1,3방	3	규13541
1651	가례	현종명성후	1,2,3방	3	규13071	1677	중건	남별전	1소	1	규14353
1651	존승	인조장렬후	1,3방	2	규13252	1677	존승	명성후	1,2,3방	4	규14896
1651	종승	장렬인선후	1방	1	규13255	1681	가례	숙종인현후	2,3방	5	규13084
1651	부묘	인조인렬후	2방	1	규13522	1681	국장	인경후	1,2방	3	규13553
1659	국장	효종	2,3방	2	규13527	1681	빈전	인경후	조선,별공	3	규13554
1661	책례	현종명성후	1방	1	규13073	1683	시호	태조	1방	1	규14927
1661	부묘	효종	1방	1	규13529	1684	빈전	명성후	조선,별공	2	규13544
1667	책례	숙종	1방,별	5	규13076	1684	국장	명성후	2,3	3	규14869
1667	중수	영녕전	1,3소	4	규14224	1686	존호	인조장렬후	1,2,3방	4	규13262
1669	부묘	신덕후	1방	1	규13496	1686	부묘	명성후	1방	1	규13545
1671	가례	숙종인경후	1,2,3방	8	규13078	1687	책보	인조장렬후	2방	1	규14210
1673	천릉	효종	1,2,3방	5	규13532	1690	책례	경종세자	1,2,3방,별	7	규13091
1673	빈전	효종	별공작	2	규13533	1690	책례	옥산대빈	1,3방	5	규13201
1674	빈전	현종	별공작	2	규13540	1694	책례	숙종인현후	1,3방	5	규13086
1674	국장	인선후	1,2방	4	규14865	1696	가례	경종단의후	1,2,3방	9	규13092
1675	국장	현종	1방	2	규13539	1698	복위	단종정순후	1,3방	6	규13503
1676	책례	현종인경후	1,2,3방	5	규13082	연 총인원		122명			

위의 (표 1)에 의하면 1651년부터 1698년까지 47년간 69회 도감이 개설되었는데, 관자장은 연인원이 총 122명으로 한 회당 평균 2명의 관자장을 동원하는 것이다. 당시의 도감에는 관자장 1명을 동원한 경우가 18회

인데 비하여, 2명은 12회, 3명은 10회, 4~5명은 20회, 6명 이상은 9회이었다. 이로 볼 때 2명 이상의 관자장을 동원한 경우는 전체의 74%이고 3명 이상을 동원한 경우도 전체의 57%여서, 17세기 전반에 1명의 관자장을 차출하는데 비해 이 때부터는 관자장의 숫자가 176%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 시기의 관자장도 17세기 전반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장인이 수십 년간 수 차례의 도감에 차출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위 숫자가 곧 동원된 장인의 숫자는 아니었다. 17세기 중반에 관자장으로서는 10년 이상씩 동원되었던 장인으로는 정희(鄭希), 정상립(鄭尙立), 성신룡(成信龍) 등 세 명이 있었다. 당시 활동한 세 사람은 혼자서 혹은 들쭉 거의 모든 도감에 참여해서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관자를 제작하였으며, 1667년에 영녕전을 개수하는 도감은 예외적으로 9명의 관자장을 불러모은 경우였다.¹⁹⁾ 우선 정희는 1651년부터 1661년까지 10년간 4회의 도감에 동원되었으며,²⁰⁾ 정상립은 1651년부터 1673년까지 23년간 6회에 걸쳐서 차출되는데 본격적인 활동은 1667년부터였다.²¹⁾ 정희와 정상립은 활동 시기로 미루어 볼 때 부자간이거나 형제간으로 여겨진다. 이들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차출된 성신룡은 1659년부터 1674년까지 15년간 활동하였다.²²⁾

19) 『永寧殿改修都監儀軌』, 1667年, 규14224. 「1所 工匠秩」 “朴大振, 朴戒善, 鄭尙立, 成時望, 李大善, 趙貴同, 金孫伊”; 「3所 工匠秩」 “貫子匠 成時望, 鄭業善, 韓順石”

20) 鄭希가 참여한 도감은 다음과 같다: 1651年, 규13255, 1방; 1659年, 규13527, 3방; 1661年, 규13073, 1방; 1661年, 규13529, 1방.

21) 鄭尙立이 참여한 도감을 연대순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651年, 규13522, 2방; 1667年, 규13076, 1방; 1667年, 규14224, 1방; 1669年, 규13496, 1방; 1671年, 규13078, 1방; 1673年, 규13532, 3방.

22) 成信龍이 참여한 도감은 다음과 같다. 1659年, 규13527, 2방; 1661年, 규13529, 1방; 1673年, 규13532, 2방; 1674年, 규14865, 2방.

한편 당시에 망건을 제작할 때에는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망건 2개씩을 만들도록 하였다. 1651년 현종과 명성후의 가례 때에는 소헌세자나 인조 때의 가례와 마찬가지로 망건을 제작할 재료 등을 준비하였다. 이 때에는 앞 시기에 사용하던 아청색 망건끈을 자적색 실로 바꾼 점이 차이를 보였다.²³⁾ 곧 이어 1671년에 거행된 숙종과 인경후의 가례와 1696년 경종과 단의후의 가례 때 숙종이나 경종이 착용할 망건은 2개를 제작하여 들이도록 한 것으로 보아 망건은 도감이 아닌 상의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말총 2냥을 비롯한 각종 재료들은 일치하지만 끈을 만들 자적사는 3전으로 줄었다.²⁴⁾ 그리고 관자는 백옥환 1쌍과 순금 1쌍씩을 만들기 위해 십품금 7전을 들었다.²⁵⁾ 그러나 숙종이 1681년에 인현후와 재가례를 치를 때에는 숙종 자신의 망건은 1차 가례 때 이미 만들어서 갖추었기 때문인지 망건은 제작하지 않았으며, 다만 망건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망건통만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²⁶⁾

17세기 말엽부터 도감에 차출된 관자장은 앞 시기보다 많아져서 도감마다 3~4명의 관자장이 활동하였다. 그 중 10년 이상 활동한 장인으로서는 최세건(崔世建), 우애금(禹愛金), 유득이(柳得伊), 유선득(柳善得) 등 4명이 있다. 이 중 앞 시기에 살았던 최세건과 우애금은 같은 시기에 활

23) 『肅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1651年, 卮13071. 「1房 儀軌」 8月 初4日 “綱巾2內 馬尾2兩 飾次冒段長8寸廣4寸 纓子紫的絲 12錢”

24) 『肅宗仁敬后嘉禮都監儀軌』, 1671年, 卮13078. 庚戌 11月 初2日. “馬尾綱巾2部 馬尾2兩 飾次冒段長8寸廣4寸 纓子紫的絲3錢 (以上 造作 內入)” ; 『景宗端懿后嘉禮都監儀軌』, 1696年, 卮13092. 「1房」 “馬尾綱巾2部 馬尾2兩 飾次冒段長8寸廣4寸 纓子紫的絲3錢 (以上 造作 內入)”

25) 『肅宗仁敬后嘉禮都監儀軌』, 庚戌 11月 初2日. “貫子 白玉環貫子1雙 純金貫子1雙 十品金7錢 (以上 次入)”

26) 『肅宗仁顯后嘉禮都監儀軌』, 1681年, 卮13084. 「1房 大殿衣櫥」 “綱巾 1 (黑漆桶具)”

동하던 장인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던 경공장이기 때문에 서로 짝을 이루며 6회의 도감에서 함께 참여하였다. 그 중 최세건은 최세걸(崔世傑)로도 불리며 1671년부터 1702년까지 31년간 16회 도감에 차출되었고,²⁷⁾ 우애김은 1673년부터 1681년까지 8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인지 7회의 도감에서 빈번하게 동원되었다.²⁸⁾

유득이는 1681년부터 1687년까지 4회의 도감에 차출되는 동안 유득 혹은 유득지 등으로도 불린 관자장이며,²⁹⁾ 그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까지 반세기 가까이 활동하였던 유선득과 형제간으로 여겨져 장인 집안이었던 듯하다. 한편 유선득은 1684년부터 1728년까지 44년간 15회의 도감에서 활동하였으며,³⁰⁾ 이중 마지막 10년에 해당되는 1718년과 1728년간 5회 도감에 동원될 때에 그는 훈련도감에 소속된 관장이었다. 따라서 유선득은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40여 년 이상의 긴 세월동안 도감에 차출되어 왕실을 위해 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관공장으로

27) 崔世建 : 1673년, ㄱ13532, 1방(京) ; 1673년, ㄱ13533, 丙別工作 ; 1674년, ㄱ14865, 附論賞(京) ; 1675년, ㄱ13539, 1방(京居) ; 1676년, ㄱ13082, 2방 ; 1676년, ㄱ13541, 3방 ; 1677년, ㄱ14896, 2방 ; 1681년, ㄱ13554, 魂殿 造成所 ; 1684년, ㄱ13544, 魂殿 造成所 ; 1690년, ㄱ13091, 1방 ; 1690년, ㄱ13201, 1방 ; 1694년, ㄱ13086, 3방 ; 1696년, ㄱ13092, 2방 ; 1698년, ㄱ13503, 1방 ; 1701년, ㄱ13555, 1방(石橋契) ; 1702년, ㄱ13089, 2방.

28) 禹愛金 : 1673년, ㄱ13532, 1방(京) ; 1674년, ㄱ14865, 1방(京) ; 1676년, ㄱ13082, 2방 ; 1676년, ㄱ13258, 2방 ; 1676년, ㄱ13541, 3방 ; 1677년, ㄱ14896, 2방 ; 1681년, ㄱ13084, 2방.

29) 柳得伊는 柳得 혹은 柳得只로도 기재되어 있다. 1681년, ㄱ13084, 3방 ; 1681년, ㄱ13554, 魂殿 別工作 ; 1686년, ㄱ13262, 3방 ; 1687년, ㄱ14210, 2방

30) 柳善得 : 1684년, ㄱ14869, 2방 ; 1688년, ㄱ14867, 1방 ; 1690년, ㄱ13091, 2방, 3방 ; 1690년, ㄱ13201, 1방 ; 1694년, ㄱ13086, 1방 ; 1696년, ㄱ13092, 1방 ; 1698년, ㄱ13503, 1방 ; 1702년, ㄱ13089, 1방 ; 1705년, ㄱ14211, 2방 ; 1718년, ㄱ13094, 1방 ; 1718년, ㄱ13573, 2방 ; 1720년, ㄱ13548, 2방 ; 1721년, ㄱ13099, 1방(訓局) ; 1724년, ㄱ13566, 2방(訓局) ; 1725년, ㄱ14909, 3방(訓局) ; 1727년, ㄱ13105, 3방(訓練耜監) ; 1728년, ㄱ14875, 2방(訓練耜監).

로 상설아문에 소속되었을 정도로 17세기말에서 18세기초에 활동하였던 관자장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솜씨를 지닌 장인이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17세기의 관자장은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우애금이나 최세건을 비롯하여,³¹⁾ 여러 경공장을 불러서 쓰고 있었다.³²⁾

3. 18세기 망건의 제작과 장인

조선 후기에 망건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도감에서 동원하는 관자장의 숫자도 늘어났다. 17세기 전반에는 한 번 개설되는 도감마다 한 명의 관자장을 동원하였던 데 비하여, 17세기 중반에는 2명 내외의 관자장을 동원하였다. 이에 비해 18세기 전반 도감에는 한 회당 4명의 관자장을 동원하여 앞 시기보다 2~4배 이상 도감당 동원 숫자가 급증하였으며, 도감에 동원하는 장인들의 처지는 관장(官匠)과 사장(私匠)으로 구분되었다.

당시 도감에 동원된 관자장의 연인원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1701년부터 1740년까지 39년간 32회 도감이 개설되었는데, 관자장은 연인원이 총 120명으로 한 회당 평균 4명을 동원하였다. 당시의 도감에는 관자장 1명을 동원한 경우가 9회인데 비하여, 2명은 6회, 3명은 3회, 4~5명은 9회, 6명 이상은 5회 중 1702년에는 18명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31) 『孝宗寧安豐陵都監儀軌』, 1673年, 頁13532. 「1房 工匠秩」: “貫子匠 金同伊 禹愛金 崔世建 (以上京)” ; 『仁宣后國葬都監儀軌』, 1674年, 頁14865. 「1房 工匠秩」: “貫子匠 禹愛金 崔世建 韓永雄 (以上京)” ; 『顯宗國葬都監儀軌』, 1675年, 頁13539. “貫子匠 韓永雄 崔世建 (以上京居)”

32) 『仁敬后國葬都監儀軌』, 1681年, 頁13553. 「1房 工匠秩」: “貫子匠 金斗延 (京)” ; 『明聖后祔廟都監儀軌』, 1686年, 頁13545. 「1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金斗延 (京)”

(표 2) 18세기 전반 도감내 관자장

년도	도감	주 체	제작처	인원	규장각 소장번호	년도	도감	주 체	제작처	인원	규장각 소장번호
1701	국장	인현후	1,2,3방	5	규13555	1724	국장	경종	1,2방	2	규13566
1701	빈전	인현후	빈, 혼별공	3	규13556	1724	빈전	경종	별공작	1	규13567
1702	가례	숙종인원후	1,2,3방, 별	18	규13089	1724	혼전	경종	조성소	1	규13568
1703	혼전	선의후	혼별공	1	규13578	1725	책례	진종	1,2,3방, 별	5	규14909
1705	개조	금보	2방	1	규14211	1726	책례	영조정성후	1,3방	2	규13100
1713	존승	숙종	1,2,3방	5	규13267	1726	존승	숙종·경종	1,2,3방	3	규13280
1713	도사	이용	상의원	5	규13995	1726	부묘	경종단의후	1방	1	규13569
1718	가례	경종선의후	1,2,3방	7	규13094	1727	가례	진종효순후	1,2,3방	8	규13105
1718	복위	소현세자빈	3방	2	규13494	1728	예장	효장세자	2방	1	규14875
1718	예장	단의빈	1,2,3방	4	규13573	1730	국장	선의후	1,2,3방	3	규13576
1718	혼궁	단의빈	조성소	1	규13574	1731	천릉	인조장릉	1,2,3방, 별	5	규14597
1720	국장	숙종	1,2,3방	5	규13548	1735	조성	옥인	제색	1	규14947
1720	혼전	숙종	조성, 별공	2	규13550	1736	책례	장조	1,2,3방, 별	6	규13108
1721	책례	영조왕세제	1,2,3방, 별	8	규13099	1739	부묘	단경후	1방	2	규13506
1722	복위	경종단의후	1,3방	5	규13097	1740	존승	인원후	1,2방	2	규13286
1722	존승	인원후	3방	1	규13277	연 총인원				120명	
1722	부묘	숙종	1,3방	4	규13551						

이로 볼 때 2명 이상의 관자장을 동원한 경우는 전체의 71%이고 3명 이상을 동원한 경우도 전체의 53%였으며, 17세기 전반에 1명과 17세기 후반에 2명의 관자장을 차출하던데 비해 2~4배 이상 동원되는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인의 숫자가 늘었는데, 17세기 후반에 경공장이던 그들의 처지가 18세기에는 관장(官匠)과 사장(私匠)으로 변모되었다. 관자장은 관청에 편입되어 관장으로서는 활동하거나 개인이 사적인 생산에 종사하던 사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도감의궤』에서 관자

장의 소속관청을 밝힌 경우와 사장임을 확실하게 병기한 1701년부터 1776년까지의 기록을 열거하면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 18세기 도감내 관장과 사장의 구분

년도	도감	주 체	관장					사장	규장각 소장번호
			상의원	공조	훈련도감	총용청	어영청		
1701	국장	인현후						1	규13555
1718	가례	경종선의후			4			3	규13094
1718	예장	단의빈						1	규13573
1721	책례	영조왕세자	1		6				규13099
1722	책례	경종단의후	2					1	규13097
1722	부묘	숙종		3					규13551
1724	국장	경종			1				규13566
1725	책례	전종세자		1	2			1	규14909
1726	책례	영조정성후			1				규13100
1726	존승	숙종인원후			3				규13280
1726	부묘	경종단의후			1				규13569
1727	가례	진종효순후	1		8			3	규13105
1728	예장	효장세자			1				규14875
1730	국장	선의후			2	1			규13576
1731	천릉	인조			1	1		2	규14597
1735	조성	옥인	1						규14947
1736	책례	장조			2		2		규13108
1739	부묘	단경후						2	규13506
1740	존승	인원후			1				규14286
1744	가례	장조현경후						5	규13109
1747	존승	인원후						2	규13288
1748	중수	진전			1	1		5	규14913
1752	예장	효순현빈			1				규14874
1753	존호	숙종인원후						5	규13294
1755	존승	숙종						3	규13269
1755	존승	숙종인원후						3	규13295
1755	봉원	순회세자			1			2	규13493
1757	국장	인원후						2	규13557

년도	도감	주 체	관장					사장	규장각 소장번호
			상의원	공조	훈련도감	총융청	어영청		
1757	국장	정성후						1	규13589
1762	가례	정조효의후						6	규13114
1772	존호	현종추존호						8	규13296
1772	시호	육상궁						1	규13490
1776	국장	영조						3	규13581
총인원			5명	4명	36명	3명	4명	60명	112명
			52명						
1744년 전후			전: 46명/ 후: 6명					전: 14명/ 후: 46명	

위의 (표 3)과 같이 1701년부터 1776년까지 75년 동안 34회 간 설치된 도감에서 관자장 중 관청에 소속된 장인은 52명, 사장은 60명이 동원되었으며 연 인원은 총 112명이었다. 하지만 상설이문에 소속된 관장은 수차례의 도감에 반복하여 차출되므로 실제 관장의 숫자는 이보다 적었고, 사장은 필요할 때마다 한 두 차례만 동원되므로 총인원과 그들의 숫자는 대체로 일치하였다.

관청 소속의 관자장은 상의원과 공조, 그리고 훈련도감과 금위영 및 어영청 등에 소속되어 있었다. 관장을 동원한 횟수는 총 20회였는데 이 중 상의원은 4회에 5명, 공조는 2회에 4명이었으나 훈련도감에서는 16회에 36명을 불러모아, 동원횟수로는 80%이고 인원비율로는 69%를 차지할 정도로 훈련도감 소속의 망건장이 전체 관장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들 상설이문 중 상의원과 공조는 조선 전기부터 왕가의 친족이나 관청의 관원들이 사용하는 망건을 제조하던 곳이었으나,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과 같은 조선 후기에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였던 군사 조직에도 관자장이 소속되어 병사들이 착용할 망건을 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관장과 사장은 영조 20년(1744)에 『국조속오례의』를 편찬한 시기를 전과 후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당시 왕실에서는 『국조속오례의』 이후 국혼 때의 왕실공예품을 제작할 때 재정상의 낭비를 줄이고자 『국혼정례』를 편찬하였으며, 왕실에서 사용할 공예품의 제작은 상의원에서 제작하도록 항례화하여 『상방정례』를 편찬하였다.

1744년 이전에는 관장 46명과 사장 14명으로 총 60명 중 관장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1744년 이후에는 관장 6명과 사장 46명으로 총 52명 중 사장이 전체의 88%를 차지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1744년 이전에는 관장을 주로 동원하다가 1744년 이후에는 점차 사장으로 차출하는 추세로 변하였다.

따라서 1744년 이후 1800년까지 개설된 도감에 동원된 관자장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1744년부터 1800년까지 56년간 45회의 도감이 개설되었으며 연인원은 총 183명이었다. 당시 도감에서 관자장 1~2명을 동원한 경우가 14회인데 비하여, 3~4명은 18회, 5~9명은 10회, 10명 이상도 3회이었다. 이 시기에는 18세기 전반과 마찬가지로 도감을 개설할 때마다 한 회 평균 4명의 관자장을 동원하고 있었다. 다만 도감의 개설횟수가 32회에서 45회로 140% 늘었고 관자장의 숫자도 122명에서 183명으로 150%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된 관자장 중에서 1755년 순회세자의 묘를 조성할 때를 비롯한 도감에서 훈련도감에 소속된 관장 4명을 동원한 이외에 대부분의 관자장은 사장이었다.

당시 사장은 관장처럼 한 명의 장인이 수 차례의 도감에 차출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만 동원되었기 때문에 위 관자장의 총인원은 대략 사장의 인원수와 일치하였다. 18세기초에 도감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표4) 18세기 후반 도감내 관자장

년도	도감	주 체	제작처	인원	규장각 소장번호	년도	도감	주 체	제작처	인원	규장각 소장번호
1744	가례	장조헌경후	1,2,3방,별	8	규13109	1759	가례	영조정순후	1,2,3방,별	7	규13102
1745	조성	악기	조성청	2	규14264	1759	책례	영조왕세손	1,3방,별	3	규13112
1747	존승	인원후	1방	2	규13288	1762	가례	정조효의후	1,2방,별	8	규13114
1748	모사	영정	별공작	2	규13997	1762	예장	사도세자	1,3방	4	규13605
1748	중수	진전	1,3방	7	규14913	1762	빈궁	사도세자	혼2방	1	규13606
1751	책례	의소세손	1방	2	규13199	1764	중건	수은묘	별공작	3	규13631
1751	묘소	효순현빈	삼물소	1	규14836	1772	존호	현종	1,2방	4	규13296
1752	존승	숙종인원후	1방	1	규13292	1772	시호	육상궁	2방	1	규13490
1752	영건	의소묘	별공작	3	규14259	1776	국장	영조	1,2,3방	4	규13581
1752	빈궁	의소세손	혼2방	2	규14838	1776	산릉	영조	조성소	5	규13586
1752	예장	효순현빈	2방	1	규14874	1777	추승	진종	2방,오주	3	규13327
1753	존호	숙종인원후	제색	5	규13294	1778	책례	정조효의후	1방	3	규13116
1753	봉원	숙빈	별공작	1	규14925	1778	존승	영조정순후	1방	3	규13306
1753	봉원	숙빈	조성소	4	규14926	1783	존호	영조정순후	1,3방	14	규13311
1755	존승	숙종	1방	3	규13269	1784	책례	문효세자	1,3방	5	규13200
1755	존승	숙종인원후	1방	3	규13295	1784	존호	영조장조	1,3방	3	규13297
1755	봉원	순희세자	조성,별공	4	규13493	1786	묘소	문효세자	조성소	2	규13925
1757	국장	인원후	별단,1방	5	규13557	1787	존호	영조정순후	1방	7	규13314
1757	빈전	인원후	혼별공	1	규13559	1789	친봉	장조	1방	2	규13624
1757	산릉	인원후	조성,별공	4	규13560	1789	존호	영조정순후	1방	11	규13316
1757	국장	정성후	1,2방	4	규13589	1800	국장	정조	1,2,3방	13	규13634
1757	빈전	정성후	빈,혼별공	3	규13590	1800	산릉	정조건릉	조성소	3	규13640
1757	산릉	정성후	별공,조성	6	규13591	연 총인원		183명			

관자장으로는 홍상익(洪尙益)이 대표적이며, 그는 망건을 제작하는 장인 집안 출신이었다. 그를 비롯하여 홍상건(洪尙巾)과 홍상인(洪尙仁)과 홍상한(洪尙漢) 등의 형제가 도감에 함께 차출되고 있었다. 홍상익은

1701년부터 1730년까지 30년간 12회의 도감에 차출되었으며, 1718년부터 1730년까지는 훈련도감 소속의 관장으로 도감역에 활동하였다.³³⁾ 다음으로 홍상건은 1718년에 홍상익과 함께 훈련도감의 관장으로서 참여한 적이 있다.³⁴⁾ 한편 홍상한은 1721년에 동원되었는데 그 또한 훈련도감의 관장이었다.³⁵⁾ 그들 형제 중 비록 동원된 횟수는 적지만 1720년부터 동원되었던 홍상인이 있는데,³⁶⁾ 그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솜씨를 지니고 있었는지 1727년에는 상의원의 관장으로 차출되었으며 1등으로 시상받기도 하였다.³⁷⁾

홍상익 형제보다 조금 늦게 도감에서 활동하였던 관자장으로는 김찬석(金贊錫)과 김말석(金末錫), 황대준(黃大俊) 및 서익준(徐益俊) 등이 있다. 김찬석은 훈련도감의 관장으로 1718년부터 1736년까지 18년간 8회의 도감에 차출되어 활동하였다.³⁸⁾ 그 또한 망건을 제작하는 장인 집안으로서 상설아문에 소속해 있던 김말석과 형제관계를 이루었다.³⁹⁾ 김말석은 1722년부터 1727년까지 5년간 3회 도감에 참여하는 등 비교적 짧은

33) 洪尙益：1701년, 규13555, 3방；1703년, 규13578, 魂殿別工作；1713년, 규13267, 2방；1713년, 규13995；1718년, 규13094, 2방(訓局)；1718년, 규13494, 3방；1718년, 규13573, 3방；1721년, 규13099, 3방(訓局)；1722년, 규13097, 3방；1726년, 규13280, 2방, 3방(訓局)；1727년, 규13105, 2방(訓局)；1730년, 규13576, 3방(訓局)

34) 『景宗宣懿后嘉禮都監儀軌』, 1718年, 규13094. 「2房 諸色工匠秩」, 「洪尙巾 洪尙益 金贊錫(訓局)」

35) 『英祖王世弟受冊冊禮都監儀軌』, 1721年, 규13099, 「1房 工匠秩」, 「賈子匠 趙太興 柳先得 洪尙漢(訓局)」

36) 『肅宗國葬都監儀軌』, 1720年, 규13548, 「3房 工匠秩」, 「賈子匠 車有贊 蔣於叱 芝伊 洪尙仁」

37) 『眞宗孝純后嘉禮都監儀軌』, 1727年, 규13105. 「都監別單」, 「賈子匠 洪尙仁(一等)」；「1房 工匠秩」, 「賈子匠 洪尙仁(尙方) 權萬秋(私匠) 金末石(訓局)」

38) 金贊錫：1718年, 규13094, 1房(訓局)；1721년, 규13099, 3방(訓局)；1722년, 규13097, 3방；1722년, 규13551, 3방；1725년, 규14909, 3방；1726년, 규13100, 別單；1727년, 규13105, 2방；1736년, 규13108, 3방.

39) 金尙錫：1722년, 규13097, 1방(尙方)；1722년, 규13551, 1방(工曹)；1727년, 규13105(訓局)

기간동안 활동하였으며 이후에는 전혀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요절한 듯하다. 그가 도감에 동원되는 기간 동안 소속된 관청은 망건을 제조하는 최고의 관청이라 할 수 있는 상의원과 공조와 훈련도감 등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대에 최고의 기량을 지니고 있었던 장인이었음을 알게 한다. 서익준은 1736년부터 1744년까지 3차례 도감에 차출되는 동안 훈련도감과 어영청에 소속되어 있던 관장이었다.⁴⁰⁾

한편 황대준의 경우 장인의 처지가 달라지는 사례에 해당된다. 그는 1718년부터 1731년까지 13년간 5회 도감에 차출되었는데, 본래는 사장이었다가 1722년 이후에는 총융청의 관장으로 주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⁴¹⁾ 이처럼 18세기 들어서 전반기에 개설된 도감에 차출된 관자장 중 관장은 십여년 이상 수 차례의 도감에 반복 차출되어 활동하곤 하였다.

왕실에서는 왕실공예품을 제작할 때 재정상의 낭비를 줄이고자 영조 28년(1752)에는 왕실에서 사용할 공예품의 제작을 항례화하여 『상방정례』 편찬하였다. 이 책에는 왕과 세자 등이 사용할 왕실용 망건은 상의원에서 매년 제작하여 진상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진상용 망건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와 도구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망건 3부를 장식할 모단(冒緞) 1자 5치는 매년 호조에서 구입하여 들였다.⁴²⁾ 망건 1건을 만들 때에는 『준절식(準折式)』에 망건을 감쌀 모단은 길이와 너비가 각 4치짜리를 사용하였으며, 끈(纓子)에 쓸 자적사 3전과 말총이 필요하였으며 말총을 엮어갈 때 드는 공임으로 면포 1필이 소요되었

40) 徐益俊 : 1736년, 규13108, 3방 (訓局) ; 1740년, 규13286, 2방 (訓局) ; 1744년, 규13109, 3방 (御營廳)

41) 黃大俊 : 1718년, 규13094, 3방 (私匠) ; 1720년, 규13548, 1방 ; 1722년, 규13566, 1방 (摠戎廳) ; 1730년, 규13576, 1방 (摠戎廳) ; 1731년, 규14597, 1방 (摠戎廳).

42) 『尙方定例』 卷1, 「戶曹年例進排」 "冒緞1尺5寸 (頭冕3部 纓子及綱13部 飾次)"

다.⁴³⁾

『국훈정례』나 『상방정례』에 의거하여 치른 첫 번째 가례는 1759년의 영조와 정순후의 국훈이었다. 당시 망건은 상의원에서 제작하는 것을 향례화하였기 때문인지 도감에서는 망건을 넣을 망건집『網巾家』을 갖추어 제작하였다.⁴⁴⁾ 곧 이어 1762년에 거행된 정조와 효의후의 가례 때에도 마찬가지로 망건 대신 망건집을 제작하였으며, 이것을 대내에 들이기 위해 예의를 갖추는 때 망건통을 감쌀 보자기를 제작하고 있었을 뿐이다.⁴⁵⁾

이처럼 왕가의 망건 등은 상의원에서 제작하는 것을 향례로 정하였기 때문에 도감에서는 관장 대신 사장을 동원하였다. 18세기 후반 이후 도감에서도 몇몇 뛰어난 사장들은 여러 차례 동원되고 있었다. 김로미(金老味)와 김명기(金命起), 김금(金金)과 이덕중(李德中)이 대표적인 사장이었다. 김로미는 예외적으로 1748년부터 1772년까지 24년 동안 8차례 도감에 사장으로서 차출되어 활동하였다.⁴⁶⁾ 김명기도 1778년부터 1795년까지 17년간 참여하였고,⁴⁷⁾ 김금의 경우 1795년 이후 1805년까지 4차례 참여하였으며,⁴⁸⁾ 이덕중의 경우 1802년부터 1816년까지 14년간 6회 도

43) 『尙方定例』卷1, 「准折式」 “馬尾網巾 (每部飾次冒緞長廣各4寸 纓子紫的絲綵錢 馬尾及結造價綿布1疋)”

44)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1759年, 규13103. 「1房」尙衣院依 點下 舉行別單秩. 大殿衣櫥 “馬尾網巾1部 (黑漆家具)”

45) 『正祖孝懿后嘉禮都監儀軌』, 1762年, 규13114. 「別單」世孫宮衣. “馬尾網巾1部 (黑漆家1部, 裏紅絨 4幅單 1件)”

46) 金老味: 1748년, 규14913, 2방 (私匠); 1751년, 규13199, 1방; 1753년, 규14926, 별단; 1755년, 규 13493, 조성소 (私匠); 1757년, 규13589, 2방 (私匠); 1759년, 규13102, 1방; 1762년, 규13605, 1방; 1772년, 규13490, 2방 (私匠).

47) 金命起: 1778년, 규13116, 1방; 1778년, 규13306, 1방; 1783년, 규13311, 1방; 1787년, 규13314, 1방; 1795년, 규13316, 1방.

감에서 활동하였다.⁴⁹⁾

결국 조선후기에 장인들의 처지가 관장에서 사장으로 변모했다는 것은 망건의 소비가 늘었다는 반증이며 이는 곧 양반층의 증가와 상공업의 발달이 결부되어 나타난 사회 현상이었다. 이로 인하여 장인과 상인들이 서로 이익을 독점하려는 다툼이 급증하였다. 예컨대 1781년부터 시전의 상인들은 그 동안 장인들이 각종 총모를 판매한 이익을 독점하고자 평시서의 이속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시안(市案)에 말총제품을 몰래 첨부하여 등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⁵⁰⁾ 총장과 상전의 상인들은 10여년간 관모를 판매하는 이권을 둘러싸고 격렬한 쟁탈전을 벌였고, 1788년에는 상의원의 사모장, 양태장, 망건장 등으로 구성된 총장들은 자신들의 업종물품을 판매한 상인들을 형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총장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여러 총모자 등을 시장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길 요구하였고, 상인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위의 분쟁을 조정하면서 국가는 총장과 상인 어느 한쪽으로 이익이 치우치지 않으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말총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렇게 양자가 함께 매매하도록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의 단일 제작자였던 총장들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1791년 총장들은 상전의 상인들이 상의원의 권위에 대항하여 말총제품을 파는 것을 난전으로 인정하여 그들을 체포하는 데까지

48) 金金 : 1795년, 규13316, 1방 ; 1804년, 규13322, 1방 ; 1805년, 규13325, 1방 ; 1805년, 규13592, 3방.

49) 李德中 : 1802년, 규13122, 2방, 3방 ; 1802년, 규13319, 1방 ; 1804년, 규13322, 1방 ; 1805년, 규13325, 1방 ; 1805년, 규13592, 3방 ; 1816년, 규13068, 3방.

50) 『承政院日記』 1645冊, 正祖 12年(1788) 8月 18日條 ; 장경희, 『중요무형문화재 제67호 당건장』 (화산문화, 2000), 28쪽, 각주 32참조.

이르렀다.⁵¹⁾ 이로 미루어 조선 후기에 이르면 망건은 탕건이나 갓과 함께 수요가 많아서 이익을 다룰 정도가 되었다. 그것은 곧 망건을 비롯한 관모를 쓸 수 있는 양반계층의 숫자가 증가하였음과 동시에 제작장인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처럼 수공업자와 시전 상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난전 중 총장과 관련한 난전 상인들이 수공업자의 상권을 침해하자, 이에 대항하여 수공업자들이 자체의 상권을 옹호하고자 생겨난 난전인 것이다. 즉 상인들 위주로 조직된 상업자들의 동업조합에서 상대적으로 상인들에게 눌러지내던 수공업자들이 자체의 경제적 처지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독자적인 생산활동과 교환활동의 자유를 옹호하려는 투쟁을 벌인 결과인 것이다.⁵²⁾

4. 19세기 이후 망건의 제작과 장인

18세기말부터 망건의 수요가 늘었으며 관자를 만드는 관자장도 모두 사장으로 대체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 장인들은 도감에 동원되기보다 개인적인 작업장을 갖추었으며 장인 집안 전체가 사적으로 생산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추세로 이행되었다.

19세기가 되면 왕실용의 관모를 제작하던 장인들조차 사장을 동원하였으며, 도감에 동원된 관자장은 연인원수가 볼 때 18세기보다 50%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서 사적으로 생산된 망건과 관자가 충분하였음을 반

51) 『承政院日記』 1685冊, 正祖 15年(1791) 1月 8日條 : 『중요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29쪽, 각주33 참조.

52) 홍희유, 『조선상업사』 고대·중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219 ~ 220쪽.

증하였다. 19세기의 도감에 동원된 관자장의 연인원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19세기 도감의 관자장

년도	도감	주 체	제작처	인원	규장각 소장번호	년도	도감	주 체	제작처	인원	규장각 소장번호
1802	가례	순조순원후	2,3방.별	7	규13122	1843	국장	효현후	2,3방	8	규13802
1802	존승	영조정조	1방	13	규13319	1843	산릉	효현후경릉	조성소	2	규13809
1804	존호	영조정순후	1방	8	규13322	1844	가례	헌정효현후	2방	1	규13143
1804	영건	인정전	별단	2	규14334	1846	산릉	문조수릉	조성소	4	규13765
1805	존호	영조정순후	1방	11	규13325	1848	진찬	진찬	상의원	3	규14372
1805	국장	정순후	1,3방	12	규13592	1849	국장	현종	2,3방	3	규13784
1805	산릉	정순후	조성소	2	규13597	1851	존승	순조순원후	별단	1	규13385
1816	상례	헌경채빈	3방	10	규13608	1852	존호	순조순원후	1방	1	규13391
1816	원소	헌경현릉원	조성소	4	규13616	1855	친봉	문조수릉	2방	1	규13769
1819	가례	문조신정후	2방	2	규13130	1855	산릉	문조수릉	조성소	1	규13770
1821	국장	효의후	3방	10	규13647	1856	친봉	순조인릉	조성소	1	규13796
1822	친봉	정조건릉	조성소	3	규13662	1863	친봉	현목수빈	2방	1	규13956
1822	예장	현목채빈	3방	2	규13928	1864	국장	철종	3방	1	규14870
1823	원소	현목채빈	조성소	4	규13936	1868	진찬	신정후	상의원	3	규14376
1834	국장	순조	3방	10	규13668	1882	가례	순종순명후	2방	1	규13174
1835	산릉	순조인릉	조성소	3	규13677	1890	국장	신정후	3방	1	규13736
1836	존승	순조순원후	1방	1	규13376	1895	국장	명성후	3방	1	규13879
1837	가례	헌종효현후	3방	1	규13139	1904	국장	손명후	1방	1	규13900
1837	모사	영정	1방	1	규13980	연 총인원				143명	
1841	상호	순조순원후	1방	2	규13381						

위의 (표 5)에 의하면 1802년부터 1904년까지 102년간 38회 도감이 개설되었으며 연인원은 총 143명이었다. 당시 도감에서 관자장 1~2명을

동원한 경우가 21회인데 비하여, 3~4명은 8회, 5~9명은 3회, 10명 이상도 6회이었다. 이 시기에는 도감을 개설할 때마다 한 회 평균 4명의 관자장을 동원하고 있었다. 이것은 18세기 후반에 56년간 연인원 183명을 동원한데 비해 2배 이상 긴 102년 동안 연인원 143명을 차출하여 연평균 동원숫자는 43%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들어서 도감에 동원되는 관자장의 숫자가 줄었는데, 이것은 장인들을 도감에 불러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 개인 작업장에서 사적으로 생산한 망건을 구매하였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적인 생산이 증가하면서 가문 전체가 관자장이 되어 장인 집안을 형성하는 경향까지 보였다. 호익성(扈益聖)과 호익항(扈益恒)을 비롯한 호씨 집안의 관자장들과 박창운(朴昌運)과 박창복(朴昌福) 등을 비롯한 박씨계 형제를 들 수 있다.

호씨 일가는 1783년부터 1821년까지 38년간 호씨 집안의 6~7명이 집중적으로 도감에 차출되어 관자를 제작하고 있었다. 호씨 집안의 호익성과⁵³⁾ 호익항은 형제지간으로 여겨지며,⁵⁴⁾ 호익항과 호태항(扈泰恒)은 같은 도감에서 활동하되 친척이었던 듯하며,⁵⁵⁾ 호태항과 형제 관계에 있는 장인으로는 호태형(扈太亨)이 있다.⁵⁶⁾ 이들과 한 세대 정도 떨어져 부자간을 형성하는 예로 호문흥(扈文興)은 1802년부터 1816년까지 14년간 동원되었으며,⁵⁷⁾ 호문흥과 형제뻘인 호문운(扈文雲)이 1816년부터

53) 扈益聖 : 1783년, 규13311, 1방.

54) 扈益恒은 1787년부터 1800년까지 13년간 도감에 차출되었다. 1787년, 규13314, 1방 : 1795년, 13316, 1방 : 1800년, 규13634, 3방.

55) 『英祖貞純后七尊號莊祖獻敬后四尊號都監儀軌』, 1795年, 규13316, 1방.56)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 1802年, 규13122, 3방.

1821년까지 활동하였다.⁵⁸⁾

박씨계 집안에서는 1804년부터 1821년까지 17년간 5형제가 동원되고 있었다. 그들 중 박창운이 1804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⁵⁹⁾ 그 뒤를 이어 박창복(朴昌福),⁶⁰⁾ 박창손(朴昌孫),⁶¹⁾ 박창옥(朴昌玉),⁶²⁾ 그리고 박창득(朴昌得) 등이 차출되었다.⁶³⁾ 이후 도감에는 사장을 필요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동원하는 추세여서 한 명의 장인이 반복적으로 차출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도감 내 사장의 숫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망건은 상술한 바와 같이 관자로써 신분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각종 장식을 달아 부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앞이마 위에 닿는 부분에 풍잠(風簷)을 달아서 장식하였는데, 풍잠은 갓을 고정시키는 역할까지 하였다.⁶⁴⁾ 1840년대 한양의 풍경을 노래한 〈한양가〉에 따르면 양반들이 상투를 튼 다음 꽃는 동곳도 밀화동곳과 대자동곳을 섞어 꽃을 정도였으며, 여기에 평양에서 제작한 망건과 대모관자를 달아 치레를 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片月상투 蜜花동곳 大字동곳 섞어 꽃고,
곱게 뜬 平壤 網巾 외점박이 玳瑁貫子
尙衣院 紫芝 八絲 草笠 밑에 八卦 놓고,

57) 扈文興 : 1802년부터 1802년, 규13319, 1방 ; 1805년, 규13325, 1방 ; 1816년, 규13068, 3방.

58) 扈文雲 : 1816년, 규13068, 3방 ; 1821년, 규13647, 3방 ; 1821년, 규13647, 3방.

59) 朴昌運 : 1804년, 규13322, 1방 ; 1805년, 규13325, 1방 ; 1805년, 규13592, 3방.

60) 朴昌福 : 1816년, 규13608, 2방 ; 1821년, 규13647, 3방.

61) 朴昌孫 : 1816년, 규13608, 3방 ; 1816년, 규13616, 조성소. 62) 朴昌玉 : 1819년, 규13130, 2방 ; 1821년, 규13647, 3방 ; 1821년, 규13647, 3방.

63) 朴昌得 : 1821년, 규13647, 3방.

64) 沈載完 · 李殷昌, 『韓國의 冠帽』 (영남대학교 신라기야문화연구소, 1972), 60~61쪽.

藍絨絲 중두리에 烏銅笠飾 꺼서 달고,
손뺨 같은 繡紗 갓끈 귀를 가려 숙여 쓰고...⁶⁵⁾

이처럼 조선 후기 상류층에는 망건을 장식할 관자를 대모와 호박, 마노 등을 이용하고 일반 서민층에서는 골각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망건과 그것을 장식할 관자의 수요가 급증하자, 상품으로 제작하는 장인이 사장으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선후기 사회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조선후기에 상품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봉건적인 신분관계가 해이해져 감에 따라 관모에 대한 신분적인 제한도 약화되어 사대부를 비롯하여 양인, 상인이나 지주 등 서민층까지 다양한 관모를 착용하게 되었다.⁶⁶⁾ 이렇게 망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국 326개 장시에서는 망건이 상품으로 판매되었으며,⁶⁷⁾ 말총으로 망건을 제작하는 말총수공업도 발전하게 되었다. 평안도의 정주와 선천 등지는 말총가공업의 중심지였으며,⁶⁸⁾ 이곳을 중심으로 점촌(店村)이 형성되어 시장에 출시되었다.⁶⁹⁾ 평안도의 정주와 태천, 함경도의 정평, 전라도의 제주도, 경상도의 가덕도 등지는 조선시대 말총공예로 이름이 높던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는 수십 명의 총장(鬚匠) 집단들이 무리를 지어서 말총을 구입하였고 말총 관모를 만들어 파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65) 漢山居士, 『漢陽歌』, 1840年, 古3320, 규장각 소장.

66) 柳得恭(1749~?), 『京都雜誌』 卷1, 『風俗』, 巾服條; 『朝鮮雜時記』, 李錫告 옮김 (동문선, 1991), 179~232쪽에 재인용.

67) 徐有渠, 『林園十六志』 倪圭志; 『조선상업사』, 351쪽.

68) 『林園十六志』 瞻用志, 輿地圖書條; 安鼎福, 『星湖僊說類選』 卷1, 下, 生財條.

69) 『조선상업사』, 352쪽.



김준근, <망건장이>, 19세기말, 독일 함부르크 박물관 소장

19세기 말 망건장은 서울, 부산, 원산, 제물포 등지에서 활동하였던 화가 김준근이 그린 풍속화에 의해 그들의 작업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중 독일 함부르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망건장이>라는 그림에는 망건을 비롯한 말총공예품을 집단으로 제작하는 일청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⁷⁰⁾ 일청에는 5명의 남녀장인들이 모여서 각기 망건과 방건 및 탕건 등을 제작하고 있었다. 망건은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세 명의 남녀 망건장이 충사발을 좌우에 놓아두고 삼발이형 골걸이에 망건골을 올려놓고 말총바늘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망건을 제작하는 모습이다.

한편 프랑스의 기메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는 <망근 뜨는 모양>이라는 그림에서도 성인남자 2인이 망건을 제작하는 모습이 실감나게 묘사

70) 趙興胤·게르노트프루너, 『箕山風俗圖誌』(범양사, 1984), 102~103쪽, 도판24(망건장이). 이 책은 현재 독일 함부르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김준근, <망근 뜨는 모양>, 19세기 말,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되어 있다. 그들 역시 오른쪽에는 말총이 담긴 총사발을 놓고 양 무릎 앞에 삼발이형 골걸이를 두고 망건골을 올려놓은 다음 총바늘에 말총가닥을 끼워서 줄머리를 놓거나, 앞뒤를 찢 다음 설주를 엮으면서 망건을 짜는 모습을 하고 있다.⁷¹⁾

이처럼 위 두 그림에 의하면 남녀 망건장들은 일침에서 집단적으로 제작하였으며, 그들이 사용한 제작도구는 말총사리가 담긴 총사발과 골걸이 위에 망건골로서 비교적 간단하였다. 결국 19세기말 풍속화가 김준근이 묘사한 풍속화로 미루어 볼 때 망건골은 현재와 비슷하게 몸골과 당골로 나뉘고 있다. 즉 편자를 걸고 줄머리를 놓고 있는 골은 몸골이고, 망건의 앞뒤와 설주를 다 짜고 당 걸기를 하고 있는 골은 당골이었다.

71) 국립문화재연구소,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108쪽, 도3 ~다 ~6.

조선시대부터 근대기에도 현대의 망건장과 흡사한 제작도구를 사용하였는데, 그들이 사용한 망건골은 견고한 박달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었다.⁷²⁾ 당 걸기가 끝나서 완성된 망건은 끓는 물에 넣고 삶아야 하므로 당골은 당시에도 견고한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한편 19세기의 망건장이 사용한 도구 중에서 골을 올려 놓는 골걸이는 현대와 특히 달랐다. 골걸이는 다리가 셋이고 망건골을 올려놓는 인쪽이 비어 있는 삼발이형으로서, 탕건골의 받침과 일치하였다.

망건은 단발령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성인 남자들의 외출 때 의관을 정장할 경우 반드시 사용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성황을 이루었던 수공업 분야이었다.

그 결과 망건장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많아져, 지방마다 품질에 차등을 보였다. 통영 망건은 섬세하고 질이 좋았으며 김제, 논산, 황등의 망건도 매우 우수한 수준에 있었다.

고종 32년(1895) 단발령은 일본의 강요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위생적이고 생활에서 편리하다는 데에 있었다. 그리하여 단발령을 내리기 직전에 고종과 순종이 우선 시범을 보여서 먼저 상투를 잘랐지만, 당시 양반계층을 비롯한 백성들의 반발을 받아서 시행 초기에는 그다지 잘 시행되지 못하였다.

1897년에 대동관을 중심으로 평양네거리와 서문안과 서문밖의 강변 좌우에는 45개 종류의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일용백화를 광범위하게 판매하는데, 망건을 비롯한 각종 관모를 파는 관전(冠廛)이 따로

72) 『六典條例, 工典 繕工監 木物各種』 “大朴達小朴達 尙方網巾骨” 고종 2년(1865)에 편찬한 『大典會通』에는 典章이나 法度 등에서 빠진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듬해에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있어서 상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⁷³⁾ 이처럼 관모의 소비가 활발하였기 때문에 망건장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어느 곳에서든 만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일제 시대가 되면서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짧게 이발한 사람들이 점차 늘었지만, 머리를 길게 기르고 상투를 튼 사람도 여전히 많았다. 때문에 제주도 지역은 일제시대에도 여전히 망건을 제작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 1921년(大正10)의 통계에 의하면 이입액수가 30만엔에 달하였고, 1924년에는 15만엔이었다.⁷⁴⁾ 1927년에 조선 각지에서 출토되는 특산품을 조사할 때 제주도 각 호에서 제작하는 것이나 망건 등의 연간 생산량과 수입을 조사한 것을 다음과 같이 (표 6)으로 만들어 보았다.⁷⁵⁾

(표6) 1927년 제주도내 관모공예품 생산

종류	종사호수	1년간 생산량		비 고
		수량	생산액	
입자	330	163,500	163,500	주로 본토로 판매됨
양태	13,700	1,350,000	405,000	상동
탕건	128	9,300	15,810	상동
망건	812	59,000	59,000	상동

위 (표 6)에서 볼 때 제주도에서는 양태장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망건장의 순서였으며,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즉 양태의 제작자는 13,700여

73) 『평양속지』 上 시전조.

74) 『韓國地理風俗誌叢書』 100 濟州島·漢拏山の自然と風物, 「未開の寶庫 ~ 濟州島」 (전라남도 제주도청, 大正13년 (1924) 86쪽).

75)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19輯 『朝鮮の土産産』 (조선총독부, 1927), 209쪽, 第5章 併合以後의 각도 특산품 분포표.

호에서 연간 135만개를 생산하였고, 탕건의 제작자가 가장 적은 128명호에서 9,300개가 생산되었다. 이를 토대로 1호 당의 연간 생산량을 계산하면 평균 갓은 연간 495개, 양태는 99개, 망건과 탕건은 각각 73개를 제작하고 있었다. 생산 가격 면에서 갓과 망건 1개가 100원이었다면, 양태 1개는 그 1/3 가격인 33원이었고 탕건이 가장 값비싼 170원에 해당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갓과 망건은 거의 같은 값을 받고 있었다. 한편 1929년에 망건을 제작하는 장인들은 64만엔 정도였다.⁷⁶⁾

이러한 제작자의 숫자는 연간 제작수량이나 생산액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이러한 제주도 관모를 당시에 생산된 감귤과 비교해보면 당시의 제작현황이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1939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조천면 내에서 관모공예품의 총 생산액은 약 12,000원이었고, 감귤은 11,352원으로서 거의 비슷했다.⁷⁷⁾ 이미 1894년 단발령 이후 30여년이 지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망건과 갓과 탕건의 수요가 많아서 망건을 제작하는 장인의 숫자 또한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수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양반들의 주문이 많았으며, 말총관모의 생산이 단절된 북방지역 및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간도나 시베리아에 이주하였던 사람들의 주문이 쇠도하였던 때문인 것 같다. 더욱이 현대에 이르면 상투가 없더라도 모양새를 위해 갓이나 탕건은 착용할지언정 망건은 그 착용례가 적어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자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

76) 조사자료 29집 『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島』, (朝鮮總督府, 1929), 80쪽; 金榮敦, 「제주도의 민간공예」,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 34호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1967), 229쪽. 昭和44년의 같은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소화4년이 1929년임에도 불구하고 1925년의 통계라고 잘못 기술하고 있었다.

77) 『濟州島勢一覽』(朝鮮總督府, 昭和14年)

2 망건의 재료와 제작도구

망건은 말총과 바늘로 엮어 만든 머리를 간추리는 싸개의 일종이다. 망건의 재료는 본래 비단이었으나 조선인들은 값비싼 수입 비단을 대체하고자 국산이면서 질기고 광택이 아름다운 말총을 선택하게 되었다. 말총으로 망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총바늘을 비롯하여 일상 삶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자잘하고 소소한 소도구들을 적절하게 응용하고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조선 선비들의 머리를 항상 반듯하게 간추려준 망건을 만드는 재료와 이들 재료의 특성을 잘 되살려준 망건장의 제작 도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작도구의 경우 제주도와 육지의 망건장이 실제 망건을 제작하는 단계에 의거하여 편자 찌는 도구, 바닥 뜨는 도구, 당 걸고 삶는 도구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도와 육지의 망건장의 제작도구는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양자간의 다른점은 상술하도록 한다.

1. 망건의 재료

망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재료는 말총이다. 그러나 실제 망건을 완성하여 쓰고 다니기 위해서 망건의 당(살춤)에는 무명실의 당줄이 꿰어 있으며, 편단과 설다리 부분은 검은 공단으로 감쌌다. 한편 편단의 양쪽에는 신분과 계층에 따라 옥을 비롯한 각종 보석으로 관자를 달았으며, 간혹 망건의 중앙에도 여러 보석으로 품장 등을 부착하여 장식하였으므로 이런 장신구도 알아보기로 한다.

1) 말총

망건은 본래 중국에서는 사(紗)와 같은 투명한 비단에 짠 옷칠을 해서 만들었으나, 우리나라에서 비단은 수입품이기 때문에 값이 비싸서 사용하기 어려웠



다. 더욱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삼베는 질감이 거칠고 파손되기 쉬웠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대체할 재료로서 말총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말총은 말목장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쉽고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국산 재료였기 때문이다.

재료적인 면에서 말총의 특성은 질기고 표면이 매끄러워 위생적이다.

아울러 말총은 광택이 있어서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말총은 그 성분이 사람의 머리카락에 흡사하고 검은 색상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선비를 비롯한 성인 남자들이 머리를 간추리는 용도의 망건으로는 최상의 재료였던 것이다. 우리 나라는 중국 명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망건을 만들었지만 말총으로 망건을 만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만력 연간의 중국에 영향을 주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망건을 말총으로 제작하게 된 것은 고려 후반 원나라의 지배 이후 말 목축이 성행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 나라 말총수공업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제주도는 원의 지배를 받았던 고려 후반에 말 목축업의 중심지로 발전해서, 비록 조선 후기에는 목축업이 쇠퇴하였지만 여전히 국내 목축업의 기본거점으로서 국가에서 경영하는 목장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의 주민들은 이들 목장으로부터 풍부한 말갈기털과 말꼬리털을 얻거나 구입하여 그 말총을 원료로 해서 당건을 비롯한 말총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내에 가장 큰 말목장이 있어 말총생산이 많았던 제주도는 이미 17세기에 말총수공업의 특산지로 발전하였고, 18~19세기에는 내륙의 전라도 김제까지 보급되었다. 말총수공업은 제주도와 인접한 곳으로서 경상남도의 남해안 고성과 통영지방에서도 발전하였다.⁷⁸⁾ 또 삼남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였던 안성에서도 말총수공업이 발달하게

78) 統制營 12공방에 관해서는 김일룡, 「통제영 공방의 역사 ~19세기 統制營 12工房을 중심으로 ~」, 『전통공예의 산실 통영공방의 재조명 학술발표회』 (문화재청·경상남도, 1999), 1~20쪽 ; _____, 「統制營과 12工房考」, 『제32회 閑山大地記念祭典 第2회 학술발표회』, 1996 ; _____, 「朝鮮後期 統營의 産業活動」, 『統營市誌』 상권, 1999.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주도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던 반제품인 “제량”을 구입하여 완제품의 갓을 생산하면서부터이다.

말총수공업이 발전한 또 다른 지역으로는 서북지방의 평안도 정주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선천 등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정주지방 일대에서는 탕건과 망건을 주로 생산하였는데, 마산면의 일부 동리는 거의 전체 주민들이 말총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주와 선천 등지의 지역들이 지리적으로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청나라와의 대외무역 통상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목축업이 발전하였던 요동지방과 무역을 통하여 말총수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도 잘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남부지방에서는 제주도, 통영, 김제, 안성 등지에서 말총 수공업이 발전하였다면, 서북지방에서는 정주와 선천 등지에서 말총수공업이 발전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도에서 관모공예가 성행한 것은 탕건이나 망건 등의 재료가 되는 말총을 구할 수 있는 말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제주도에서 말을 대량으로 사육하여 우리 나라 말총의 최대 공급지였다. 제주도에서 망건을 비롯한 말총수공업이 성행하였던 이유 또한 옛부터 좋은 말총이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망건의 재료는 바로 제주도 조랑말총을 사용한 말총수공업품인 것이다. 속담에도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말새끼는 제주도로 보내라”는 것과 같이 제주도에선 그만큼 말을 많이 키워 말총의 생산량이 많았다.

제주도에서는 고려 때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방목을 시작하여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베리봉, 시에봉, 사라봉 등지의 대규모 목장에서 말을 키우고 있다. 말총수공업에 사용되는 말총은 “말테우리”들이 채취한다. 말총을 채취하는 과정은 현역 말테우리 고태오(高泰五)

씨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다.⁷⁹⁾ 말의 꼬리털이 50cm 길이가 되려면 2년 정도 자라야 한다. 말총을 베는 시기는 음력 3~4월이 좋으며 낮을 이용하여 말의 꼬리를 잡고 베다. 말총 1관(600g)을 베려면 말 세 필의 꼬리털을 잘라야 된다. 말꼬리털은 말이 여름에 파리를 쫓을 수 있을 만큼 긴 꼬리부분의 털만 빼고는 몽땅 베다.

이렇게 베어낸 말총은 말의 종류와 영양상태에 따라 색상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다. 그러나 이렇게 한라산 등지에 놓아먹인 말총은 산의 가시덤불이나 나뭇가지 등에 걸리어 상처가 많고 얼(제주도 사투리) 먹은 데가 많아서 잘 끊어지기 때문에 망건의 재료로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한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조랑말의 말총은 색상이나 굵기, 윤기 등이 각양각색이었다.

말총을 판매하는 총장수가 예전에는 여러 명이어서 말총을 팔러 다녔는데, 요즘에는 전혀 없었다. 게다가 간혹 제주도의 말목장에서 베어 가져다 주는 말총은 대부분 노란색이 많고 길이가 짧아서 망건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 어려워 주로 수입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근래에 캐나다나 미국, 호주 등지에서 수입해온 말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수입 말총은 윤기가 없고 울이 너무 굵으며 이미 독한 약품으로 염색 처리가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할 때 잘 끊어진다고 한다.

이수여 보유자의 경우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마미'라 부르는 일본제 왜총(倭鬃)을 사용하였으며, 10여년 전에 임덕수(1903~1985) 보유자의 제자 중 한명인 김현순 씨가 이태리에서 수입한 말총을 보내준

79) 60여 년간 말테우리로 활동하고 있는 高泰五(1929. 2. 27년생)는 제주도 구좌읍 하도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0년 기록화사업 중 <탕건장> 기록영화를 찍기 위해 2000. 7. 19일에 인터뷰를 하였다.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임덕수 보유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양진숙 조교는 얼마전 T.V에 나가 망건을 짤 때 사용하는 말총이 없어서 작업에 지장이 많다고 하였다니 바이올린 제작회사에서 바이올린 현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이태리 말총을 무상으로 보내주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수릿대

제주 망건의 편자를 짤 때 사용하는 편자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대나무이다. 두께는 1cm이고 길이는 19.5cm의 것을 마련한다. 한 마디가 3cm 위치에 있는 대나무를 선택하며 마디를 중심으로 2/3은 대칼로 가르고, 나머지 1/3은 붙여 놓은 채 편자들로 사용한다.

3) 무명실

망건을 제작하는 동안 무명실은 여러 차례 사용한다. 제주 망건의 경우 편자들에 해당되는 잉아대를 만들 때 날줄로 삼을 말총 위에 무명실을 일일이 걸어서 만든 다음, 편자짜기를 마치면 날줄에서 풀어서 다음에 다시 활용한다. 무명실로는 몸골에서 망건의 바닥뜨기가 끝나서 당골로 옮긴 망건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킬 때 편자부분에 거는 이매걸이를 묶을 때도 이용된다. 또 당 걸기가 끝나고 삶기 위해 당 부분이 볼록 튀어 나오도록 고정시킬 당심테의 위아래를 묶을 때



에도 무명실이 사용된다.



한편 검은 색으로 염색한 무명실은 망건을 삶고 최종적인 마무리를 할 때 설다리 중 하나는 검은 명주천으로 감싼 다음, 관자까지 달아서 마무리한 다음 당에 끼워서 돌돌만 다음 감아둘 때에도 사용한다.

당줄은 8.5cm 정도 되는 대비늘에 길이 115cm의 검은색 무명실을 곁고 네 겹으로 돌돌 말아서 만든다. 꼬임이 있는 당줄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 두 겹의 무명실을 길게 잘라서 바늘귀에 꿰고 그 중앙을 접어 4가닥의 실로 만든다. 다음으로 오른손으로는 바늘을 쥐고 두 가닥은 입에 물고 두 가닥은 왼손에 쥔 다음, 오른손의 바늘을 돌돌 말아서 꼬이면 꼬임이 있는 4가닥의 당줄실이 된다.

이렇게 만든 당줄은 바늘에 꽂혀 있는 상태로 사용하며, 당의 구멍에 당줄실을 다 꿰면 다음 바늘을 잘라내면 당에 당줄을 걸어 완성한 것이다.

4) 명주천

망건을 마무리하면서 설다리와 편단 부분은 검은색 명주천으로 감싼다. 당을 곁 때 두 코 정도를 코일링을 하여 당과 분리되는 설다리 부분은 너비 2.5cm



에 길이는 17cm의 명주천을 준비하여 감싼다. 편자를 짠 편단을 감싸기 위해서는 너비 6.2cm에 길이 16.5cm의 명주천을 준비해 둔다.



왼쪽) 각종 풍잠과 관자
오른쪽) 관자(조개패)

5) 관자

망건에 달아서 신분과 계층을 상징하면서 장식을 하던 것이다. 원래 옥이나 금은동석 등을 사용하는데, 요즘 제주 망건에 사용되는 관자는 조개패를 갈아서 만든 관자를 주로 사용한다. 보유자가 사용하는 관자의 크기는 바깥 지름이 1.7cm이고 속지름은 0.5cm이다.

한편 육지 망건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관자 뿐 아니라 풍잠 등도 달아서 망건을 꾸미고 있었다.

2. 편자 짜기 도구

편자는 망건의 시작 부분에 해당되며 가장 아래쪽의 띠처럼 생긴 곳이다. 편자를 짜는 이치는 베틀에서 베를 짜는 것과 유사하며, 폭이 좁고 여러 가닥의 씨줄을 좌우로 교차시키면서 제작하는 방법은 요대(腰帶)짜기와 같은 띠 작업에 가깝다.

망건장이 편자를 짜는 작업에서 육지의 망건장과 제주 망건장이 짠 편자는 조밀하기와 성글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육지 망건장과 제주 망건장이 편자를 짜기 위해 만드는 편자들은 베틀의 기본 구조와 비교할 때 대체로 유사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편자들에 부착되는 도구와 형태에 있어서는 양자가 차이를 보인다. 육지 망건장의 편자들은 베틀의 축소형 내지 간이형으로서 베틀이 지녀야 할 기본 구조는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 망건장의 편자들은 육지 편자들을 간소하게 만든 간이형의 면모를 보였으며, 편자들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여러 재료에서는 제주 여인들의 생활 속 지혜가 발견된다. 따라서 육지 편자들과 제주 편자들의 양자간에 공통되는 요소를 먼저 설명한 다음 양자간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좀더 상세하게 서술하기로 하겠다.

1) 육지의 편자들

육지의 망건장은 나무로 된 빙어리와 면사로 만든 날줄감과 말총으로 엮은 잉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편자들에 66올의 날줄을 상하로 가르면서 묶은 후 잉아와 빙어리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편자짜기를 한다. 즉 육지의 편자들은 기본적으로 빙어리와 날줄감과 잉아가 미리 마련되



육지 편자들

어 있는 구조이다.

육지의 편자들은 끝 부분에 두꺼운 무명 실고리가 묶여 있어서 말뚝이나 왼발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무명실은 날줄에 해당되는 66올이 1:1로 교차되면서 그 X형으로 벌어지는 사이에는 베틀의 바디에 해당되는 “빙어리”가 있다. 빙어리는 가로 5.0cm, 길이 2.0cm, 높이 1.7cm의 직육면체에 가까운 형태이다. 가로부분으로는 66올의 무명실로 된 날줄감이 1:1로 올려지며 길이의 중간 부분으로는 지름 1.0cm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구멍 사이로는 말총 한 가닥을 통과시키면서 무명실 날줄감 66올을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 무명실로 빙어리를 덮으며 만든 66올의 날줄감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편자 짜기를 할 때 말총 66올을 한올한올 거는 것이다.

2) 제주의 편자들

제주의 편자들도 기본 구조는 베틀과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육지의 망건장이 사용하는 편자들이 베틀의 간이형인데 비하여, 제주의 망건장이 사용하는 편자들은 조립완성형으로서, 편자들의 여러 부속 재료와 도구들이 분해되어 있는 것을 편자 짜기를 할 때마다 새로 조립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제주의 망건장은 미리 준비해 둘 부속품은 1cm x 19cm 정도되는 수릿대, 검은 고무줄 2개, 길이 27cm에 폭이 2cm로 박음질을 하여 수릿대에 거는 양쪽의 고리는 각각 3cm로 만든 무명 발걸이, 길이 75~80cm 정도되는 날줄용 말총 20가닥씩 2개, 4~5cm 정도 길이의 잉여대와 무명실 등을 미리 마련해 놓고 편자 짜기를 시작하면서 편자들을 조립하여 만든다. 우선 2/3쯤 꼬인 수릿대에 무명 발걸이를 걸고 검은 고무줄 한 개로 수릿대의 한쪽을 묶은 다음, 날줄용 말총 20가닥 중 하나의 끝 부분에 창호지를 약간 말아서 묶은 다음 수릿대의 윗쪽으로 끼운다. 다시 말총 20가닥의 다른 하나도 창호지로 말아서 묶은 다음 수릿대의 아랫쪽으로 끼운다. 이처럼 발걸이의 나머지를 끼운 후 고무줄 한 개로 묶는다.

이제, 잉아를 걸기 위해 이쑤시개 정도로 얇은 2개의 잉아바늘에 묶여 있는 무명실을 풀어서 40가닥의 말총을 아래쪽 한 개를 들어서 잉아를 걸고, 다시 위쪽 말총과 1:1로 교차시킨 다음 아래쪽의 두 번째 말총가닥을 들어서 잉아를 건다.

수릿대의 길이는 19.5cm이고, 발걸이용 무명끈은 27cm이다. 잉아대는 4.5cm 길이에 이쑤시개 정도의 가는 굵기의 대나무 2개에 무명실 40



제주 편지틀

을을 걸어서 만드는 것이다. 잉아바늘에 40을의 무명실 잉아를 다 건 다음 무명 발걸이를 왼발에 걸고 쪽 편 다음, 말총 40가닥을 가지런히 길게 늘이고 가슴끈을 가슴팍 위에 묶은 위에 40가닥의 끝을 묶는다.

3) 편자칼



편자를 짤 때 북이나 바디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씨 줄로 사용하는 말총을 걸어서 1:1로 넣을 때 북처럼 걸어서 넣거나, 씨 줄을 넣고 잉아를 들어서 씨 줄이 일렬로 나란해지도록 칠 때 간이 바디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육지의

망건장이 사용하는 편자칼은 길이 8.4cm에 높이 1.0cm로 비교적 폭이 좁고 날렵하며, 전체적인 형태는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사다리꼴이며 그 안쪽이 약간 움푹해서 말총이 걸리도록 만든 것이다.

이수여 보유자는 폭이 굵고 좁은 두 개의 편자칼을 사용한다. 넓은 폭의 편자칼은 넓이 3.3cm이고, 좁은 폭은 넓이 1.8cm이며 길이는 20.3cm이다. 편자들에 날줄을 걸고 허리춤에 맨 다음 편자를 짜기 시작할 때에는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하며, 거의 넓은 것을 사용하다가, 거의 마무리 부분에 이르러 잉아를 \wedge 형태로 들었을 때 벌어지는 폭이 좁아지면 좁은 폭의 편자칼을 사용하여 마지막까지 짠다.

3. 바닥 뜨기 도구

바닥은 앞과 뒤, 그리고 설주 짜기에 해당된다. 완성된 편자는 몸골에 걸고 첩대기 위에 올려 놓고 연발을 넣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 다음, 총바늘에 말총을 끼우고 총사발에서 물을 축이면서 망건의 형태로 앞 부분은 성글게, 뒷 부분은 조밀하게, 설주부분에서는 매듭을 지으면서 짜는 것이다.

1) 몸골

완성된 편자는 편자들에서 분리한 뒤 몸골에 단단히 동여매서 바닥 뜨기를 하게 되는데, 몸골은 박달나무 처럼 단단한 나무가 좋다. 몸골의 하단부에 대못이나 쇠못이 튀어 나와 있어서 설주머리를 단단히 동여매게 되어 있다.

육지 망건장과 제주 망건장의 몸골은 거의 비슷한 형태이다. 이수여 보유자가 망건을 짜기 위하여 사용하는 몸골은 바닥면의 지름이 20cm에 들레 62.5cm이고 두께는 4cm이다. 몸골의 윗면은 아랫면보다 좁아져 지름은 17.5cm이고 두께는 3cm였다.



제주몸골



육지몸골

2) 골걸이 (첻대기, 체뜨기)

골걸이는 망건을 짜기 위해 몸골이나 당골을 올려놓는 일종의 받침대이다. 조선시대의 망건장은 김준근이 그린 <망건장이>에 의해 살펴보면, 4명의 장인은 망건청에 빙 둘러 앉아서 망건과 탕건 등을 제작하고 있다.⁸⁰⁾ 특히 화면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녀 장인은 삼발이형 골걸이 위에 여인은 몸골을 올려 놓고 바닥 뜨기를 하고 있고, 남자는 당골을 올려 놓고 당 걸기를 하고 있다. 이들이 완성시킨 망건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펼쳐져 있는데, 오늘날과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망건장이 사용한 도구는 총사발을 앞에 두고, 삼발이형 골걸이 위에 몸골과 당골을 올린 후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골걸이의 형태를 개량하였는데, 육지의 골걸이와 제주의 골걸이는 둘다 첻바퀴를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높이와 형태면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다.

육지의 골걸이는 첻바퀴 한 개를 사용하여 만들고, 그 중간은 +자형으로 구분해 두고 있다. 이렇게 십자로 구분한 까닭은 망건장이 작업을 할 때 망건장의 앞쪽에는 몸골이나 당골을 올려 놓고, 먼 쪽에는 말총을 물에 담가둔 총사발을 두어서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의 망건장이 사용하는 골걸이는 첻바퀴 두서너개를 잇대어 중간을 꿰매어 사용한다. 첻바퀴를 합친 전체의 높이는 30.5cm이고 지름은 24cm이다. 첻바퀴와 첻바퀴를 연결하는 중간 부분의 안쪽에는 무명실로 얼기설기 엮어 두었는데, 이것은 망건을 짤 때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80) 『유럽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한국국제교류재단, 1989), 262쪽, 그림 9. 공예 ~ <망건장이>



김준근, <망건장이>, 19세기말, 독일 함부르크 박물관 소장



왼쪽) 육지 끌걸이
오른쪽) 제주첻대기



도구를 넣어 두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수납구인 것이다. 현재 제주의 탕건장이 사용하는 칫대기와 형태나 구실이 마찬가지로이다.

제주의 망건장은 몸골이나 당골이 움직이지 않도록 칫대기 안쪽에 마흐레 등을 넣는다. 마흐레는 모직펠트로 만든 중절모자 중에서 오래되어 못쓰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쓰다 못쓰게 된 칫바퀴나 중절모자를 재생하여 망건골을 받치는 골걸이 대용으로 재활용하는 등 제주 망건장이 사용하는 자갈한 도구에는 제주 여인들의 살뜰함이나 삶의 재치가 엿보인다.

3) 연발

연발은 원래 얇은 화각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플라스틱제를 재활용한다. 이는 탕건장과 마찬가지로이다. 보유자가 사용하는 연발의 크기는 너비 2.2 정도이고 길이는 14 ~15cm에 해당되었다.



4) 골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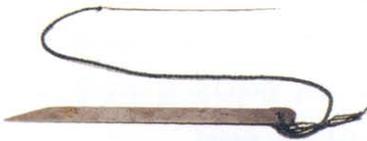
길이 2.5cm에 너비 1.8cm의 쇠가죽에 왼손 검지에 낄 수 있도록 실을 걸어서 만든다. 말총을 바늘에 끼워서 망건을 엮어갈 때 사용한다.

5) 총사발

말총은 건조하면 툭툭 끊어진다. 따라서 말총으로 망건을 걸어갈 때 말총의 신축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말총에 물을 묻혀서 항상 축축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말총사리에서 망건을 뽑을 때에는 입에 물어서 침을 묻혀 두어야 하며, 망건을 걸어갈 말총은 항상 물이 담겨 있는 총사발에 담가 두어야 한다.



6) 총바늘과 총칼



길이 12 ~ 20cm, 너비 1 ~ 3cm 정도로 납작하며 무쇠로 만든 작은 칼이다. 끝은 뾰족하고 납작하며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망건의 앞뒤를 절어 나가면서 설주 부분에서 매듭을 만들 때 묶어 두었던 여분의 말총을 끊을 때 사용한다.⁸¹⁾

81) 김종태, 『한국수공예미술』 (도서출판 예경, 1990), 442~445쪽.

4. 당 걸기 도구

몸골에서 망건의 바닥을 다 뜯 다음에는, 망건 위쪽에 당을 걸 수 있도록 당골을 비롯한 각종 도구를 바꾸어 사용한다. 망건의 바닥이 편편하기 때문에 몸골은 전체적으로 편평한 데 비하여, 당은 약간 볼록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당골의 형태도 이와 비슷하다. 여기에 당코를 걸 당태를 돌린다.

1) 당골



육지 당골



제주 당골

육지와 제주도의 망건장이 사용하는 당골의 모습은 양자가 비슷하다. 당골은 몸골처럼 아랫쪽이 위쪽보다 넓은데, 몸골과 다른 점은 골의 윗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다. 육지의 망건장은 당골의 튀어나온 부분의 위쪽에 대못과 대태를 둘러서 당을 걸고, 제주의 망건장은 당골의 튀어나온 옆 부분에 쇠못과 쇠태를 둘러서 당을 걸었다.

당 걸기가 끝나면 육지의 망건장은 당골의 튀어나온 중앙에 쇠못을 박고 질긴 당고정줄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빙 둘러다가 당골 아래 중앙의 못에 감아서 전체적으로 당이 볼록해지게 만들어준다. 제주의 망건장 또한 당 걸기가 끝나면 두 줄이 매달린 당고정줄 중에

서 한 줄로는 당테의 위쪽을 빙둘러 한 바퀴 감은 다음, 다음 두 번째 줄로 당테의 아래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빙둘러 여러번 감아서 당이 볼록 튀어나오도록 한다.

당골의 목재는 몸골과 마찬가지로 박달나무가 좋으며 물에 넣고 삶기 때문에 물기가 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당골은 당을 엮는데 사용되며, 현재 이수여 보유자의 당골은 아랫면의 지름이 21.2cm이고 전체 둘레는 67cm이고 두께는 4.0cm이다. 윗면의 지름은 22cm이고 그 둘레는 51cm이며 두께는 3cm이다.

2) 이마걸이(이매걸이)

무명천과 무명노끈으로 만든다. 몸골에서 바닥짜기가 끝난 망건을 당골로 옮기면 몸골과 당골의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몸골에 있을 때와 달리 움직이게 된다. 당골에서 당을 걸 때 망건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당골 아래쪽에 묶은 편자 부분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용도로 이마걸이가 사용된다.



육지 이마걸이



제주 이매걸이

육지의 이매걸이는 무명천과 무명노끈이 각각 분리된 채, 당골에 맨 편자를 무명천으로 감싼 다음 그 위를 무명노끈으로 칭칭 동여매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제주의 이매걸이는 무명천 끝에 무명노끈을 한데 묶여 있는 일체형으로서 육지의 것보다 당골의 편자를 감싸기에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이매걸이의 무명천 한끝은 1.5cm 정도 작은 고리가 있어 당골 아래쪽 중앙의 못에 걸고 무명천을 한바퀴 돌린 다음, 이매걸이 무명천의 다른 한쪽에는 90cm 이상의 긴 끈이 달려 있어서 이것을 여러 바퀴 돌려서 편자를 고정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수여 보유자가 사용하는 이매걸이는 너비 1.8cm에 길이 93cm의 무명천으로 만들며 이매걸이의 끝에는 1.5cm의 실고리를 만들어 당골 밑면의 중앙에 튀어나와 있는 못에 걸도록 되어 있다. 무명천으로 편자 부분을 한번 두른 다음 185cm의 무명 노끈을 칭칭 동여맨다.

3) 대못과 당테(당심대)

당골 위에서 당을 걸기 위해 당테를 두르는데, 육지와 제주에서 사용



육지 대못



제주 쇠못과 대받흙

하는 도구와 제작 방법이 각각 다르다. 육지의 망건장은 몸골에서 옹긴 망건을 당골 위에 옹긴 다음 당을 걸기 위해서는 당골 맨 위쪽의 편편한 면에 10여개 이상의 1cm 이하의 작은 대못을 박고 얇고 가는 대나무로 만든 당테를 당골 위에 둘렀다. 이렇게 두르는 대나무테를 당심대라고 한다.

그러나 제주의 망건장은 당골의 옆쪽 튀어나온 부분에 4개의 쇠못을 사방에 박은 다음 쇠로 만든 당테를 둘렀다.

4) 당고정줄

당고정줄은 제주의 망건장이 당을 다 건 다음 삶기 전에, 당의 형태를 바로 잡고자 당골과 당테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 묶는 줄이다. 당고정줄은 굵은 무명실이며 쇠못의 상하에 각각 두 줄이 묶여 있다. 당 걸기가 끝난 다음 당테의 중앙에 고정못을 박은 다음, 이중 비교적 길이가 짧은 위고정줄로 당테 바로 아래쪽을 한번 힘껏 묶는다. 다음으로 아래 고정줄로 당골과 당테 사이의 움푹 패인 부분에 너댓 차례 동여맨 다음



육지 당고정줄



제주 당고정줄

망건을 2시간여 동안 삶아낸다.

삶다가 김이 펄펄 날 때 꺼내어 아래고정줄만 풀러서 재차 힘껏 동여 매면 당줄의 형태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게 된다.



5) 당골뎃개

당골뎃개는 육지 망건을 짤 때 사용하며 제주 망건을 제작 할 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당골뎃개는 삼을 여러겹 겹쳐 놓아서 당골의 둥근 원형의 형태에 가깝지만 끝 부분이 터져 있어서 당골의 크기에 맞추어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당골뎃개는 두 개를 만들어 당골의 위쪽과 아래쪽을 각각 덮는다. 당골의 아래를 덮는 아래뎃개는 거친 삼이 겹쳐져 눌러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당골의 위쪽을 덮는 위뎃개는 비록 아래뎃개보다 크기는 작지만 당 부분에 직접 닿기 때문에 거친 삼 위에 흰 무명천을 칭칭 감아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 도구는 당골에서 다 엮은 망건은 솥에 넣어서 삶게 되는데, 이 때 물이 끓고 줄아들면서 망건골이 솥에 부딪치거나 닿으면서 망건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골의 위와 아래를 양끝을 덮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6) 사리개줄과 방망이

사리개줄은 삼줄로 만든 노끈이며, 방망이는 노끈을 당골에 힘껏 감을 때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두는 것이다. 사리개줄의 전체 길이는 약 5m 정도이며, 당골 사이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도록 1m 정도의 길이로 대여섯 뭉치를 마련해 둔다. 당골 구멍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길쭉한 형태로 감아두는 것이 좋다. 당 걸기가 끝나고 삶기 위해 당골 전체를 칭칭 감아서 망건을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삶을 때 사용한다.



7) 가위

가위는 소형으로 예전에는 무쇠로 특별히 제작된 것을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형의 가위를 사용한다. 말총으로 망건을 걷는 작업을 끝내고 여분의 말총을 잘라내거나 망건을 삶은 다음 당골에서 떼어 판자 등 장식을 달 때 설주와 설주가 연결된 부분을 자를 때 사용하는 공구이다.

8) 먹사지

제주의 망건장은 먹칠을 하지 않는데 비하여, 육지의 망건장은 먹칠을 한 다음 토먹칠도 하였다. 먹은 참먹을 벼루 위에 갈고, 굵은 말총 수백가닥을 끈으로 묶어서 먹솔용 먹사지로 사용한다.



9) 인두와 인두판

육지의 망건장은 원래 인두와 인두판을 함께 사용한다. 망건을 다 제작한 후 가장자리를 공단으로 싸고 난 다음 인두를 사용한다.

3 망건의 구조와 제작과정

망건은 말총과 비늘로 섬세하게 엮은 말총공예품의 일종이면서, 비단으로 감싸고 값비싼 옥석으로 장식하는 남성용 수식구이다. 망건은 이마 위 머리카락을 간추리는 직선형의 머리띠로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지만, 제작과정은 편자 짜기와 바닥 뜨기, 당 걸기와 관자 장식하기의 네 부분으로 세분된다. 또 완성된 망건에는 관자와 풍잠 등 고급 옥석을 달아 조선 선비들의 은은한 미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선 망건의 기본 구조를 살펴 보고, 말총을 비롯한 각종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망건을 제작하는 과정을 상세히 밝히기로 한다. 이 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육지의 망건장과 제주의 망건장은 세부 과정에서 각기 독특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어서, 편자 짜기와 앞·뒤와 설주로 이어지는 바닥 뜨기 그리고 당 걸기와 마무리 장식 등 제작 순서를 따라 주목해 보기로 한다.

1. 망건의 구조와 장식

망건은 매우 간단한 형태이지만, 편자와 바닥과 당과 장식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말총을 사용하는 편자 짜기와 바닥 뜨기와 당 걸기가 끝나면, 말총으로 짠 망건을 천으로 감싸서 마무리 장식을 하는 것이다.

망건의 네 부분은 각각마다 독특한 기능과 용도를 지녔는데, 부분마다 짜는 방법이나 제작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다. 편자는 베를 짜듯이 짜고, 바닥 짜기에 해당되는 앞뒤는 그물처럼 엮으며, 설주는 앞과 뒤를 연결하며 매듭을 짓는다. 당 걸기는 도구 자체를 바꾼 다음 당테를 두르고 그 테를 감싸는 코를 만들면서 일일이 걸고 이것을 삶아서 형태를 고정시킨다. 마지막으로 명주천으로 감싸고 관자를 달아서 마감처리를 하



풍잠을 단 망건(1880년대)과 망건통(1780년대), 단국대 석주선민속박물관 소장

며, 당 위쪽 살춤의 안쪽에는 당줄을 따로 꼬아 두었다가 조립하면 된다. 망건을 보관할 때에는 돌돌 말아서 망건통에 넣어 두었다.

망건은 갓을 쓰기 전에 착용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관자와 풍잠, 동곳 등 여러 수식구를 장식하여, 은은하게 멋을 부릴 줄 아는 조선조선비들의 미의식이 발휘되었다.⁸²⁾ 이처럼 망건은 조선시대 남자들의 치레거리로서, 안동지방에서 성밖 낫다리 밟기를 할 때 부르는 〈낫다리 노래〉에는 망건에 장식된 보석들이 열거되어 있어서 참고가 되는데, 민요의 해당 부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무슨 망근 쓰고 왔노 / 외올 망근 쓰고 왔네.

무슨 풍잠 달고 왔노 / 옥각 풍잠 달고 왔네

무슨 관자 달고 왔노 / 옥 관자를 달고 왔네

무슨 동곳 꼭고 왔노 / 산호 동곳 꼭고 왔네

무슨 갓끈 달고 왔노 / 구슬 갓끈 달고 왔네

.....”⁸³⁾

위 민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망건은 외올 망건을 짜는 방법으로 직조하였다. 이것을 다 짜고 난 다음 망건 위에는 옥각이나 산호 등의 보석을 사용하여 풍잠이나 관자, 동곳 등을 꽂거나 달아서 장식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차림새에서도 이렇게 망건에 장식을 하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 신윤복의 〈쌍검대무〉를 보면 화면 왼

82) 김종태, 「망건공예」, 『한국수공예미술』 (도서출판예경, 1990), 444~446쪽.

83) 특별기획전3 『민속놀이 체험전』 (안동민속박물관, 2000.12), 65~66쪽.



신윤복, <쌍검대무> 중 부분



<초상화>, 대영박물관 소장

쪽에 앉아 있는 선비 중 한 명이 손은 무릎에 깍지를 끼고 갓을 최대한 뒤로 제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화면 중앙에서 칼춤을 추는 여인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⁸⁴⁾ 뒤로 제껴진 갓 아래쪽의 망건 위에는 노란색의 호박으로 만든 풍잠이 달려 있는 것이다.

한편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상화>는 매우 독특한 그림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사모와 관대를 갖춘 공복 차림이 대부분이며, 편복차림의 갓을 쓴 모습도 그리 흔치 않은 편이다. 그런데 이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겹탕건만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린 초상화에서 주인공은 망건 위에 호박으로 만든 멋진 풍잠 등을 달아서 장식을 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⁸⁵⁾

84) 『한국의 미』 20. 풍속화, 도. 신윤복, <雙劍對舞> (부분), 18세기 후반, 간송미술관 소장.

85) 이화여자대학교, 『唐人服飾美術館 開館記念圖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70쪽. 도75. <肖像畫>, 작자미상, 대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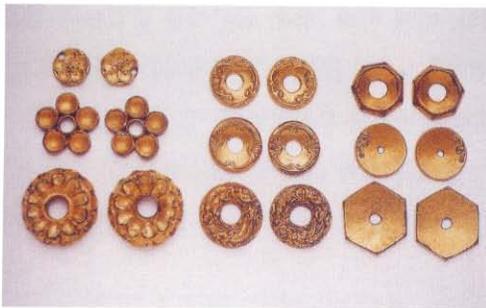
따라서 여기서는 망건을 구성하는 미적인 요소이면서,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던 관자나 풍잠 그리고 동곳 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관자

관자는 일명 '원자(圈子)' 라고도 한다. 관자는 조선시대에 기혼 남자들이 상투를 틀어 머리를 간추리기 위해 망건을 착용할 때 망건의 좌우에 달아서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를 가리킨다. 관자는 당줄을 걸어 넘기는 목적으로도 사용하였다.



옥관자, 이화여대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금관자, 이화여대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관자는 재료와 문양에 따라서 관직의 품계나 계급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1품, 2품, 3품의 당상관은 옥을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 관자에 대한 규정을 좀더 세분한 내용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망건환제변증설」에 의해 살펴 볼 수 있다. 1품은 조각한 만옥(漫玉) 관자로서 속칭 반옥환을 달았다. 정2품은 뇌우, 꽃모양, 매화꽃모양, 외꽃모양의 금관자를 부착하였다. 금관자에는 쌍리(용문양의 일종)를 비롯한 각종 문양을 새겼는데, 이것은 속칭 쌍희권이라고 한다.

정3품은 옥에 뇌우, 꽃모양, 매화꽃모양 등의 여러 가지 꽃모양 새긴 옥관자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각종 문양을 새긴 옥관자를 속칭 수팔연환자이다.⁸⁶⁾ 그밖에 당하관에서 서민에 이르는 백성들은 대모와 양뿔, 소뿔 등 각종 골각 재료를 사용하되 문양을 새기지 않은 관자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물론 서민 중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치스럽게 호박이나 금과 등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살펴 볼 때 조선시대에는 정1품은 아무 문양이나 장식이 없는 민 관옥을 붙였는데, 그 형태는 작고 품질이 좋은 옥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 비해 2품은 금관자를 붙였는데 정2품은 도리금이라 하여 문양이나 장식이 없는 소형 금관자를 사용하였고, 종2품은 문양을 조각한 대형 금관자를 부착하였다. 정3품의 당상관은 이처럼 옥관자를 붙이되 그 형태를 크게 하여 꽃, 대나무, 연꽃 등의 문양을 조각하여 사용하였다. 그밖에 당하관 이하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는 뼈(骨), 뿔

86) 『五洲衍文長箋叢稿』, “正一品 漫玉(俗稱級玉環) 正二品 牽牛花樣 梅花樣 菘花樣 級金(俗稱雙鳴) 正三品 牽牛花樣 梅花樣 雜調花樣玉(俗稱 鏤八連環子)”

(角), 호박, 대모 등을 사용하였으며, 상인은 소발굽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면밀히 살펴 보면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착용한 관자는 벼슬이나 품계가 높을수록 간소하였고, 벼슬이 낮을수록 문양이나 장식이 복잡하고 크기도 컸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도 관자와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한국처럼 복잡하거나 엄격하지는 않았다.

2) 풍잠

풍잠은 망건의 앞부분 한 중간에 붙이는 일종의 장식품이며, 아울러 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⁸⁷⁾ 전체적인 형태는 반달형에 가깝고, 나무나 우각으로 된 풍잠 가운데는 빗살이 부착된 것도 있다.



각종 풍잠, 1700년대 전후, 단국대석주선민속박물관 소장

87) 『冠帽와 首飾』, 54쪽. 도42. 〈風簪〉 길이 5.5 ~ 8cm, 1700년대 전후.

풍잠은 귀천을 가려 상류층에서는 호박·대모 등과 같은 가벼운 것을 사용하였다. 사치스러운 장식을 할 경우에는 옥이나 유리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일반 백성은 뼈나 우각 등을 사용하였다. 재료와 품질, 크기 등으로 품계의 고하를 표시하였던 관자와 달리 장식용으로 애용되었다.

3) 동곳

동곳은 망건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투가 풀어지지 않도록 정수리에 동곳을 꽂아 고정시키는 수식물이며, 망건의 당줄을 잡아매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동곳은 무딘 송곳처럼 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관자와 같이 품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류층에서는 옥·산호·호박·비취·산호·밀화 등 옥석제를 사용하여 장식을 하였고, 서민층에서는 은·백동 등 금속으로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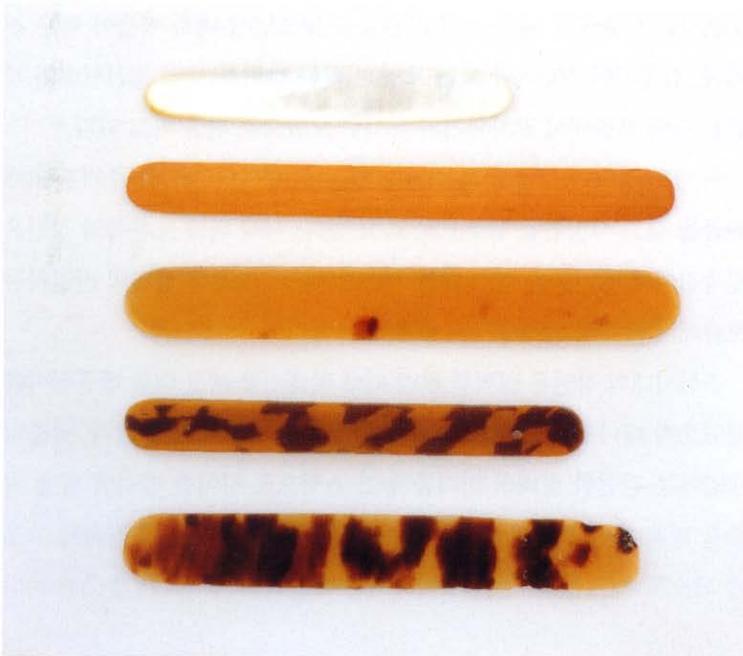


동곳, 1800년대 전후, 단국대 석주선민속박물관 소장

어 꼈었다. 동곳의 형태는 동곳 머리를 버섯이나 콩 모양으로 꾸민 것이 가장 많았고, 말뚝 같이 생긴 것도 많이 있었다.

4) 살쩍밀이

망건을 제대로 착용하기 위해서는 상투를 틀기 전에 이마 앞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살쩍밀이는 이처럼 이마를 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 여분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망건 사이로 집어넣는 용도로 사용된다.



살쩍밀이, 1850년대 전후, 단국대 석주선민속박물관 소장

2. 편자 짜기

망건의 가장 아래쪽은 편자(邊子)이다. 편자는 망건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이마에 졸라매는 곳을 말하며 일명 '선단'이라고도 한다. 편자는 손으로 엮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베들의 간이형이라 할 수 있는 편자들에 말총을 날줄로 삼아서 씨줄에도 말총을 넣어서 평직의 베를 짜는 것처럼 짠다.

1) 조선시대 망건장의 편자 짜기

편자는 베들에다 날줄을 걸고 씨줄을 넣으면서 베를 짜듯이 짜는 것이다. 김준근이 그린 <관 짜는 모양>이라는 그림을 보면 조선시대의 장인은 간이 베들에서 편자짜기와 유사한 모습으로 관을 짜고 있다.⁸⁸⁾

두 명의 장인이 앉아서 관을 짜고 있는데, 왼쪽의 장인은 주개관 위에 관골을 걸고 사방관을 말총으로 걸고 있다. 이에 비해 오른쪽의 장인은 말뚝걸이에 편자들을 걸고 베를 짜고 있다. 이 오른쪽 장인의 작업하는 모습에서 현재의 편자짜기를 유추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장인은 넓은 판자 위에 막대기를 세운 다음 베들걸이를 걸었으며 대나무(수릿대)에는 수십올의 말총 날줄이 걸려 있다. 날줄의 중앙에는 간단한 형태의 바디를 놓고 \wedge 형으로 사이를 벌리면 말총 씨줄을 넣은 다음 편자칼과 같은 땃개비를 사용하고 씨줄의 간격이 고르게 되도록 치고 있다. 장인의 허리에는 베들의 부테허리와 흡사한 허리

88)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109쪽. 3 ~ 다 ~ 7. 관 짜기.

끈을 맨 다음 날줄의 처음 부분을 묶은 대나무를 걸었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망건장의 편자짜기의 전통은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전승되고 있으며, 육지 망건장의 제작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근, <관짜는 모양>, 19세기말,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2) 육지 망건장의 편자짜기

조선시대의 장인처럼 육지 망건장 또한 간이 베틀을 사용하여 편자짜기를 하였다. 육지 망건장은 편자틀에 66가닥의 말총을 날줄로 삼아서 길게 늘어뜨리는데, 편자들은 베틀의 바디에 해당되는 빙어리와 무명실 날줄 가닥마다 말총을 통과시킨 66올의 말총잉아를 걸어둔 것이다. 이 편자들의 빙어리 상하로는 66가닥의 날줄감으로 무명실이 걸려 있는데, 먼저 위쪽에 있는 33가닥의 무명실마다 한올한올 말총가닥을 날실로 묶은 다음, 다시 아래쪽에 있는 33가닥의 무명실에도 말총가닥을 올올이 묶는다. 이렇게 66가닥의 날실을 묶은 다음 무명실 가닥마다 걸려 있는 말총잉아를 날실 한가닥마다 한올씩 모두 옮겨서 날줄 위로 걸리게 한다.



임택수 보유자의 편자짜기

잉아가 날줄을 통과한 다음에는 66가닥의 무명실이 걸려있는 빙어리의 중간 말총을 차례차례 옮기고 잉아가 있는 곳까지 빙어리를 내려서 날줄을 상하로 八형태로 가르도록 한다. 이렇게 말총으로 날줄을 다 걸고 바다에 해당되는 빙어리와 말총잉아도 날줄의 중간까지 옮긴 다음에는 빙어리 끝에 걸린 실고리를 벽이나 문지방에 박아 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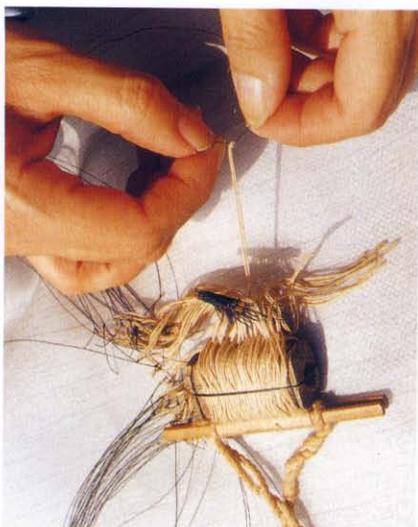
임덕수 보유자는 빙어리 끝의 실고리를 왼쪽 다리를 쭉 뻗은 다음 왼 발에 걸거나 말뚝을 만들어 걸었는데, 제자인 양진숙 조교는 스승으로부터 벽에 못을 박아 걸거나 문고리에 매달아 거는 방법으로 배웠다. 66올에 해당되는 날줄의 말총을 잘 잡아당긴 다음 말총의 끝을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 가슴 앞쪽에 가슴끈을 두른 다음 말총을 묶는다.

날줄을 다 걸고 팽팽하게 텐션을 맞춘 다음에는 약간 굵은 7가닥의 말



양진숙 조교의 편자짜기





육지 망건장의 편자짜기 세부

위 왼쪽) 66울의 무명 날줄감에 말총연결하기
 위 오른쪽) 말총 잉아를 날줄 쪽으로 옮기기
 아래) 편자칼을 바디로 삼아서 씨줄넣기

왼쪽 페이지) 빙어리를 놓고 X자형으로
 잉아가 갈라지면 편자칼 위에 씨줄넣기



바닥뜨기를 하는 이수여 보유자(오른쪽)와 편자짜기를 하는 강전향 조교



총을 고른다. 씨줄로 사용하는 말총은 날줄보다 약간 굵고 길이가 짧아도 가능하다. 7가닥의 말총은 끝을 묶은 다음 씨줄로 삼을 때 말총 4가닥은 왼쪽에, 말총 3가닥은 오른쪽에 두어서 양쪽에서 지그재그로 한번씩 씨실로 넣게 된다.

씨줄은 맨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번에 2올씩 넣다가 6회쯤 짠 다음부터는 한번에 한올씩 밀어 넣는다. 날줄에 씨줄을 넣을 때는 위가 넓은 역사다리꼴 형태의 편자칼의 안쪽이 움푹하기 때문에 이곳에 말총을 걸어서 빼낸다. 잉어를 들어서 \wedge 형의 교차시킨 후 편자칼을 넣으면서 말총가닥을 앞쪽으로 쳐서 씨줄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도록 만들어준다. 즉 편자칼은 말총을 걸어 넣어서 베틀의 북 역할을 하거나 바디처럼 씨줄을 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편자칼을 넣어서 씨줄을 치고 나서 잉어를 한번씩 엇갈리게 들었다가 놓으면서 짜거나, 빙어리의 아래쪽에 있는 날줄을 걸어 올려서 씨줄을 넣으면서 짠다. 60~70cm 정도 길이의 편자 하나를 짜려면 씨줄로 사용할 말총은 길이가 길 경우 16올 정도가 필요하고 길이가 짧은 말총은 24올이 든다.

편자짜기를 하면서 씨줄을 짠 길이가 늘어나면 망건장은 허리띠에 묶은 편자를 풀어서 좀더 당겨서 묶은 다음 짠다. 씨줄을 넣어서 짠 길이가 늘어날수록 잉어를 들어서 벌릴 수 있는 \wedge 형의 간격이 줄어들어서 편자칼을 넣어 짜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하여 60cm 정도의 길이로 편자짜기가 끝나면 편자틀에 매달린 올을 끊어서 말총의 끝부분을 묶은 다음 몸골로 옮겨 묶고 앞뜨기와 뒤뜨기를 한다.

3) 제주 망건장의 편자짜기

제주의 망건장은 편자용 도구들을 조립해서 편자들을 만들고 특히 무명실을 잉아대에 걸어서 만든 다음, 왼발에 무명 발걸이를 끼우고 편자를 짜는 방식이다.

날줄로 사용할 길이 80cm 정도 되는 말총을 20가닥씩 세어 각각의 말총끝을 3cm 너비의 창호지로 돌돌돌 감은 다음 창호지를 감은 끝 부분을 묶어서 미리 2/3쯤 쪼갠 수릿대의 안쪽에 넣는다.

이 때 20가닥씩의 말총을 수릿대의 위쪽과 아랫쪽에 각각 끼워서 상하가 분리되도록 한다. 수릿대를 고정하기 위해 말총의 바깥쪽은 고무줄로 칭칭 동여맨 다음 무명으로 만든 발걸이는 쪽 뺨은 왼발에 끼운다. 말총날줄을 가지런히 고른 다음 가슴팍에 무명 가슴띠를 두른 위에 말총 40가닥을 묶고 왼발에 무명 발고리를 묶은 부분부터 가슴까지의 길이는 18cm 정도이다.

편자들에 잉아대를 만들기 위해 우선 잉아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풀려서 ∞자형으로 걸면서 두 개의 땃가지에 매듭을 짓는다. 그리고 수릿대에 걸어둔 아래쪽 말총 중 가장 외곽의 것에 무명실을 걸어서 2~3cm 길이의 U자형 실고리를 만든 다음 다시 잉아대에 ∞형으로 첫 번째 잉아줄을 건다. 2번째 잉아줄은 수릿대에 걸어둔 윗쪽 말총 중 가장 외곽의 것에 무명실을 걸어서 2~3cm 길이의 U자형 실고리를 만든 다음 다시 잉아대에 ∞형으로 매듭짓는 것이다.

세 번째 잉아줄은 첫 번째 잉아줄과 마찬가지로 수릿대 아래쪽의 두 번째 말총을 사이에 두고 U자형 실고리를 만드는 것이고, 네 번째 잉아줄은 두 번째 잉아줄과 마찬가지로 수릿대 윗쪽의 두 번째 말총을 사이



제주 망건장의 편자짜기 세부

왼쪽 페이지

위 왼쪽) 창호지로 날줄 끝을 묶기
위 오른쪽) 수릿대에 발걸이와 날줄끼기
아래) 가슴끈을 맨 뒤 잉아대 만들기 시작

오른쪽 페이지

위) 40줄의 날줄 위로 걸어 완성된 잉아
아래) 편자칼을 바디로 삼고 잉아를 들어 올려
서 씨실을 넣는 모습



에 두고 U자형 실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릿대 아랫쪽의 말총과 윗쪽의 말총을 교대로 걸어서 U자형 실고리를 만드는 것을 “새섞기”라고 하며 상하로 20회씩 반복하면 40줄의 날줄을 \wedge 자로 교차시킬 수 있는 잉아가 완성이 된다.

잉아가 완성이 되면 가슴끈에 바짝 묶어두었던 날줄용 말총을 끌러서 길게 늘인 다음, 왼발을 쭉 뻗고 목침을 발 밑에 받치고 가슴끈에 날줄용 말총 가닥의 끝 부분을 다시 묶는다. 이 때 가슴끈으로부터 발고리까지의 길이는 75cm 정도되며, 이제 본격적으로 편자짜기를 할 준비가 다된 셈이다.

씨줄로 삼을 7가닥의 말총을 말총사리에서 뽑아서 한꺼번에 끝 부분을 묶은 다음 잉아를 들어서 날줄과 날줄을 \wedge 형으로 벌린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씨줄을 넣을 때에는 왼쪽부분은 항상 4가닥의 말총을 유지하도록 하고 오른쪽 부분은 항상 3가닥의 말총이 되도록 한다.

씨줄용 말총가닥을 넣고 짤 때 처음 10회 정도까지는 말총 2가닥을 한꺼번에 밀어 넣다가 10회 이후부터는 말총 한 가닥씩 밀어 넣는다.

씨줄로 사용하는 말총가닥은 좌우에 4가닥과 3가닥이 있는데, 이 3~4가닥 중 허리 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말총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편자칼을 바디로 삼아 밀어 넣곤 한다. 편자짜기는 베틀에서 베를 짜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잉아를 들어서 날줄과 날줄 사이를 \wedge 형으로 벌리면 그 벌어진 틈에 말총을 넣은 다음, 편자칼을 바디 대응으로 삼아 날줄과 씨줄이 1:1로 교차하는 평직의 제직과 같은 방식으로 짜면서 씨줄의 간격이 일정하게 되도록 툄툄 쳐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 마간장이 사용하는 편자칼은 폭이 굵은 것과 좁은 것 두 개가 있다. 이 중 넓은 편자칼은 편자틀에 날줄을 걸고 허리춤에 맨 다음 편자

를 짜기 시작한 다음부터 편자의 중간부분까지 사용한다. 그러나 편자의 길이가 길어지면 잉아를 들어도 \wedge 형이 조금밖에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좁은 폭의 편자칼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편자짜기는 망건을 짤 때 제일 처음 시작부분을 평직처럼 직조하는 것이다. 육지 망건의 편자는 날줄 66줄인데 비해 제주 망건의 편자는 날줄이 40줄이어서 육지망건의 편자가 훨씬 곱고 치밀한 느낌을 준다. 씨줄은 육지 망건과 제주 망건 모두 7올씩인데, 좌우에 각각 4올과 3올을 두고 지그재그 식으로 건너 뛰면서 짜올라서 전체의 길이가 70cm 정도 일 때까지 짠다.



아래) 왼쪽에 씨줄 네가닥, 오른쪽에 씨줄 세가닥을 늘어놓고 날줄 : 씨줄을 1:1로 편자짜기
위) 완성된 편자



3. 바닥 뜨기

망건의 바닥은 폭 1.5cm에 길이 70cm 정도로 완성된 편자 위에 앞과 뒤, 설주부분을 뜨는 것이다. 이마 쪽의 성근 부분은 앞이고, 머리카락을 감싸는 조밀한 부분이 뒤이며, 앞과 뒤 사이에 4~5줄 정도 매듭을 짓는 부분을 설주라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설주를 '설제' 라고도 한다.

앞은 망건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며 망건을 착용했을 때 이마 부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바닥면을 그물처럼 성글게 엮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뜨는 부분이다. 뒤는 후면의 뒤통수와 머리카락을 감싸는 곳으로서 앞을 성글게 엮었다면 뒤는 그보다 2배 이상 촘촘하게 엮는 것이 특징이다. 설주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부분이며 말총을 이을 수 있도록 매듭을 지으면서 제작하며 마무리할 때는 판자를 다는 부분에 해당된다.

1) 육지 망건의 바닥 뜨기

앞뒤 뜨기의 방법은 육지의 망건장과 제주의 망건장이 제작한 방법이 대체로 일치한다. 육지의 망건장인 임덕수 보유자가 망건의 앞뒤를 뜨는 방법은 양진숙 조교에게 전수되어 오늘에 전하고 있다.

육지에서 망건의 앞뒤를 뜨기 위해서는 편자들에서 짜기를 마친 편자를 충사발의 물에 넣고 축축하게 적신 다음, 몸골에 단단히 동여 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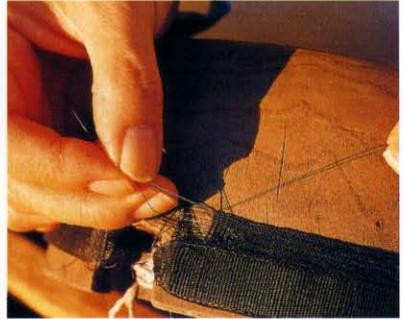
몸골에 편자가 고정이 되면 우선 편자의 한쪽 모서리를 속심으로 삼아서 앞뒤의 코와 설주의 코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줄머리를 한 바퀴 놓게 된다. 줄머리가 끝나면 그물 뜨기와 같은 방법으로 앞 뒤 뜨기를 하는데, 앞 뜨기는 성글게 뜨고 뒤 뜨기는 촘촘하고 조밀하게 뜬다.



바닥뜨기를 하고 있는 임덕수 보유자



몸골에 편자묶어 고정하기



편자묶고 바닥뜨기 시작



몸골에 편자 걸 준비를 하는 양진숙 조교



몸골에서 바닥뜨기를 하고 있는 양진숙 조교

앞과 뒤는 말총을 이용하여 그물코처럼 뜨기 때문에 말총이 끊어지거나 짧으면 이을 수가 없다. 따라서 앞과 뒤의 사이의 설주 부분은 앞뒤의 경계이면서, 앞뒤를 매듭지어주는 마감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설주는 한 코를 걸 때마다 매듭을 지으면서 짜고 보통 네 코에서 다섯 코를 매듭지으며 한 바퀴 돌 때마다 줄줄이 뜨기 된다.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짜면 짧은 말총을 이을 수도 있고, 앞뒤를 짜다가 끊어진 말총을 제거하고 새로운 말총을 연결하여 수리할 수도 있게 된다.

2) 제주 망건의 앞뒤 뜨기

편자틀에서 다 짠 후 편자를 끊어낸 다음 창호지로 감싼 편자의 끝부분을 몸쪽에 묶고 단단히 고정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동여맨다.

망건의 앞뜨기와 뒤뜨기를 하는 바늘은 가장 작은 1호 바늘을 사용하며, 바늘에 말총을 꿰어 편자에 코를 걸어서 그물을 뜨듯이 떠나간다. 바닥 뜨기의 첫 단계는 줄머리 놓기이다. 완성된 편자의 좌우는 탕건에서 구갑치기를 한 부분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줄머리로 삼아서 앞뒤 및 설주에 해당되는 코를 만든다.

이마에 닿는 앞 부분은 1cm에 6코 정도로 성글게 걸고, 뒷머리를 감싸게 될 뒷간 부분은 1cm당 11코가 되도록 촘촘하게 건다. 망건의 앞과 뒤 뜨기는 겹탕건의 윗도리와 속도리를 짜나가는 방법과 동일하다.

앞뒤뜨기는 윗도리와 속도리로 코를 짝짝 이어 짜는 곳이기 때문에 말총이 짧거나 끊어지면 연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앞뒤뜨기를 할 때에는 말총의 길이가 긴 것을 선택해야 하며, 중간에 끊어지면 이미 짠 부분이라도 풀고 다시 짜야한다. 말총을 잇거나 교체하는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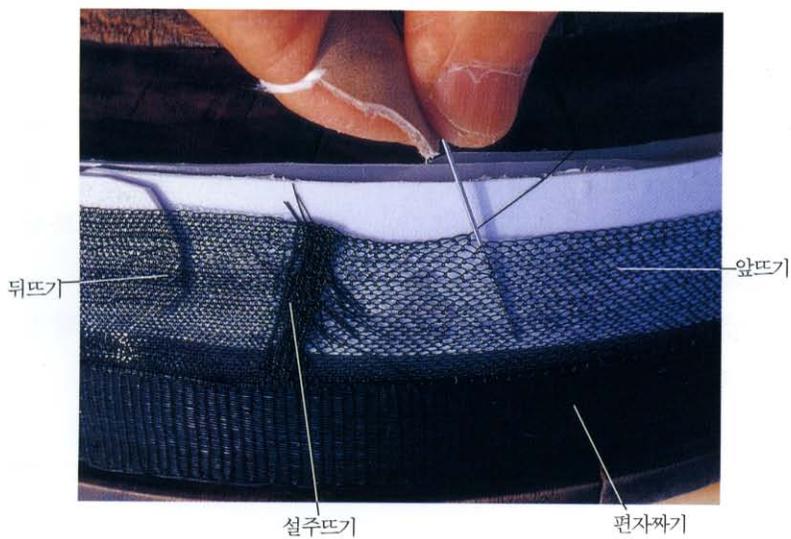
몸골에서 앞뒤뜨기를 하고 있는 이수여 보유자



편자의 한쪽 변에 잇대어 줄머리 놓기



몸골에 완성된 편자 묶어 고정시키기



편자 위에 바타뜨기 : 앞뒤 및 설주뜨기

앞과 뒤를 짜는 연결부위에 위치한 설주 부분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앞뒤짜기에서 앞간은 아주 가는 말총으로써 이마가 시원하게 드러나도록 짜는 것이 좋다. 앞간은 1cm x 1cm 당 6코에 9도리를 짜는 것이고, 뒷간은 1cm x 1cm 당 11코에 18도리를 짠다. 따라서 망건의 앞은 이마가 드러날 정도로 성글고, 망건의 뒤는 조밀하고 촘촘하여 느낌상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육지 망건과 제주 망건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는데, 겹탕건의 윗도리와 속도리를 짜는 방법과 동일하였다.

3) 제주 망건의 설주 짜기

앞간과 뒷간이 만나는 이음매 부분에 위치하며 4코에서 6코를 만든다. 설주는 탕건에서 줄머리를 놓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코를 만든 다음, 설주 부분을 짤 때는 혼도리로서 매듭을 지으면서 짠다.

혼도리는 홑탕건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제작법이다. 윗도리와 속도리의 방법으로 앞뒤를 짜면서 말총을 연결할 때에는 반드시 설주에서 긴 말총으로 바꾸어 연결한다. 한편 설주는 매듭의 형식으로 단단하게 묶어서 짜기 때문에 당기는 힘에도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앞뒤짜기와 설주는 모두 편자 바로 다음 부분부터 밀으로 한코씩 걸어 80도리를 떠 올린다.



편자와 앞뜨기



설주와 뒤뜨기



설주와 설주 연결 모습



춤춤한 뒤 / 설주 / 성근 앞



5~6가닥의 소(속심)를 넣어 막도리(늘림코) 만들기

4) 늘림코 혹은 막도리 만들기

몸골에서 앞뒤짜기와 설주짜기 모두 80도리까지 짜고 난 다음에는 당을 걸기 바로 전단계로서 코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육지에서는 코의 크기가 늘어 나도록 만들기 때문에 “늘림코”라고 불렀으며, 제주에서는 80도리를 짜고 나서 맨 마지막 한바퀴를 돌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막도리”라고 불렀다.

늘림코 혹은 막도리를 만드는 방법은 20cm 정도의 길이에 굵기가 두꺼운 말총 대여섯 가닥을 속심(제주어로는 “소”)을 삼으면서 80도리 짜에 해당되는 마지막 코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다.

5) 연발이나 대나무로 밀기

망건의 길이는 대부분 2자 2치 (67.2cm)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망건장은 작업과정 중간마다 말총가닥을 뽑아서 입에 물기 때문에, 망건을 잘 때 사용하는 말총은 깨끗하게 씻어서 항상 물에 적셔 두었다가 사용한다. 말총이 축축하게 물기를 머금어야 하는 이유는 말총이 마르면 잘 끊어지기 쉽고, 젖은 상태의 물총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잘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막도리까지 다 짰 다음에는 몸골과 망건 사이에 연발을 집어넣고, 몸골 위의 망건 전체에 물을 묻혀 축축히 만들어준다. 80도리를 짰지만 몸골 높이의 2/3에 불과하여, 연발을 넣고 양 손가락으로 밀면서 인위적으로 길이를 늘려 주는 것이다.

4. 당 걸기

당은 상부를 올라가는 곳으로 감아서 짜 나가는 곳을 말하는데 '살춤을 친다'고 한다. 망건의 바닥에 비해 그 위쪽에 거는 당은 비교적 굵은 말총 두세 가닥으로 만들며 끈을 걸 수 있도록 코를 만들어 가는데, 당 위쪽에 끈이 들어가는 부분이 살춤에 해당된다.

육지와 제주에서 당을 걸 때는 당골에 옮겨 12번을 걸어 매듭을 지는 방법은 동일하였으나, 당을 걸기 전에 당골 위에 당뭇을 박고 당테를 두르는 방법은 양자 간에 차이를 보였다.

1) 육지 망건의 당테 두르고 당 걸기

육지의 망건장은 망건의 바닥 뜨기가 다 끝나면 몸골에서 망건을 떼어 내서 당골로 옮긴다. 몸골과 당골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당골은 당을 걸어야 할 위쪽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 나와 있다.

당골에 바닥짜기가 끝난 망건을 단단하게 묶고 형겼으로 된 이마걸이로 망건이 움직이지 않도록 편자부분을 단단히 동여 매어 고정시킨다. 당골의 위쪽에 대나무 뭇을 십여 개 박은 다음, 대나무로 만든 당테를 두르고 양쪽을 무명실로 동여매면 당을 걸 준비가 끝난 셈이다.

육지 망건의 당을 거는 방법은 제주 망건과 마찬가지로이다.

설다리는 당걸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왼쪽의 설단에 두 개를 세운 다음, 당 걸기가 모두 끝난 뒤 맨 마지막 오른쪽 설단에 두 개를 세우는 것이다. 이 설다리를 명주천으로 감싸고 당줄을 걸게 되어 있다.

당을 거는 방법은 매우 까다로워서 막도리에서 당테 사이를 12번을



임덕수 보유자의 당결기



육지 망건의 대못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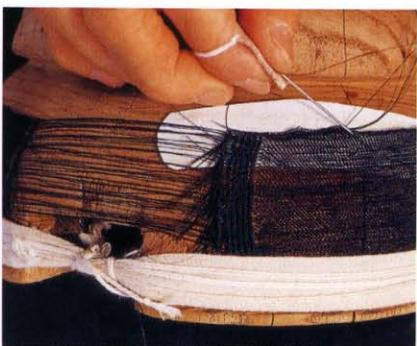
육지 망건의 당테두르기



당테에 당고정줄 걸기



이수여 보유자의 이매걸이 묶기 모습



위왼쪽) 이매걸이 걸기 시작

위 오른쪽) 못에 고정시킨 이매걸이

아래 왼쪽) 당걸기 위해 5~6가닥의 속심(소)을 넣고 마지막 도리(막도리)를 뜨는 모습

아래오른쪽) 당테를 걸고 당테를 고정시킬 못박기

걸어야 하나의 당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맨 먼저 바닥의 늘림코에 격자형 짜임을 만들고, 당태를 거쳐 코를 만든 다음 코와 코를 연결한 다음 다시 바닥의 격자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당걸기를 하면 바닥에는 격자형이 생기고, 당태를 감싼 부분에는 코가 생기면서 당걸기가 끝나게 된다.

당 걸기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앞 뒤로 격자 무늬를 만들다가 당태에 두 번 걸어서 연결 지어 하나의 당으로 거는데, 12번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앞뒤를 연결한 두 군데의 설주 부분에서는 당과 당 사이를 연결하지 않고 사이를 띄워서 당줄을 걸어서 머리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기도 한다.

2) 제주 망건의 당뭇 박아 당태 두르기

한편 제주식 당태 걸기 또한 몸골에서 바닥짜기가 다 끝난 망건을 당골로 옮기는데, 당골의 형태는 육지의 것과 제주의 것이 대체로 비슷하다.

당골에 옮긴 망건 바닥은 우선 총사발의 물에 담귀서 촉촉하게 만든 다음, 편자를 당골 중앙의 못에 단단히 동여매서 묶고 바닥도 단단히 동여맨다. 당태를 두르기 전에 우선 망건 바닥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이매걸이를 묶는다. 우선 이매걸이의 볼록 튀어나온 고리를 당골 중앙의 못에 걸고 편자를 따라서 무명끈을 단단히 감아맨 다음 끈에 묶여 있는 무명실을 풀어서 있는 힘껏 당겨서 편자를 감싼다.

이매걸이를 걸어서 편자를 당골에 고정시키고 나면, 당골에 당태를 걸어야 한다. 제주에서 당태를 거는 위치는 육지처럼 당골의 위쪽에 거는 것이 아니라, 볼록 튀어나온 당골의 옆 모서리에 거는 점이 다르다.



당테 밑에 대받흙 넣기



대받흙 위에 연발넣고 당 걸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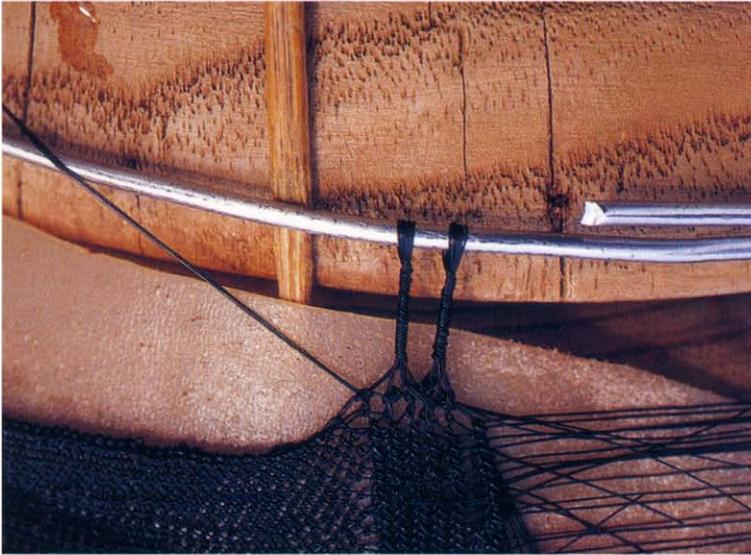
당골의 튀어나온 중앙에 쇠못을 네 군데에 박고 조금 굵은 쇠테를 두르면서 네 군데에 쇠못을 박은 다음 쇠테의 중앙을 무명실로 묶어서 고정을 시키면 당테 걸기가 끝난다. 당테로 가는 육지의 대테와 제주도의 쇠테는 모두 당 걸기를 할 때 살춤을 거는 부분이다. 바닥에서 끌어올린 말총으로 당테를 감싸며 코를 만들면서 감아 나갈 때 당테가 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당테를 당심대라고도 부른다.

3) 제주 망건의 당 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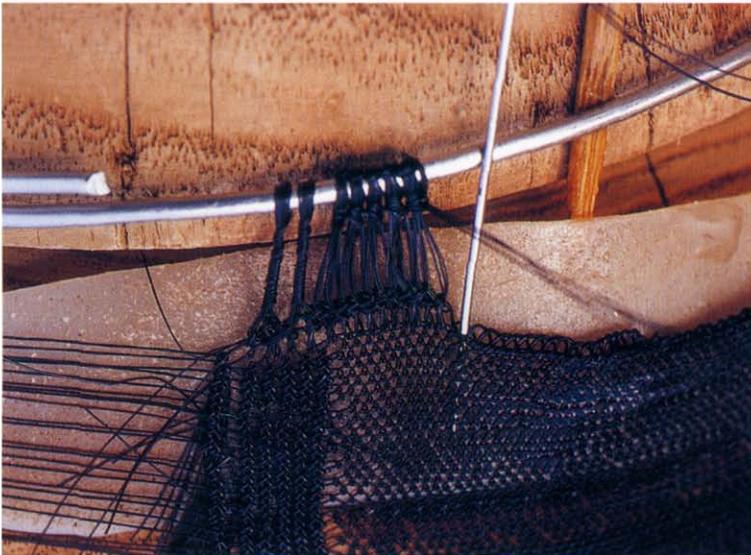
당은 두꺼운 두세 올의 말총을 사용한다. 예전 보고서에 의하면 당을 걸 때 앞뒤의 코에 따라 당을 걸 말총의 굵기가 다르거나 촘촘하기가 다르다고 조사, 보고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육지의 망건장과 제주의 망건장이 작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앞과 뒤에 사용하는 말총은 바닥뜨기를 한 말총보다 굵으며, 두세올을 한꺼번에 사용하여 매우 굵게 짜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굵은 말총을 당심대에다 대고 당줄을 걸기 시작할 때 이쑤시개처럼 가는 대반흙을 당테 밑에 받친다. 이 대반흙은 당테를 당골 위로 치켜 올려주는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여 당 걸기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대반흙 위에는 작은 연발을 올려서 바늘이 들어가는 길을 매끈하게 해주고, 말총이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당 걸기를 할 때 모서리에 해당되는 설다리 부분은 마지막 장식 과정에서 명주천으로 싸게 되므로, 일반적인 당 걸기와 다른 방법으로 제작을 한다. 막도리에 말총을 걸어서 매듭을 지은 다음 긴 기둥을 세워 당테에 걸어서 매듭을 한번 지은 후 코일링의 방법으로 설다리를 세우는



대받훅과 연발 넣어 설다리 두 개 만든 모습



막도리 위에 열두 번씩 바늘을 움직여 당 걸어가기

것이다. 이와 같이 당 걸기는 망건의 제작방법 중에서 가장 까다로워서 쉽게 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수여 보유자는 당을 거는데 예전에는 반나절 정도 걸렸는데, 근래에는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4) 제주 망건의 당고정줄 걸어 삶기

당 걸기가 모두 끝나면 망건을 삶아내야 하므로, 우선 망건의 형태를 잡아서 당골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다. 당고정줄은 못에 두 가닥이 달려 있으므로, 못을 박고 짧은 한 가닥을 풀어서 당테 바로 아래쪽을 한 바퀴 빙 둘러서 감는다. 다시 긴 한 가닥을 풀어서 당골의 움푹한 곳에



당테 위에 당 고정줄 걸어 삶을 준비하기



위) 당줄을 고정시키는 모습
아래) 중앙에 못을 박고 당줄 위로 감싸서 당테 아래에 한 바퀴 감기

자리를 잡도록 단단하게 잡아 당겨서 당테와 못에 V형으로 걸어서 당의 형태를 바로 잡는다.

이렇게 당 걸기가 끝나면 망건의 형태와 당의 형태를 고정시키기 위해 끓는 물에 넣고 삶는다. 제주 망건의 경우 육지 망건에 비해 비교적 쉽고 간단한 편이다. 우선 솥에 찬 물을 넣고 망건의 당을 건 부분을 아래쪽으로 삼아 잠기도록 한 다음 2시간 정도 삶는다. 물이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삶으면 된다.



망건을 삶기 위해 물을 끓이는 강선향 조교와 이를 바라보는 이수여 보유자





망건을 끓는 솥에 담가 삶기

다 삶고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망건을 꺼내어 V형으로 묶은 아래쪽 당고정줄을 풀어서 다시 한번 더 죄어서 묶는다. 당은 망건의 끝부분으로 당골의 형태처럼 약간 볼록하게 튀어 나와서 당줄을 끼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삶자마자 꺼낸 망건에서 아래쪽 당고정줄을 당겨서 다시 묶으면 이 부분이 좀더 좁혀지게 된다.

이처럼 망건은 편자나 바다뜨기, 당 걸기 등이 진행되면서 점차 사람의 이마 형태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망건을 짜는 중간 중간에 말총을 물에 담가서 신축성을 이용하고 연발을 넣고 손으로 밀어서 약간의 굴곡을 만들고 삶아서 다시 고정을 시키는 모든 과정이 망건 짜는 기법에 해당된다. 말총 재료가 지닌 성질을 잘 알고 도구를 다루는 망건장의 섬세한 손길과 손맛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어, 망건이 지닌 입체적인 짜임새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5) 육지 망건의 당 고정줄 묶고 삶기

육지의 망건장이 당 걸기까지 모두 끝낸 망건을 삶는 방법은 매우 독특하다. 육지 망건은 삶기 전에 망건의 표면을 잘 손질한다. 망건은 삶고 나면 형태가 고정되어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삶기 전에 비틀어지거나 어긋난 형태를 바로잡고 다듬는 것이다.

망건의 편자는 이마걸이를 묶어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당의 형태를 제대로 내기 위해 당테를 건 중앙부분에 당고정줄을 걸어야 한다. 당고정줄은 당의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대못을 당골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 박고 당골의 굴곡을 따라서 당고정줄을 묶은 다음 칭칭 동여맨다.

당의 형태가 안정이 된 다음에는 삶기 위한 준비를 한다.



당고정줄 걸어서 삶기 준비

육지 망건은 가는 말총을 이용하여 40올의 제주 망건에 비해 66올의 편자를 짜고, 바닥도 편자만큼 가는 말총으로 촘촘하게 뜨기 때문에 비단처럼 얇은 느낌이다. 솥에 넣고 삶을 때 물이 줄아 버린다는지, 솥에 망건이 닿아서 치이면 상하기 때문에 삶는 과정도 짜는 과정만큼 정성을 다한다.

우선 삼으로 만든 당골싸개로 당골의 위 아래를 덮고 삼으로 만든 사리개끈을 풀어서 칭칭 동여맨다. 삼으로 만든 당골덮개 중 위덮개는 흰 무명천으로 감싼 것을 사용하고, 아래덮개는 삼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댈다. 당골에 위아래 덮개를 붙인 다음 삼노끈으로 만든 사리개줄을 4~5cm 떼어 간격을 두면서 칭칭 동여 매기 시작한다.

사리개줄을 당골에 넣고 한바퀴 돌린 다음에는 막대기(방망이)를 들어서 S형으로 꼬아 비틀어서 망건 위에 사리개줄이 힘껏 동여 맨다. 이렇게 당골덮개와 사리개줄로 망건을 감싸는 이유는 망건을 솥에 넣고 삶을 때 망건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어섯 뭉치의 5~6m 길이의 사리개줄을 칭칭 동여 매면, 망건이 들어있는 당골은 보이지 않고 끈만 매어 있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망건을 잘 감싼 뒤에 솥에 망건골이 잠길 정도의 찬물을 붓고 2~3시간 삶아서 솥의 물이 반쯤 줄어들 때까지 불을 댈다. 하루 정도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시킨 뒤 골에서 떼어내면 망건의 형태와 당의 형태가 잘 고정이 된다.

사리개줄을 처음 감을 때는 줄과 줄 사이가 4~5cm 정도가 되도록 감다가 차츰 전체가 안보이게 감는다. 칭칭 감는 것이 끝나면 솥에다 넣고 삶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말총이나 머리카락의 성질에 있다. 즉, 망건을 삶는 이유는 망건 표면의 진을 빼고 윤이나게 하기 위함인데 솥



사리개줄을 감아서 삶기 준비



사리개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감은 모습



사래기줄을 모두 감은 상태

에다 당골 높이로 물을 부어서 물이 절반 정도로 줄아들 때까지 삶는데 보통 두세시간이 걸린다.

6) 육지 망건의 먹칠 · 토먹칠하기

망건을 덜 삶으면 꾸들꾸들하고 쉽게 뻗뻗해지므로 충분히 삶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삶는 작업이 끝나면 충분히 식힌 다음 먹칠하기가 시작된다. 먹칠은 육지 망건의 제작과정에서만 하는 방법이며, 제주 망건을 제작할 때에는 먹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삶아낸 당골에서 망건을 떼어낸 다음 먹칠을 두 번 한다. 첫 번째 먹



당골에서 떼어낸 망건에 먹칠하기



명주를 감싸게 한 다음 토먹칠 하기

칠은 참먹을 베틀에 갈아낸 검은 먹물을 먹사지를 사용해서 망건에 바르는 것이다. 두 번째 먹칠은 '토먹' 혹은 '토옥'이라 부르는 석묵을 솔로 부벼서 바르는 것이다. 토먹은 우리 나라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며, 연탄이 덜된 덩어리를 말한다.



양진숙 조교의 완성된 망건

5. 망건의 장식물

조선시대에는 망건을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망건장과 관자장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다. 망건장의 역할은 편자짜기부터 시작하여 당을 걸고 삶는 작업까지였고, 망건에 명주싸개로 선(續)을 두르거나 관자를 붙이고 당줄을 끼워 머리 크기에 맞춰 조정해 주는 것은 관자장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망건의 착용이 줄면서 망건장은 관자장의 역할까지 함께 하게 되었던 듯하다.

1980년대에 중요무형문화재로 망건장을 지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을 때, 망건을 실제로 착용하는 사람에게 팔았던 임덕수 보유자는 편자짜기부터 관자 장식까지의 기능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었다. 또 망건이 뜯어지거나 구멍이 나면 수리까지도 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망건장의 전통과 고유한 기능을 그대로 지니고 있던 제주어 이수여 보유자는 본래 말총을 다루는 기능까지만 갖추고 있었다. 1980년 조사 당시 이수여 보유자는 편자 짜기부터 당 걸기까지 말총을 작업하는 부분만 알고 있었을 뿐, 마무리에 해당되는 관자 장식이나 당줄을 끼우고 매는 방법은 몰랐다.⁸⁹⁾ 이후 임덕수 보유자가 사망한 후 재조사를 하러 갔을 때는 완제품으로 만드는 일을 배워서 익히기는 하였으나 관자의 격식을 잘 알지 못하고, 수선한 경험도 없음을 밝히고 있었다.⁹⁰⁾

본고에서는 현재 보유자가 망건에 관자 등을 달아서 마무리 장식하는

89)李宗碩, 「1. 갓질, 당건장, 망건장」, 〈없음〉『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약보고 1980~1991)』, 제1호 (문화재관리국, 1980.9.), 12쪽. 이수여는 조사 당시 57세였으며, 망건이 특기여서 편자짜기부터 당줄까지 걸 수 있으나 명주싸개나 관자달기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0) 芮肅海·李宗碩, 「32. 網巾匠」, (문화재관리국, 1986), 293~298쪽.

방법을 살펴 보기로 한다.

솔에다 삶아 그늘에서 마른 망건은 설주와 설주가 연결된 옆사리의 중앙을 가위로 오려서 당골에서 떼어낸 다음, 설다리에 붙어 있는 여분의 말총을 깔끔하게 오려 낸다.

검은색의 비단이나 공단을 사용하여 6x17.5 cm, 3x10cm의 크기로 2장씩 채단한다. 설주와 설주를 연결하던 옆사리는 비교적 폭이 좁은 천으로 설다리 하나만을 감싸면서 바느질한다. 앞서 당걸기를 할 때 설다리는 2개를 만들어 두었는데, 명주천으로는 설다리의 맨끝에 위치한 하나만 감싸고 나머지 하나는 말총 그대로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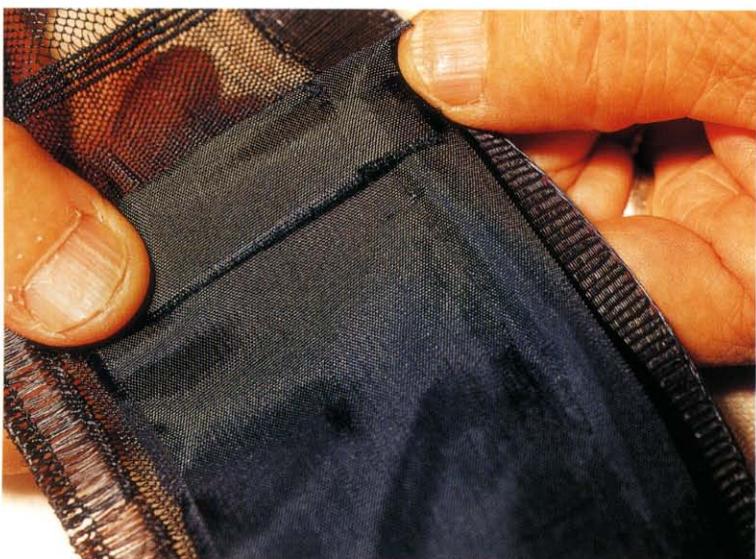
이 때 편자에 해당되는 선단 부분에서는 천으로 만든 당줄고리를 함께 달아맨 다음 천으로 감싼다. 약간 폭이 넓은 비단천으로는 편자 부분을 감싸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형겔 싸매기가 끝나면 편자끈을 다는데, 1980년대에는 전문적으로 망건끈을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전라북도 남원에 거주하는 김씨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만들 수 있을 뿐이었다.

당줄은 검은 명주실이나 무명실을 꼬아서 만들며, 나일론실은 미끄럽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바늘에 명주실이나 무명실을 1.2m 정도의 길이가 되면 네 겹이 되도록 겹친 다음 꼬아서 당줄을 만든 다음 당에 꿰어 건다. 당줄이 모두 걸리면 가위로 바늘 끝부분을 잘라낸 다음, 당줄의 양끝은 합쳐 모아 매듭지어 맺는다. 편자 중 설주와 만나는 양쪽 끝에도 당줄 고리를 단다. 그리고 당의 코와 당줄 고리에 당줄을 매고 관자를 단다. 예전에는 당줄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토먹을 가루로 만들어 특별히 만들어진 솔로 칠해 윤기를 내곤 했다.

관자는 양 옆에다 다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분에 따라 모양



당줄 길 한 코만 남기고 검은 명주천으로 당을 싸기



명주천의 넓은 폭으로 편자 감싸기



관자달기



완성된 망건

과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당줄과 관자가 다 달리면 이마 한 중간에 풍
잠을 다는데 풍잠은 대부분 색감이 아름다운 호박 풍잠이 대부분이다.
육지 망건의 경우에도 마무리를 제작한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좀더 치
밀하고 꼼꼼한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망건이 다 완성이 되면 돌돌돌 말아서 흑칠이나 주칠을 한 망건통에
넣어 보관하였다. 그러나 망건을 착용하는 사람이 없어지듯이, 망건통
을 만드는 사람조차 없어서, 완성된 망건은 돌돌돌 말아둘 뿐이다.

종이로 만든 각종 망건통, 조선후기, 개인 소장



4 망건장의 전승과 국가 지원

망건장은 1980년 10월에 이종석·김종태 양 문화재전문위원의 조사를 거쳐, 1980년 11월 17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으로 지정되었다.⁹¹⁾ 두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 망건장을 조사할 때 지역을 나누어 이종석 전문위원은 제주에 거주하는 이수여를, 김종태 전문위원은 전남 김제에 거주하는 임덕수를 면담 조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1980년에 이르면 망건을 짜는 기능을 지닌 장인들은 전국적으로 겨우 한두 명만 보일 정도로 그 명맥이 거의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망건장으로 인정된 보유자의 지역적 특성 및 망건 기술의 전승과정을 살펴 보며, 아울러 이들 장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한다.

91) 문화재청의 『중요무형문화재 관리대장』에는 1980년 10월의 조사자로李宗碩 문화재전문위원만 등재되어 있으나, 이종석 전문위원은 이후 『약보고서-갓일·망건장·탕건장』을 내었을 뿐 본격적인 조사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조사보고서』 제140호 『망건장』의 조사자 및 보고서 작성자는 金鍾太 문화재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양자가 함께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1. 망건장의 전승

망건장은 지역에 따라 솜씨가 달랐으며, 완성된 망건은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민요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⁹²⁾

“서울은 편자요 / 서성(논산)은 뒤요
사재(황등)는 앞이요 / 김제는 당일세”

위 민요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망건 짜기의 특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 제작한 망건은 편자를 짜는 솜씨가 제일이었다. 한편 논산에서는 망건의 뒤를 짜는 솜씨가 일품이었으며, 황등에서는 망건의 앞을 짜는 데 솜씨가 있었다. 그밖에 김제에서 짠 망건은 특히 당 걸기를 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말엽에 망건의 제작지로 유명하였던 곳은 망건의 착용자가 많았던 서울을 비롯하여, 말총의 구입이 용이하였던 제주와 김제 등지였다. 단발령이 내려진 이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망건의 착용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망건장의 숫자도 마찬가지로 격감하였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계층에서는 옛 방식대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가끔 망건을 찾는 수요가 있긴 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망건의 재료가 되는 말총의 생산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92) 金鍾太, 『網巾匠』, 343쪽.

1) 육지의 망건장, 임덕수와 그의 제자

해방 이후 육지에 거주하면서 망건을 제작하는 장인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최근 1963년대 중반부터 대구에서 ‘입자공업사’라는 대규모 갓 도매상을 하던 정춘모씨가 거래하던 장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곳에서 몇몇 망건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 주목된 장인은 전남 김제군에 거주하던 서제규였는데, 그는 망건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갓 소매상을 하였던 장인이었다.⁹³⁾ 한편 충남 상월면에 거주하는 이원재도 망건을 제조할 줄 아는 장인이었다.⁹⁴⁾ 이들은 모두 내륙지방의 망건장이었으며, 특히 서제규는 조선시대부터 망건의 제작지로서 유명하였던 김제의 장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이들 장인들은 1970년대까지는 간간히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후 그들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80년에 망건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할 즈음에는 이미 사망하였거나 망건 작업을 그만 두었던 것 같다. 그 결과 1980년에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 중 망건장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 조사를 한 결과 전북 완주군에 살던 임덕수(1905 ~1985)를 보유자로 인정하였다.⁹⁵⁾

임덕수 보유자는 1918년 경에 어머니에게 망건 제작법을 배웠고, 이후 망건의 수요가 격감하면서 살 길이 막막해서 1929년부터는 망건을 짜던 능숙한 솜씨로 짚신이나 미투리를 제작하여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다

93) 『정춘모 거래장부』에 의하면 서제규는 김제군 성덕면 대목리 탄하부락에 거주하였으며, 망건을 제작하였고 소규모 갓상을 경영하고 있었다.

94) 『정춘모 거래장부』, 李元在는 충남 상월면 대명리에 거주하였던 망건장이다.

95) 林德朱 보유자는 1903년 1월 1일에 전북 완주군 봉동면 381번지에서 태어나 계속 그곳에서 살았다. 1980년 11월 17일에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1985년 1월 25일에 사망하였다.

가 1980년에 주위의 권유로 전통공예전에 출품하여 망건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이 상이 계기가 되어 1980년 7월에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정 조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임덕수 보유자는 1981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롯데쇼핑센터 7층 문화행사장에서 열린 <전승공예전>에 출품하여,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았다. 곧이어 1981년 11월 3일부터 11월 30일부터 민속박물관에서 <제6회 전승공예전>에도 참여하였다. 그의 이력 중에서 특기할 사항은 1981년 12월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망건장> 기록영화를 16mm 컬러 3권품(30분)으로 만들어 두었던 점이다.⁹⁶⁾ 현재 이 기록영화의 네가 원본은 국립영상물간행제작소에 보관되어 있고, VHS로도 만들어서 보급하여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어서 그의 생전의 작업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망건장 기능의 전승과 관련하여 임덕수 보유자의 제자는 김현순과 양진숙 2인이 있었다. 그녀들이 함께 망건을 배우기 시작한 시기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였다. 당시 문화재위원이던 유희경 교수가 대학원 수업시간에 망건장을 조사하여 지정하였지만 제자가 없어서 대가 끊어질 것 같다는 말에 자극을 받아서였다. 그 후 그녀들은 김종태 문화재전문위원의 소개로 전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30~40분 이상을 더 들어가야 했던 강시골인 전북 완주군 봉동면을 찾아가는 것이다. 임덕수 보유자에게 1982년 1월부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회에 10여일 이상씩 머물면서 망건짜는 일을 배웠다. 처음 찾아 갔을 당시 보유자는 귀찮아서 제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김종태 전문위원이 재차 연락을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자 비로소 제자로 받아들여 망건 제작

96) 1981년 12월에 납품하였으며, 총 제작비는 3,557,000원이 소요되었다.

법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완주에 내려가면, 보유자는 동네의 목공소나 대장간에 부탁을 하여 망건골과 당골을 맞춰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또 삼을 엮어 만든 당골 덮개와 삼으로 만든 사리개줄 등은 보유자가 직접 마련해준 도구들로서, 당시 동네에 지천으로 널려 있던 삼으로 만들어준 것이지만, 현재는 매우 희귀한 재료인 것이다.

그녀들은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매월 1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전수장학생이 되면서 보유자에게 배운 내용은 분기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보내곤 하였다. 예컨대 편자짜기를 10여 일 배우면 문화재관리국에 그 내용을 보고서로 써 보냈던 것이다. 바닥뜨기의 경우 1바퀴를 짜 올라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기도 하였으며, 앞뒤 뜨기는 1달 정도 걸렸다. 그보다 어려운 것은 당 걸기로서 순서를 익히는 데만 6개월이 소요되었다.

전수장학생이 보유자에게 전수를 다 마치고 이수생이 되는 시점은 원래 5년이다. 그러나 임덕수 보유자가 1985년 1월에 사망을 하게 되자, 국가에서는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망건장의 기술이 보존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82년 1월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1985년 1월까지 만 3년을 배운 양진숙과 김현순을 1986년 2월 28일에 이수 조치를 하였으며, 1990년 10월 10일에는 양진숙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하였다. 이후 양진숙은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제7회부터 제9회까지 전승공예대전에서 입선을 하였으며, 1985년 9월에는 <제10회 전승공예전>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처럼 육지 망건을 제작하는 장인으로는 전북 완주군 봉동면에 사는 임덕수가 1985년까지 활동을 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의 보



육지망건 기록영화 촬영장면

유자로 인정되었다. 1985년에 그가 사망한 이후 전수장학생이었던 양진숙은 망건 짜는 작업을 꾸준히 계속하여 1990년에는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어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진숙과 함께 대학원을 다니고 완주까지 가서 보유자에게 사사를 받았던 김현순의 경우 현재는 망건 짜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가 망건 제작을 그만 두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말총은 모두 제주의 이수여 보유자에게 보내었다.

육지 망건장의 기능을 전수 받은 양진숙의 경우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매년 <전승공예전>에 '망건'을 출품하는 등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2001년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망건장'의 영상물을 제작할 때에 제주에서 망건을 짜는 방법과 상이점이 보이는 육지 망건의 제작과정을 직접 실연해 주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2) 제주의 망건장, 이수여와 그녀의 딸

제주도의 제주시 삼양동에 사는 이수여는 13세부터 망건을 만들던 장인이다. 1980년대에 이종석 전문위원이 제주의 망건장을 조사하였을 당시 유일하게 망건을 제작할 수 있었던 장인이었다.⁹⁷⁾ 그렇기 때문에 1985년 임덕수 보유자가 사망하자 1986년에 그를 조사하여 망건장의 보유자로 인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에는 원래 말목장이 많은 지역이어서 말총 또한 풍부하게 생산되어, 이 곳에서는 망건을 비롯하여 탕건이나 총모자까지 제작하였다. 이처럼 망건 제작이 성행하면서 망건과 연관되는 민요도 유행하였다.

〈망건노래〉

나 멩긴아 나 멩긴아

한간에는(한편에는) 옷 믿은 멩긴

한간에는 밥 믿은 멩긴

정이(旌義; 현 표선면 성읍리) 좁쌀 다 믿은 멩긴

함덕(조천면 함덕리) 짚석 다 믿은 멩긴

일천 시름 다 믿은 멩긴⁹⁸⁾

97) 이종석, 『1. 갓길, 탕건장, 망건장』, 1980.9. 12쪽, 16쪽. 당시 망건의 조사 대상자는 임덕수를 비롯하여 오송죽, 김공훈, 이수여 등이었다. 이 중 김공훈은 망건 중 편자짜기만 가능하였고, 이수여의 경우 망건이 특기인데 말총으로 짜는 부분만 제작할 수 있었을 뿐이다. 즉 임덕수만 비단으로 선을 두르고 편자짜기 장식하는 완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98) 秦聖巖, 『南國의 民謠』 (제주민속연구소, 1991), 148쪽, 7. 망건노래 <293번> 1956. 8. 조사 당시 제주시 삼양동 진유생 (조사당시 79세)



망건장 전수 장면



제주망건 기록영화 촬영장면



강전향 조교에게 전수하고 있는 이수여 보유자

위 노래를 보면 제주 지역에서 망건은 생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여인들의 부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망건을 만들어 팔면 쌀이나 옷, 좁쌀이나 짚석까지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망건을 제작하면서 바다나 객지에 나가 죽은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원망이나 사념을 잊곤 했다.

〈망건 노래〉

이 멩긴아 장 불 매 나라
 한 달 죽장 시 백인 멩긴
 장 또 장 시 백인 멩긴



이수여 망건장 인정서

건을 익히기 시작하여, 현재 전수조교로 인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1년에 기록영화를 찍으면서 편자짜기는 그녀가 전 과정을 실연하였으며, 어머니의 뒤를 이어 제주 망건의 전통을 전수 받고 있다.

요 맹긴아 요 맹긴아
갈막 갈막 걸려 나지라
매주기랑(꾸리는) 입 넘영(넘어서) 가라^ㄹ)

위 민요와 마찬가지로 이수여 보유자는 4.3 사태로 홀로 된 시름을 망건을 짜면서 잊었을 것이다. 이수여 보유자의 유일한 혈육은 무남독녀인 딸 강전향 뿐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우며 어깨 너머로 망

99) 『南國의 民謠』, 148쪽. 7. 망건노래 (204번) 1956. 8. 조사 당시 제주시 삼양동 진유생 (조사당시 79세)

2. 망건장에 대한 국가 지원

망건은 보통 쌀 1가마니 값에 해당되었다. 양진숙 조교가 임덕수 보유자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전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망건은 너댓명이 분업을 해서 찼다고 한다. 즉 편자 찌는 사람, 바닥 뜨는 사람, 당 거는 사람, 관자를 달고 공단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작업을 한 것이다.

해방 이후 망건의 수요는 거의 끊어졌으나 1970년대 중반에도 가끔 판매가 되고 있었다. 정춘모씨의 장부에 의하면 제주도의 중간 상인 장재권 씨에게 1975년 2월 6일에 망건 3개를 구입하였는데, 한 개에 2,000원씩 총 6,000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소포비는 50원이었다. 같은 해 4월 9일에도 2,000원짜리 망건 3개를 6,000원에 구입하고 있었으며, 5월 7일에도 마찬가지로 2,000원씩 3개를 구입하고 있었다.

1975년 경에는 망건은 착용하지 않더라도 갓과 탕건은 썼기 때문인지, 망건의 주문은 없고 제작도 안 하고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탕건보다 높은 값을 받았다. 가장 좋은 상품의 탕건은 1개에 600원이었던 데 비해 망건은 1개에 2,000원으로서 3배 이상이나 값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중간 품질의 탕건은 400원, 하품의 탕건은 350원이었기 때문에, 망건 1개에 2,000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싼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태의 값과 망건의 값을 비교해 보아도 망건이 비싼 값에 팔린 것을 알 수 있다. 1975년 1월 29일에 큰 양태는 400원 정도이고, 작은 양태는 150원 정도였다. 당시 큰 양태의 값은 망건값 2,000원에 비하면 1/5 수준이었고, 작은 양태는 1/15 정도였다. 양태 중에서 최고급 품질의 것으로

1974년 12월 25일에 주문한 맞춤 양태의 경우 큰 것이라도 1,600원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해방 이후 망건은 극히 적은 수량만이 유통되었을 뿐이어서 꽤 높은 값을 쳐 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망건은 제작을 해도 판매가 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갓이나 탕건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고, 임덕수를 그 보유자로 인정해서 전승지원금까지 지급해 주면서 전승을 장려하였다.

국가에서 임덕수 보유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었다. 임덕수 보유자는 1981년에는 생계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11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1982년에는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공예 종목의 경우 그해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7회 전승공예전>에 출품하여 장려금으로 200,000원을 지급 받았다. 한편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취약종목에 해당되어 특별장려금으로 월 80,000원을 지원 받았다.

1983년과 1984년에는 보유자에 대한 생계보호비로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1983년 9월 27일부터 10월 24일에는 <제8회 전승공예전>에 출품하여 100,000원을 지원 받았으며, 1984년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9회 전승공예전>에 출품하여 출품장려금으로 200,000원을 지원 받았다. 그런 이듬해 1월 25일에 사망하여 장례보호비로 500,000원을 지원 하였다.

육지의 망건장이었던 임덕수 보유자가 사망하자, 제주에 거주하는 이수여가 1987년 1월 5일에 보유자로 인정되어 매월 250,000원을 생계보호비로 지급 받고 있다. 그녀는 그해 제12회 <전승공예대전>(1987.9.25~10.30)에 출품하여 출품 장려금으로 보유자는 450,000원을 받았고, 이

수자였던 강전향은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국가가 보유자의 생계와 품위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생계보조비는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었다. 시기가 올라가면 망건장은 망건 한 개를 쌀 한 가마니로 팔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비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만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수여 보유자에게 실제 지급된 액수를 살펴보면, 1988년부터 월 250,000원, 1989년에는 350,000원, 1990년에는 400,000원, 1991년에는 450,000원 그리고 1992년에는 500,000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에서조차 이 생계보조비란 명목에 대한 논의가 있어 그 명칭을 1993년부터는 전승지원금으로 바꾸어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에는 전승지원금으로 매월 500,000원, 1994년에는 550,000원을, 1995년에는 600,000원을, 1996년에는 650,000원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특별장려금을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전승지원금은 1997년에는 700,000원을, 1998년 이후 현재까지는 900,000으로 동결되어 지급되었다.

그러나 명목만 전승 지원금일 뿐, 현재 대부분의 보유자들은 여전히 생계 보조비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여 보유자 또한 이제는 자신의 딸이나 손녀 외에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전승을 위해 전승금을 지급한다는 명분 자체의 실효가 과연 있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듯하다.

아울러 공예 종목의 기능 보유자들은 <전승공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면 국가에서는 ‘출품 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지원을 했으며, 이 또한 매년 조금씩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액수는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보유자 각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

으며, 그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보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월 지급되는 생계 보조비 혹은 전승 지원금이 월급이라면 이러한 장려금이나 특별 지원금은 일종의 보너스를 받는다는 느낌인 것이다.

한 사례로, 1992년부터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에 출품하면 출품 장려금을 지원받아서 그해에는 450,000원을, 1993년에는 350,000원을, 1994년에는 495,000원을, 1995년에는 700,000원을 받았다. 1996년부터 전시회에 출품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국가에서는 보유자의 작품을 구입하는 정책을 펼쳐 이후 2000년까지 매년 300,000원을 주고 망건1 개씩을 구입하였다. 이렇게 구입한 망건은 국립민속박물관을 비롯한 각급 박물관에 기증하여 전시하기도 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 기증된 망건은 교육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00년과 2001년에는 다시 <보유자 작품전>에 출품하면서 출품 장려비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수여 보유자를 비롯한 현재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시기별로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제1기에 해당되는 1960년대~1970년대에는 보유자의 생계만이라도 근근이 유지시키고자 생계 보조비라는 소극적인 지원이 강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는 1980년대~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보유자의 기·예능을 전승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승이 활발한 보유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승지원금'으로 명목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매월 국가가 월급을 준다는 인식이 보유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그 결과 1998년 이후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국가 조직이 증·개편됨과 동시에 중요무형문화재

전체를 되돌아볼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국가는 무형문화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21세기에는 보유자 일개인에 대한 생계 유지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기·예능을 오롯이 후세에게 전수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금액도 과감히 늘려야 한다. 무형문화재는 국보나 보물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유형 문화재가 아니어서 그동안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제1세대와 제2세대 보유자가 사망하고, 제3세대가 되어도 앞세대가 지니고 있던 그대로의 기술이 전수되고 전승될 방안을 마련할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생계비가 아니라 전승비여야 하고, 전수를 많이 하는 보유자에게 특혜가 돌아가고, 배울 사람이 없는 종목은 국가가 나서서 정책 종목으로 선정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등에 위탁 교육을 해서라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원형 보존과 보급 대책이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형문화재의 앞날은 바로 이 '망건장' 과 같이 사라져 버릴 공예기술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공예기술로서 21세기에도 생존하는가에 의해 무형문화재 정책 개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록】

조선시대 도감에 차출된 관자장 현황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례
1624	13734 三房	祭器樂器都監 貫子匠 張承吉, 希男, 孟男
1634	14915 五所	昌慶宮修理都監 諸色工匠 貫子匠 石孟男
1645	13062 一房 三房	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 諸色匠人秩 貫子匠 鄭海, 石孟男 工匠秩
1645	13918 三房	貫子匠 石孟男, 白得崔 昭顯世子禮葬都監都廳 諸色工匠京居秩 貫子匠 石益男
1649	13067 一房 三房	顯宗王世孫冊禮都監 諸色匠人秩 貫子匠 石孟男, 白得水 匠人秩
1649	13521 二房	貫子匠 石孟男 仁祖國葬都監 工匠秩 貫子匠 趙起孫 三房 匠人秩 貫子匠 石孟男
1651	13064 一房 三房	孝宗仁宣后中宮殿受冊時冊禮都監都廳 匠人秩 貫子匠 白得崔 匠人秩 貫子匠 石孟男, 韓石壁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651	13068	顯宗世子冊禮都監 一房 匠人秩 貫子匠 石孟男 三房 匠人秩 貫子匠 韓石璧, 石孟男
1651	13071	顯宗明聖后嘉禮都監 一房 工匠秩 貫子匠 金善立 二房 工匠秩 貫子匠 韓石璧 三房 匠人秩 貫子匠 石孟男
1651	13252	仁祖莊烈后尊崇都監都廳 一房 諸色匠人秩 貫子匠 白得崔 三房 諸色匠人秩 貫子匠 韓石璧
1651	13255	仁祖妃莊烈后二尊孝宗妃仁宣王后尊崇都監 一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鄭希 二房 匠人秩 貫子匠 鄭尙立
1651	13522	仁祖大王仁烈王后 廟都監 二房 匠人秩 貫子匠 金得
1659	13527	孝宗國葬都監 二房 匠人 貫子匠 成信龍 三房 工匠秩 貫子匠 鄭希 都監別單 貫子匠 成信龍 等 二名 (三等)
1661	13073	顯宗明聖后中宮殿受冊時冊禮都監 一房 諸色匠人秩 貫子匠 鄭希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례
1661	13529 一房	孝宗 廟都監 諸色工匠秩 貫子匠 鄭希, 成信龍
1667	13076 一房	肅宗世子受冊時冊禮都監 匠人秩 貫子匠 鄭尙立, 姜戒賢, 秋吉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朴大『』, 金三立
	1667 一所	14224 永寧殿改修都監 工匠秩 貫子匠 朴大振, 朴戒善, 鄭尙立, 成時望, 李大善, 趙貴同, 金孫伊
	三所	各色工匠 貫子匠 成時望, 鄭業善, 韓順石
1669	13496 一房	神德王后 廟都監都廳 諸色工匠秩 貫子匠 鄭尙立
1671	13078 一房	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 工匠秩 貫子匠 鄭『古』立, 南永俊
	二房	工匠秩 貫子匠 姜戒賢, 韓順明, 韓順石, 崔世建
	三房	匠人秩 貫子匠 姜信香, 鄭業先
1673	13532 一房	孝宗寧陵遷陵都監 都監 別單工匠 貫子匠 成信龍 (以上 二等) 貫子匠 金叱同等 六名 (以上 三等) 工匠秩 貫子匠 金同伊, 禹愛金, 崔世建 (以上 京)
	二房	工匠秩 貫子匠 成信龍
	三房	工匠秩 貫子匠 鄭尙立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례
1673	13533	孝宗寧陵遷陵都監殯殿所 內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崔世建, 李善立
1674	13540	顯宗殯殿都監 嬪宮 別工作 貫子匠 南成俊 魂殿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南成俊
1674	14865	仁宣王后國葬都監 都監 工匠別單 貫子匠 崔世建 等 二名 (以上 二等 八十四) 貫子匠 禹愛金 等 三名 (以上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禹愛金, 崔世建, 韓英雄 (以上 京) 二房 工匠秩 貫子匠 成信龍 附論賞 工匠秩 貫子匠 崔世建
1675	13539	顯宗國葬都監 都監 諸色工匠別單 貫子匠 韓永雄 等 三名 (以上 三等) 一房 匠人秩 貫子匠 韓英雄, 崔世建 (以上 京居)
1676	13082	肅宗仁敬王后中宮殿受冊時冊禮都監都廳 一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南星俊 二房 諸色匠人秩 貫子匠 崔世建, 禹愛金 三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金時男, 柳得
1676	13258	仁祖莊烈后三尊號顯宗明聖后上尊號都監都廳 一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南星俊, 崔金 二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崔世建, 禹愛金 三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禹愛金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676	13541	顯宗 廟都監 一房 工匠秩 貫子匠 南星俊 三房 諸色匠人秩 貫子匠 禹愛金, 崔世傑
1677	14353	南別殿重建廳 一所 工匠秩 貫子匠 韓汝雄
1677	14896	明聖王后尊崇都監 一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南星俊, 崔金 二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崔世建, 禹愛金 三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禹愛金
1681	13084	肅宗仁顯后嘉禮都監 都監員役工匠醫女等別單 工匠秩 貫子匠 禹愛金 等 五名 (三等) 二房 工匠秩 貫子匠 禹愛金, 金六善, 李守貞 三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劉得伊, 鄭仲吉
1681	13553	仁敬王后國葬都監 都監 別單 諸色工匠別單 貫子匠 金斗延 等 三名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金斗延 (京) 二房 工匠秩 貫子匠 柳, 金 英
1681	13554	仁敬王后殯殿都監 魂殿 造成所 諸色 匠人秩 貫子匠 崔世傑 魂殿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金六善, 柳得只
1683	14927	太祖謚號都監 一房 工匠秩 貫子匠 金 英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례
1684	13544	明聖王后殯殿都監 魂殿 造成所 諸色工匠秩 貫子匠 崔世傑 魂殿 別工作 諸色工匠秩 貫子匠 韓永雲
1684	14869 二房	明聖王后國葬都監 工匠秩 貫子匠 柳先 , 金六善
	三房	工匠秩 貫子匠 姜床
1686	13262 一房	仁祖莊烈后四尊號尊崇都監 諸色工匠秩 貫子匠 劉得
	二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禹愛金, 金六善
	三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柳得伊
1686	13545 一房	明聖王后 廟都監 諸色工匠秩 貫子匠 金斗延 (京)
1687	14210	仁祖莊烈后冊寶修改都監 都監 工匠別單 貫子匠 劉得 (3등)
	二房	匠人秩 貫子匠 劉得
1688	14867 一房	仁祖莊烈后國葬都監 工匠秩 貫子匠 柳善 , 金六善
1690	13091 一房	景宗世子受冊時冊禮都監 都監 工匠別單 貫子匠 安汝雄 等 二名 (2등) 貫子匠 崔世建 等 二名 諸色工匠秩 貫子匠 崔世建, 金善明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690	二房	諸色匠人秩 貫子匠 柳善得
	三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韓汝雄, 柳善, 金益武 別工作 匠人秩 貫子匠 盧江床伊
	13201	玉山大嬪陞后受冊時冊禮都監都廳 都監 工匠醫女 別單 貫子匠 韓汝雄 等 四名 (2등)
	一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韓汝雄, 柳善得, 金益武, 崔世建
1694	三房	貫子匠 金有楨, 劉士立
	13086	肅宗仁顯王后冊禮都監 都監 工匠醫女 等 別單 貫子匠 金益武 等 五名 (三等)
	一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金益武, 金有廷, 柳善
1696	三房	貫子匠 韓汝雄, 崔世建
	13092	景宗端懿后嘉禮都監 都監 工匠醫女 等 分等 別單 貫子匠 柳先 等 八名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柳先, 李守廷
	二房	工匠秩 貫子匠 崔世傑, 韓永雄
	三房	諸色匠人秩 貫子匠 盧戒業, 盧江山, 禹可也之, 李檢同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李小智, 金順善
1698	13503	端宗定順王后復位 廟都監 都監 工匠 別單 貫子匠 林業 等 五名 (三等)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례	
1701	一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林 業, 知太輝, 金단善, 劉得善, 崔世傑	
	三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劉善得	
	13555	仁顯王后國葬都監 都監 諸色 工匠別單 貫子匠 崔世建 等 四名 (三等)	
	一房	貫子匠 崔世建 (石橋契)	
	二房	工匠秩 貫子匠 金六信, 柳善得	
	三房	匠人秩 貫子匠 盧江床, 洪尙益	
1701	13556	仁顯王后殯殿都監 殯殿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沈二善, 朴者斤老味 殯殿魂殿 兩都監 諸色工匠 分等別單 貫子匠 沈二善 等 二名 (三等) 魂殿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沈二善	
	1702	13089	肅宗仁元王后嘉禮都監 都監 員役 工匠 醫女 等 分等 別單 工匠秩 貫子匠 盧江床 等 二名 (二等) 貫子匠 韓世建 等 三名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柳先 , 宋殷昌
		二房	工匠秩 貫子匠 崔世建, 朱皙明, 韓永雄
		三房	工匠秩 貫子匠 盧江床, 李檢同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申應忠, 嚴迪, 姜者斤, 韓士龍, 金終先, 崔永輝, 金尙建, 鄭斗光, 金立, 姜翊周, 金於叱金
		1703	13578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705	14211	金寶改造都監 都監 工匠 別單 貫子匠 柳善得 (三等) 二房 工匠秩 貫子匠 柳善得
1713	13267	肅宗初尊崇都監 貫子匠 朴世萬 等 三名 (三等) 一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趙泰永, 金同伊 二房 工匠秩 貫子匠 金俊發, 洪尙益 三房 工匠秩 貫子匠 朴世萬
1713	13995	御用圖寫都監 尙衣院 工匠 別單 貫子匠 金振發 等 二名 (一等) 貫子匠 洪尙益 等 三名 (二等)
1718	13094	景宗宣懿后嘉禮都監 都監 工匠 醫女 等 分等 別單 貫子匠 高萬柱 等 六名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劉善 (訓練都監 匠人) 二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洪尙巾, 洪尙益, 金贊錫 (訓局) 三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黃大俊, 金世賢, 高萬柱 (以上 私匠)
1718	13494	昭顯世子嬪姜氏復位宣謚都監 三房 本房使役 匠人秩 貫子匠 洪尙益, 裊太山
1718	13573	端懿嬪禮葬都監 一房 工匠秩 貫子匠 李三建 (私工, 議政府 內契) 二房 工匠秩 貫子匠 柳善得 三房 本房 使役 匠人秩 貫子匠 裊泰山, 洪尙益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718	13574	端懿嬪魂宮都監 造成所 匠人秩 貫子匠 權貴同
1720	13548	肅宗國葬都監 一房 工匠秩 貫子匠 黃大俊 二房 工匠秩 貫子匠 柳善 三房 工匠秩 貫子匠 車有贊, 蔣於叱丕伊, 洪尙仁
1720	13550	肅宗魂殿都監 諸色工匠分等 別單 貫子匠 崔石己 (三等) 魂殿 造成所 諸色工匠秩 貫子匠 金壽贊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崔石己
1721	13099	英祖王世弟受冊時冊禮都監 都監 工匠等 分等別單 貫子匠 趙太興 等 四名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趙太興, 柳先, 洪尙漢 (訓局) 二房 諸色匠人秩 貫子匠 崔碩起 (尙方) 三房 諸色匠人秩 貫子匠 洪尙益, 金贊石, 柳五根 (以上 訓局)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金俊光
1722	13097	景宗端懿王后復位時冊禮都監 都監工匠 別單 貫子匠 裊斗乙伊 (三等) 一房 匠人秩 貫子匠 趙得, 金稔石 (尙方) 二房 匠人秩 貫子匠 裊丕屎 (私匠) 三房 工匠秩 貫子匠 金贊石, 洪尙益, 趙太英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례
1722	13277 三房	仁元王后尊崇都監都廳 工匠秩 貫子匠 金二丕
1722	13551 一房 三房	肅宗 廟都監都廳 都監 工匠 別單 貫子匠 金二丕 (三等) 匠人秩 貫子匠 趙 , 金砗石 (以上 工曹) 工匠秩 貫子匠 金二丕, 金贊石
1724	13566 一房 二房	景宗國葬都監 工匠秩 貫子匠 黃大俊 (摠戎廳) 工匠秩 貫子匠 柳善得 (訓局)
1724	13567	景宗殯殿都監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崔石已
1724	13568	景宗魂殿都監 魂殿都監 諸色工匠 分等 別單 貫子匠 吳立伊 等 二名 (三等) 魂殿都監 造成所 諸色工匠秩 貫子匠 金壽贊
1725	14909 一房 二房 三房	眞宗世子受冊時冊禮都監 都監 工匠等 分等 別單 貫子匠 崔德三 等 三名 (三等) 工匠秩 貫子匠 崔德三 (私匠), 盧世萬 (工曹) 諸色工匠秩 貫子匠 金俊發 (訓局) 諸色工匠秩 貫子匠 柳善得, 金贊成 (以上 訓局)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金俊善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726	13100	英祖貞聖后復位時冊禮都監都廳 冊禮都監 工匠 別單 貫子匠 金贊石 等 四名 (三等)
	一房	匠人秩 貫子匠 趙太永 (訓局)
	三房	匠人秩 貫子匠 趙太永
1726	13280	肅宗仁元王后景宗宣懿王后尊崇都監都廳 都監 工匠醫女 別單 貫子匠 洪尙益 (三等)
	一房	匠人秩 貫子匠 趙太永 (訓局)
	二房	匠人秩 貫子匠 洪尙益 (訓局)
1726	13569	景宗端懿王后 廟都監都廳 工匠秩 貫子匠 趙太永 (訓局)
	一房	
1727	13105	眞宗孝純后嘉禮都監 都監 工匠醫女 等 分等 別單 貫子匠 洪尙仁 (以上 一等) 貫子匠 權萬秋 (二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洪尙仁 (尙方), 權萬秋 (私匠), 金末石 (訓局)
	二房	匠人秩 貫子匠 洪尙益, 金贊石 (以上 訓局)
1728	14875	孝章世子禮葬都監 工匠秩 貫子匠 柳先得 (訓練都監)
	二房	諸色工匠 貫子匠 劉善弼 (訓練都監), 黃尙彬, 黃老味 (以上 私匠)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730	13576	宣懿王后國葬都監 都監 諸色工匠 別單 貫子匠 洪尙益 等 三名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黃大俊 (摠戎廳)		
		二房 工匠秩 貫子匠 金俊發 (訓練都監)		
		三房 匠人秩 貫子匠 洪尙益 (訓局)		
		1731	14597	仁祖長陵遷陵都監 書啓 都監 諸色工匠 別單 貫子匠 黃大俊 等 二名 (二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黃大俊 (摠戎廳), 金時建 (私匠)
				二房 工匠秩 貫子匠金俊發 (訓局)
		三房 典設所 匠人秩 貫子匠 金德周 (私匠) 內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金大老味, 金重江		
		1735	14947	玉印造成都監 該房 諸色工匠秩 貫子匠 李汝順 (尙方)
1736	13108	莊祖世子受冊時冊禮都監 都監 工匠 別單 貫子匠 金贊石 等 二名 (三等)		
		一房 諸色 工匠秩 貫子匠 黃大興 (御營廳), 曹興柱 (御營廳)		
		二房 諸色 工匠秩 貫子匠 鄭惡金		
		三房 諸色 工匠等秩 貫子匠 金贊石, 徐浚益 (以上 訓局)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崔占山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뢰
1739	13506 一房	端敬王后復位 廟都監 諸色工匠秩 貫子匠 扈老味(二橋項), 劉成明(司宰監契)
1740	13286 一房 二房	仁元王后五尊號尊崇都監 諸色工匠秩 貫子匠 安世興 工匠秩
1744	13109 一房 二房 三房	莊祖獻敬后嘉禮都監 都監 工匠 貫子匠 徐益俊等二名(二等) 貫子匠 裊德昌等六名(三等) 本房 使役 工匠秩 貫子匠 曹興柱, 金世昌(以上 私匠) 工匠秩 貫子匠 沈宗周, 裊昌海(以上 私匠) 工匠秩 貫子匠 徐益俊, 黃載元(以上 御營廳), 林世輝(私匠)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金二龍, 李三萬
1745	14264	樂器造成廳 殿庭樂器 造成廳 別單 貫子匠 李德昌等二名(三等)
1747	13288 一房	仁元王后六尊號尊崇都監 諸色工匠秩 貫子匠 金聖才, 金時已(以上 私匠)
1748	13997	影幀模寫都監 模寫都監 工匠別單 貫子匠 金太卜(二等) 貫子匠 元益太(三等)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元益泰, 金泰福
1748	14913	眞殿重修都監 工匠秩 貫子匠 金必命, 申斗起, 李時興, 申老味(以上 私匠), 鄭遇周(禁衛營), 蔣太信(訓練都監)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751	三房	工匠秩 貫子匠 金福成(私匠) 懿昭世孫受冊時冊禮都監
	13199	都監 工匠 別單 貫子匠 金老味 等 二名(三等)
1751	一房	諸色 工匠秩 貫子匠 金老味, 崔道文
	14836	孝純賢嬪廟所都監 三物所 工匠秩 貫子匠 李有福
1752	13292	肅宗仁元后尊崇都監
	一房	諸色 工匠秩 貫子匠 車世大
1752	14259	懿昭廟營建廳 營建廳 工匠 別單 貫子匠 李成福 等 三名(三等)
	1752	14838
14874		孝純賢嬪禮葬都監 二房 工匠秩 貫子匠 李春喜(訓局)
1753	13294	肅宗仁元后加上尊號都監 諸色 工匠秩 貫子匠 金必命, 金時弘, 鄭道京, 趙陽彬, 陳守大(以上 私匠)
	14925	淑嬪上謚封園都監 冊印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李於叱同
1753	14926	淑嬪上謚封園都監 謚封院都監 冊印造成所 別單 貫子匠 李於叱同(三等) 上謚封院都監 別單 造成所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례
1755	13269	貫子匠 朴太成 等 二名 (二等) 造成所 工匠秩 貫子匠 朴太成, 金老味 (三等) 肅宗尊崇都監 都監 工匠別單 貫子匠 李有相 等 二名 (二等) 貫子匠 金有起 (三等) 一房 工匠秩
1755	13295	貫子匠 金必命, 鄭道京, 金時弘 (以上 私匠) 肅宗仁元王后十尊崇都監 都監 工匠 別單 貫子匠 李有相 等 二名 (二等) 貫子匠 金有起 (三等) 一房 工匠秩
1755	13493	貫子匠 金必命, 金時弘, 鄭道亨 (以上 私匠) 順懷世子上諡封園都監 園所 造成所 工匠秩 貫子匠 金老味, 朴太成 (以上 私匠) 冊印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徐益俊 (訓局) 園所別工作 工匠秩
1757	13557	貫子匠 金必萬 仁元王后國葬都監 都監 諸色工匠 別單 貫子匠 李得新 (二等) 貫子匠 金福祥 等 二名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徐興大, 洪宇光 (以上 私匠)
1757	13559	仁元王后魂殿都監 魂殿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金俊成
1757	13560	仁元王后山陵都監 山陵都監 別單 造成所 貫子匠 李命福 等 三名 (三等) 別工作 貫子匠 朴秀明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757	13589	<p>造成所 工匠秩 貫子匠 李命卜, 金二才, 金世必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朴秀明 貞聖王后國葬都監 都監 諸色 工匠 別單 貫子匠 李得新 (二等) 貫子匠 金福祥 等 二名 (三等) 工匠秩 貫子匠 金福祥, 金聖基, 李得新 工匠秩 貫子匠 金老味 (私匠)</p>
1757	13590	<p>貞聖王后殯殿都監 殯殿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金俊興, 李二奉 魂殿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金俊先</p>
1757	13591	<p>貞聖王后山陵都監 山陵都監 別單 別工作 貫子匠 朴秀明 (二等) 造成所 貫子匠 金鼎漢 等 五名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朴秀明 (三等)</p>
1759	13102	<p>英祖貞純后嘉禮都監 都監 工匠 別單 貫子匠 朴龍得 等 五名 (三等) 工匠秩 貫子匠 金老味 工匠秩 貫子匠 金順老味, 李卜伊 工匠秩 貫子匠 朴龍得, 李億萬, 徐興大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李貴萬</p>
1759	13112	<p>英祖王世孫冊禮都監 工匠秩 貫子匠 崔芑屎</p>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762	三房	工匠秩 貫子匠 金順老味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崔二碩
	13114	正祖孝懿后嘉禮都監 本廳 工匠 別單 貫子匠 李聖福 等 七名 (三等)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崔云世
	一房	工匠秩 貫子匠 李聖福
	二房	工匠秩 貫子匠 金道成, 徐興大, 崔齊恒, 吳太恒, 李始同, 宋千命 (以上 私匠)
1762	13605	思悼世子禮葬都監 都監 工匠 別單 貫子匠 金成輝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金老味, 李占同
	三房	匠人秩 貫子匠 金聖輝
1762	13606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 魂宮 二房 造成所 貫子匠 朴春三
1764	13631	垂恩廟營建廳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金大得, 安大輝, 崔三土里
1772	13296	顯宗追尊號英祖四尊號上號都監 號都監 別單 貫子匠 金成起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金聖起, 金福尙 (以上 私匠)
	二房	工匠秩 貫子匠 魯尙郁, 朴大元 (以上 私匠)
1772	13490	毓祥宮上謚號都監 二房 工匠秩 貫子匠 金老味 (私匠)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776	13581	英祖國葬都監都廳 都監 諸色工匠 別單 貫子匠 方時中 (二等) 貫子匠 金和永 等 二名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金和永, 崔濟恒 (以上 私匠) 二房 工匠秩 貫子匠 金德黃 (私匠) 三房 工匠秩 貫子匠 方時中
1776	13586	英祖元陵山陵都監 書啓 都監 別單 造成所 貫子匠 李再文 等 五名 (三等) 造成所 匠人秩 貫子匠 李再文, 李仁良, 金得三, 崔昌禧, 金得秋
1777	13327	眞宗追崇都監 二房 工匠秩 貫子匠 崔啓行 造主所 工匠秩 貫子匠 朴喜成, 朴喜元
1778	13116	正祖孝懿后復位時冊禮都監 一房 工匠秩 貫子匠 金和榮, 朴德仁, 金命器
1778	13306	英祖貞純后尊號尊崇都監 一房 工匠秩 貫子匠 金和永, 朴德仁, 金命起
1783	13311	英祖貞純后四尊號莊祖獻敬后再尊號都監 尊號都監 別單 貫子匠 吳聖範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吳聖範, 金起成, 金光弼, 金得九, 扈益聖, 金仁澤, 金壽男, 金命起, 劉善得, 吳 興, 林尙仁, 鄭光福 三房 工匠秩 貫子匠 趙尙得, 趙福得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784	13200	<p>文孝世子受冊時冊禮都監 都監 別單 貫子匠 朴德仁 等 四名 (三等) 一房 工匠 貫子匠 金漢明, 朴德仁, 金鼎九, 李聖福 三房 工匠 貫子匠 趙福得</p>
1784	13297	<p>英祖六尊號莊祖再尊號都監 尊號都監 別單 貫子匠 趙福得 等 二名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金漢明, 朴德仁 三房 工匠秩 貫子匠 趙福</p>
1786	13925	<p>文孝世子廟所都監 造成所 匠手軍丁 貫子匠 金尙喜, 朴老味</p>
1787	13314	<p>英祖貞純后六尊號都監 都監 別單 貫子匠 林尙仁 (2등) 一房 工匠 貫子匠 金得九, 林尙仁, 金仁澤, 扈益恒, 金廷相, 龍箴匠, 金命起</p>
1789	13624	<p>莊祖永祐園遷奉都監都廳 都監 別單 貫子匠 宋卜得 (三等) 一房 工匠秩 貫子匠 金龍得, 朱福</p>
1789	13627	<p>莊祖顯慶園園所都監 園所都監 別單 造成所 貫子匠 李同伊 等 二名 (三等) 造成所 工匠秩 貫子匠 李同伊, 裒儉尙</p>
1789	13629	<p>莊祖顯園遷園都監 園所都監 別單 造成所 貫子匠 李同伊 等 二名 (三等)</p>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795	13316	英祖貞純后七尊號莊祖獻敬后四尊號都監 尊號都監 別單 貫子匠 金仁澤 (三等) 工匠秩 貫子匠 金仁澤, 金命起, 朴德仁, 李德重, 李繼輝, 扈益恒, 扈泰恒, 龍壽長, 金龜興, 李聖運, 金金伊
1800	13634	正祖國葬都監 工匠秩 貫子匠 李德重, 姜儀道, 李福得 二房 工匠秩 貫子匠 姜遇道 三房 工匠秩 貫子匠 金和永, 金光弼, 扈益恒, 金光潤, 扈壽長, 劉好澤, 崔世談, 李福得
1800	13640	正祖建陵山陵都監 造成所 貫子匠 金尙洽 等 三名 (三等) 造成所 工匠 貫子匠 金尙洽, 金三龍, 孫已特
1802	13122	純祖純元后嘉禮都監 賞典 工匠別單 貫子匠 李德中 等 五名 (三等) 二房 工匠秩 貫子匠 李德重, 李福得, 金仁澤 三房 工匠秩 貫子匠 李德重, 扈太亨, 金光弼 別工作 工匠秩 貫子匠 金道成
1802	13319	英祖貞純后正祖孝懿后尊崇都監 工匠 貫子匠 扈英喆, 劉好澤, 金光潤, 龍壽長, 金仁澤, 李繼輝, 李德中, 崔世福, 姜遇道, 李福得, 羅大得, 金宗謙, 扈文興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례
1804	13322	英祖貞純后八尊加上尊號都監 上號都監 別單 貫子匠 金光雲 (二等) 工匠 貫子匠 李德中, 朴昌雲, 李興國, 文昌得, 金金, 李春得, 崔奉先
1804	14334	仁政殿營建都監 戶曹別單 貫子匠 金世光 等 二名 (三等) 貫子匠 金世光, 李學明
1805	13325	英祖貞純后十尊號都監 都監 別單 貫子匠 劉扈澤 (二等) 工匠 貫子匠 李德仲, 李福得, 朴昌運, 卞龍海, 文昌得, 姜馮道, 崔奉先, 李興國, 扈文興, 金金
1805	13592	貞純王后國葬都監 工匠秩 貫子匠 金景得 三房 工匠秩 貫子匠 李德仲, 龍秀長, 金金, 金光允, 李尙九, 扈永喆, 文昌得, 朴昌云, 柳宗宅, 金光福, 金光弼
1805	13597	貞純王后元陵山陵都監 山陵都監 別單 造成所 貫子匠 劉聖益 等 二名 (三等) 造成所 匠募秩 貫子匠 劉聖益, 康仁伊
1816	13608	獻敬惠嬪喪禮都監 工匠 貫子匠 扈文興, 扈英喆, 劉好宅, 朴昌福, 朴鳳善, 李德重, 韓得伊, 扈文雲, 崔聖雲, 朴昌孫
1816	13616	獻敬王后顯隆園園所都監 園所都監 造成所 貫子匠 金益永 等 四名 (三等) 造成所 貫子匠 金益永, 金孟得, 朴尙孫, 李好得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궤
1819	13130	文祖神貞后嘉禮都監 嘉禮都監 工匠 別單 貫子匠 朴昌玉 (三等) 二房 工匠 貫子匠 朴昌玉, 金宗臣
1821	13647	孝懿王后國葬都監 國葬都監 別單 貫子匠 崔世淡 (三等) 三房 工匠秩 貫子匠 崔世談, 朴昌福, 扈文雲, 崔聖雲, 李德重, 丁興信, 朴昌得, 韓得伊, 朴昌玉, 崔甲孫
1821	13662	正祖建陵遷奉山陵都監 造成所 工匠秩 貫子匠 宋大吉 等 三名
1822	13928	顯穆綵嬪禮葬都監 葬禮都監 別單 貫子匠 朴志會 (三等) 三房 工匠秩 貫子匠 朴枝會, 宋聖吉
1823	13936	顯穆綵嬪徽慶園園所都監 園所都監 別單 造成所 貫子匠 金聖仁 等 四名 (三等) 造成所 工匠秩 貫子匠 金聖仁 等 四名
1821	13647	孝懿王后國葬都監 國葬都監 別單 貫子匠 崔世淡 (三等) 三房 工匠秩 貫子匠 崔世談, 朴昌福, 扈文雲, 崔聖雲, 李德重, 丁興信, 朴昌得, 韓得伊, 朴昌玉, 崔甲孫
1821	13662	正祖建陵遷奉山陵都監 造成所 工匠秩 貫子匠 宋大吉 等 三名
1822	13928	顯穆綵嬪禮葬都監 葬禮都監 別單 貫子匠 朴志會 (三等) 三房 工匠秩 貫子匠 朴枝會, 宋聖吉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례
1823	13936	顯穆綵嬪徽慶園園所都監 園所都監 別單 造成所 貫子匠 金聖仁 等 四名 (三等) 造成所 工匠秩 貫子匠 金聖仁 等 四名
1834	13668 三房	純宗大王國葬都監 工匠秩 貫子匠 朴萬大, 姜益柱, 朴聖實, 金錫喆, 黃學成, 金基喆, 金天得, 金萬喆, 趙福金, 崔完吉
1835	13677	純祖仁陵山陵都監 山陵都監 別單 造成所 貫子匠 李啓得 等 三名 (三等)
1836	13376 一房	純祖純元后文祖神貞后尊崇都監 都監 工匠 別單 貫子匠 金日得 (三等) 工匠 貫子匠 金日得
1837	13139 三房	憲宗孝顯后嘉禮都監 都監 工匠 別單 貫子匠 金億哲 (三等) 工匠秩 貫子匠 金億哲
1837	13980 一房	影幀模寫都監 影幀模寫都監 別單 貫子匠 金最福 (三等) 工匠 貫子匠 金最福
1841	13381 一房	純祖純元后三尊號上號都監 上號都監 別單 貫子匠 沈鏡喆 (二等) 工匠 貫子匠 沈鏡喆, 金奉石
1843	13802 二房 三房	孝顯王后國葬都監 工匠秩 貫子匠 李重현 工匠秩 貫子匠 金啓福, 田興吉, 趙萬吉, 李成孫, 梁卜吉, 孫三大, 崔萬大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례
1843	13809	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 山陵都監 別單 造成所 貫子匠 李福得 等 二名 (三等)
1844	13143	憲宗孝定后嘉禮都監 嘉禮都監 工匠別單 貫子匠 金喜喆 (三等)
	二房	工匠 貫子匠 金喜喆
1846	13765	文祖綏陵山陵都監 山陵都監 別單 造成所 貫子匠 崔哲甲等 二名 (三等) 造成所 工匠秩 貫子匠 金壽東 等 四名
1848	14372	進饌 尙衣院 貫子匠 林喆伊 等 三名
1849	13784	憲宗大王國葬都監
	二房	工匠秩 貫子匠 李天吉
	三房	工匠秩 貫子匠 劉晚石, 崔寬植
1851	13385	純祖純元后文祖神貞后孝貞后尊崇都監 監 工匠 別單 貫子匠 金三孫 (三等)
1852	13391	純祖純元后六尊號都監
	一房	工匠 貫子匠 李尙培
1855	13769	文祖綏陵遷奉都監
	二房	工匠 貫子匠 金貴丕
1855	13770	文祖綏陵遷奉山陵都監 山陵都監 別單 造成所 貫子匠 李順成 (三等) 造成所 工匠秩 貫子匠 李淳成

연대	소장번호	도감의례
1856	13706	純祖仁陵遷奉山陵都監 山陵都監 別單 造成所 貫子匠 崔春大 (三等) 造成所 工匠秩 貫子匠 崔春大
1863	13956 二房	顯穆綵嬪徽慶園遷奉都監 工匠 貫子匠 金貴丕
1864	14870 三房	哲宗大王國葬都監 國葬都監 別單 貫子匠 金壯丕 (三等) 工匠 貫子匠 金長丕
1877	14376	進饌 尙衣院 貫子匠 金富吉 等 三名
1882	13174 二房	純宗純明后嘉禮都監 都監 別單 貫子匠 尹顧勳 (帖加) (三等) 工匠 貫子匠 尹顧勳
1890	13736 三房	神貞王后國葬都監 工匠 貫子匠 崔錫佑
1895	13879 三房	明成王后國葬都監 工匠 貫子匠 崔錫佑
1904	13900 三房	純明皇后國葬都監 工匠 貫子匠 崔錫宇
1906	13197 一房	純宗純宗妃嘉禮都監 嘉禮都監 別單 紗帽匠 李浩錫 等 二名 (三等) 工匠 紗帽匠 李浩錫

【참고문헌】

원전

- 『經國大典』, 『世宗實錄』, 『文宗實錄』, 『英祖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六典條例』
『祭器樂器都監儀軌』, 1624. 卍13734.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1627. 卍13197.
『(仁祖莊烈妃)嘉禮都監儀軌』, 1638. 卍13061.
『(顯宗明聖妃)嘉禮都監儀軌』, 1651. 卍13071.
『永寧殿女修都監儀軌』, 1667. 卍14224.
『(肅宗仁顯妃)嘉禮都監儀軌』, 1681. 卍13084.
『(景宗宣懿妃)嘉禮都監儀軌』, 1718. 卍13094.
『(眞宗孝純妃)嘉禮都監儀軌』, 1727. 卍13105.
『(英祖貞純妃)嘉禮都監儀軌』, 1759. 卍13103.
『(正祖孝懿妃)嘉禮都監儀軌』, 1762. 卍13114.
『(純祖純元妃)嘉禮都監儀軌』, 1802. 卍13122.
『尙方定例』, 1752. 卍190.
憑虛閣李氏, 『閨閣叢書』, 鄭良婉 譯註, 보진재, 1975.
徐有渠, 『林園十六志』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漢山居士, 『漢陽歌』, 1840. 古3320.
『備邊司謄錄 濟州記事』, 제주도 제주시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9.
『濟州史資料叢書 (1)』, 제주도, 1998.

중국 및 일제시대 자료

- 戴爭 編著, 『中國古代服飾簡史』, 輕工業出版社, 1988.
- 沈從文 編著, 『中國古代服飾研究』, 常務印書館, 1992.
- 王維忠·劉翠華·周加戎 編繪, 『應用服飾資料』, 遼寧美術出版社, 1993.
- 黃能馥·陳娟娟 編著, 『中國服裝史』, 中國旅遊出版社, 1995.
- 『三才圖會』, 『七修類稿』, 『蜩庵瑣語』, 『天工開物』
-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황성신문』
- 『濟州道勢一覽』, 朝鮮總督府, 1939.
- 朝鮮總督府, 調查資料 제19집 『朝鮮の物産』, 朝鮮總督府, 1927.
- 崔南善, 六堂崔南善全集 3, 『朝鮮常識問答·朝鮮常識』, 현암사, 1973.
- 『韓國地理風俗叢書』 100, 濟州道·漢拏山の自然と風物, 『未開の寶庫 ~濟州道』, 全羅南道 濟州道廳, 1924.

도록

- 계간미술·중앙일보 편집부, 한국의 미 19 『풍속화』, 중앙일보사, 1981.
- 계간미술·중앙일보 편집부, 한국의 미 20 『인물화』, 중앙일보사, 1981.
- 국립문화재연구소,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石宙善, 民俗學資料 제4집, 『冠帽와 首飾』,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3.
- 이화여자대학교, 『檀人服飾美術館』, 이화여자대학교, 1999.
- 전통오색전지공예연구회, 『조선시대 한지공예 특별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 『朝鮮時代の 冠帽』, 온양민속박물관, 1988.
- 조풍연 해설,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서문당, 1987.

조홍윤 · 게로노트프루너, 『기산풍속도첩』, 범양사, 1984.

한국국제교류재단, 『유럽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한국국제교류재단,
1989.

보고서 · 논문

『제주어사전』, 제주도, 1995.

姜淳弟, 『우리 冠帽의 始末에 關한 研究』,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2.

金榮敦, 『濟州島民의 民間工藝』,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34호, 문화재
관리국, 1967.

김영배, 『제주도 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김영배, 『제주도 민요연구』, 도서출판조약돌, 1983.

金鍾太, 『網巾匠』,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40호, 문화재관리국, 1980.

金鍾太, 『韓國手工藝美術』, 예경출판사, 1990.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2

沈載完 · 李殷昌, 『韓國의 冠帽』, 영남대학교 신라가야문화연구소, 1972.

芮庸海, 『人間文化財』,

芮庸海 · 李宗碩, 『32. 망건장』, 『무형문화재조사약보고서 : 약보고 1980
~1991』, 문화재관리국, 1986.

李榮培, 『갓, 모자제품의 유통과 거래』, 『1998년도 조사연구보고서』 제12
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8.

李宗碩, 『1. 갓일, 탕건장, 망건장』, 『무형문화재조사약보고서 : 약보고
1980~1991』, 문화재관리국, 1980.9.

張慶姬, 『중요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화산문화, 2000.

홍희유, 『조선상공업사』 (고대 · 중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홍희유, 『조선수공업사』 2, 공업종합출판사, 1991.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초판 인쇄 · 2001년 12월 20일

초판 발행 · 2001년 12월 26일

기획 · 문화재청

글 · 장경희

사진 · 김옥선

발행인 · 허만일

발행처 · 화산문화

등록 · 1994년 12월 18일(제2-1880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6 효자상가 A 201호

전화 · 02)736-7411~2 팩스 · 02)736-7413

E-mail · hatbitchum@yahoo.co.kr

© 문화재청, 2001

ISBN 89-86277-54-9 93630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망건장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사대부들이 상투를 튼 다음 머리를 간추릴 때 사용한 일종의 머리띠였다. 그리고 사대부들의 망건에는 반드시 관자를 장식하여 관모를 쓰기 위한 쓰임새와 신분상의 품위를 유지했다. 때문에 망건의 제작과정에는 망건장과 동시에 관자장이 있어야 했다.

이 책에서는 망건과 망건장의 역사, 망건의 재료와 제작 도구, 망건의 구조와 제작 과정, 망건장의 전승 현황을 역사적 고증과 원전사료를 수집·정리하고, 제주 망건과 육지 망건의 제작과정을 현지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9 788986 277548

93630

값 9,000원

ISBN 89-86277-54-9